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몰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대표전화: (703)281-9660 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제 691420호

Thursday, November 6 2025 A

스팬버거 "유권자는 당파성보다 실용주의 선택했다"

사상 최초 여성 주지사 탄생 스팬버거, 얼-시어스에 압승 아이린 신하원의원 3선 성공 민주, 하원 압도적 다수당 차지

4일 치러진 버지니아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애비게일 스팬버거 주지사를 비롯한 모든 주단위 선출직은 민주당 이 싹쓸이 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주하 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고, 한인 아 이린 신 하원의원은 3선에 성공했다.

[주지사 선거]

민주당의 애비게일 스팬버거는 공화 당의 윈섬 얼-시어스 후보와의 격돌에 서 5일 오후 1시10분 현재 개표율 100% 를 기록한 가운데 57.16%인 192만1419 표를 획득해 42.64%인 143만3393표 획 득에 그친 얼-시어스에게 큰 표 차이로 낙승을 거뒀다.

이로써 전 CIA 요원이자 하원의원 인 스팬버거는 버지니아 최초의 여성



스팬버거가 헌던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장면과 아이린 신이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모습.

주지사이자 패트릭 헨리부터 글렌 영 킨에 이어 75번째로 수장 자리에 앉게

4일 밤 9시경 승리가 확정 시 되자 스 팬버거는 리치몬드에서 가진 빅토리 연설에서 "이번 선거는 버지니아 유권 자들이 당파성보다는 실용주의를 선 택했다"고말했다.

[부주지사 선거]

투표 하루 전만 하더라도 예상이 불 가능할 정도로 막중세를 보였던 부주 지사 선거는 5일 오후 1시10분, 개표율 99% 기록한 가운데, 민주당의 가잘라 하쉬미가 55.23%인 184만5925표를 획 득해 44.52%인 148만7982표을 얻는 데 그친 공화당 라디오 진행자 존 리드를

크게 누르고 승리를 거뭐졌다.

[법무장관 선거]

이번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연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법 무장관 선거에서 민주당의 제이 존스 가 '폭력적 문자 메시지' 사건으로 곤 혹을 치루며 패배가 예상되기도 했지 만, 결국은 공화당의 제이슨 미야레스

를 누르고 승리하는 이변이 연출돼 관

역시 5일 오후1시10분, 개표율 99% 가 이뤄진 가운데, 민주당의 존스 가 52.72%인 175만3280표를 획득해 46.87%인 155만8759표를 획득한 미야 레스를 눌렀다.

[하원 8지구 선거]

버지니아 유일의 한인 정치인이자 젊 은 여성인 민주당 '아이린 신'은 이번 에 하원의원 8지구 3선 도전에서 공화 당 후보인 인디라 매시와 맞붙었는 데, 5일 오후 개표율 100% 기록한 가운데 73.88%인 2만2242표를 획득해 26.12% 인 7865표를 얻는 데 그친 인디라 매시 후보를 일찌감치 따돌리고 3선에 성공 했다. 4일 밤 헌던의 한 레스토랑에서 열린 승리 파티에는 한인 지지자들은 물론 제임스 워킨쇼 버지니아 연방하 원이 참석해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김성한 기자

2면 '지방선거' 로 이어집니다

트럼프, 정부 셧다운 지출에 '좌파' 맹비난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은 5일 전 날 열린 일부지역 선거에서 공화당의 패배를 일축하며, 당이 연방정부를 재 개하고 보수적 의제를 추진하는 데 집 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상원의원들 과 밴스 부통령 등과 함께 백악관에서 열린 조찬 모임에서 "어젯밤은 매우 민 주당적이었고, 공화당원들에게는 좋 지 않았다"고 실토하며,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위해 나가야 한 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제 공화당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라며 "필리버스터를

종식시키는 것이 매 주 중요하다"고 말 하면서 "그렇지 않 으면 큰일 난다. 어 떤 법안도 통과시키 지 못할 것"이라고 염려의 목소리를 높

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의 민주당 의 원들이 "민주당이 만든 정부 폐쇄"를 장기화함으로써 "가미카제 조종사"처 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정부 폐 쇄가 계속 지속되면 수백만 명의 국민

이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이번 셧다운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의 급진 좌파는 연방정부 재개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자칫하면 나라를 무너뜨 릴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그는 공화당에 유권자 신분증과 우편 투표 제한을 포함한 선거 공정성 개혁을 위해 단호하게 행동할 것을 촉 구하며 이 모든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가 이걸 제대로 하면 역사상 가정 성공 적인 의회를 만들 것이고, 그렇지 않으 면 매일 급진 좌파 반체제 인사들과 논 쟁만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한 기자

재입국 허가 만료 영주권 한인 구금

애틀랜타 공항에서 입국 거부 허가서가 입국 자동 보장 안해

애틀랜타 공항에서 최근 재입국 허가 서(Re-Entry Permit) 유효기간이 만 료된 영주권자가 입국을 거부당하고 구금되는 사례가 발생해 한인사회의 주의가 요구된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성명환 경찰영 사는 "부임 이후 처음 있는 사례로, 해 당 영주권자는 현재 스튜어트 이민구 치소에 수감돼 있다"고 밝혔다. 영주권 자가 허가서 만료 후 얼마나 지난 뒤 입 국하려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 영주권자는 미국을 1년 이상 2년

미만 장기 출국할 경우, 출국 전 반드 시 이민국(USCIS)에 I-131 서류를 제 출해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고 유효 기간 내 미국에 재입국해야 한다. 영사 관은 "허가서가 만료된 뒤 입국을 시 도하면 영주권 상실 또는 입국 거부가 가능하다"며 "재입국 허가서가 있어도 입국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 다"라고 설명했다. 재입국 허가서는 발 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영사관은 재입국 허가 기간이 만료 됐거나 영주권을 분실·도난당한 경우, 출국 전 주한 미국대사관 등을 통해 입국 가능 여부를 재확인할 것을 권고 했다. 윤지아 기자

• 571.549.6789







Annandale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410-988-5523

구합니다

REALTYONE GROUP

THE SCHNEIDER **TEAM**

Okoriny 승경호 부동산

비엔나 NEW 싱글

방 6, 화 6.5, 4832 SqFt. 럭셔리 모던 스타일, 2026 1월 완공

베데스다 NEW 싱글

\$3,195,000

방 5, 화 4.5, 3400 SqFt.

지금 전화주세요!

방 7, 화 6.5, 5130 SqFt. Ready for move-in! 켄싱턴 싱글

맥클린 NEW 싱글



베데스타 델리

판매가 \$170.000

너무 좋은 자리, 1200 SF, 주매상 \$10,000, 랜트 \$5791

버지니아 와이너리 사업 및 토지 매물

- 규모: 120에이커 (약 48만m²)
- 시설: 테이스팅룸, 코티지, 창고, 와인 공장, 연못, 주차장(104대 수용) 현황: 현재 영업 중인 유명 와이너리
- 매매가: \$7.500.000
- 지연 경관 뛰어난 프리미엄 와이너리, 관광·이벤트 운영 병행 가능

투자용 상가 건물

매매가: \$8,000,000 · 연 순수익: \$520,000 (Cap Rate 약 6.5%) 임차인: 총 7개, 모두 5년 이상 장기 계약 중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춘 우량 상가. 투자자 강력 추첸

냉동 · 냉장 창고 매물

위치: 메릴랜드 볼티모어 · 면적: 16 000 SF 설비: 냉동·냉장고 완비 · 매매가: \$1,500,000 유통업, 식품물류, 온라인 배송업체에 적합한 최적 창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이제 미국 16개 주요 지역에서 보다 폭넓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제하는 뉴욕 코리니 부동산 Koriny New York 과의

이번 협력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을 오기는 이민 · 역이민 관련 세금 컨설팅, 주택 구입 및 투자 절차 지원, 그리고 기업의 초기 정착(랜드링) 서비스 등 부동산 전 영역에 걸친 원스톱 맞춤형 솔루션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부동산·투자 세미나를 연 2회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지난 10월에는 워싱턴 세미니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더불어, 한국 NH금융, 하나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과의

또한, 서울과 워싱턴 D.C.를 연결하는

협력 체계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뉴욕 코리니 부동산과 함께 한국과 미국을 잇는 글로벌 부동산 네트워크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며, 최고의 신뢰와 가치를 제공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주택 매매 · 상업 투자 건물 사업체 매매 · 사업체 임대 계약 건축면허 소지 VA Class A Contractor Tech Pulse Korea 대표 Cloud Papyrus 대표

리얼티원그룹 슈나이더팀 대표 "내집장만" 부동산 소식지 발행인 | 건축면허 소지 JK Schumann Inc 국제기업컨설팅 대표

703.928.5990 k@dwellwashington.com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企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 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연방 상원, 예산안 또 부결

셧다운 36일째 '역대 최장' 경신 트럼프 "SNAP 중단" 발언 번복

연방정부 셧다운을 종료하기 위한 단 기 지출법안(임시 예산안)이 4일 연방 상원 표결에서 또다시 부결됐다. 이로 써 셧다운은 5일(오늘)로 36일째를 맞 으며 사상 최장 기간을 경신했다.

이날 예산안은 찬성 54표, 반대 44 표로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법 안은 지난 9월 19일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ACA) 등 의료·복지 분야의 추가 지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이 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예산안의 만 료일은 오는 21일이다.

교착 상태가 계속될 경우, 공화당 지 도부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만료일 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는 새로운 단기 예산안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AP(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지원

금지급을 다시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 다. 그는 "민주당이 정부 셧다운을 끝 내기 전까지 SNAP 지원금을 지급하 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캐 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법원 명 령에 따라 예정대로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정정했다.

앞서 연방 농무부(USDA)는 지난 3 일 SNAP 수혜자 약 4200만 명에게 11 월분 지원금 50%를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준 기자

대형마트즉석파스타 먹고 6명 사망

식중독균에 오염된 제품 가주 등 18개 주서 유통

주요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즉석 파스 타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 중 다수가 식 중독에 감염돼 6명이 사망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국내 트레이더조, 앨버트슨, 크로거, 스프라우츠 파머스 마켓 등 주요 유 통망에서 판매된 '네이트스 파인 푸 드'(Nate's Fine Foods Inc.사진)의 즉석 파스타 제품에서 식중독균 '리 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

해당 제품들은 지난 6월부터 리콜 조치가 이뤄졌지만 이후에도 캘리포니 아, 플로리다, 하와이 등 국내 18개 주 에서 총 27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으 며이 가운데 25명이 병원에 입원했다.



제조업체 네이트스 파인 푸드는 지 난 9월 성명을 통해 "최고 수준의 식품 안전 기준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식중독 원인균 중 하나인 리스테리 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냉장·냉동 환 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식중독균으 로, 식품 가공 및 포장 과정에서 쉽게 오염될 수 있다.

감염되면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대부분은 며칠 내 자 연 회복되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 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CDC는 이번 감염 사례 중 임신부 1 명이 유산을 겪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된 임신 부는 태아 사망이나 조산 위험이 높아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1250명이 리스 테리아균에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되 며, 이 중약 172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식품으로 인한 질병 중세 번째로 높은 사망률이다.

식품안전 전문가 벤저민 채프먼은 이번 사태에 대해 "리스테리아 식중독 발생 건수와 피해 규모를 감안하면 이 번 사건은 매우 심각하고 이례적"이라 며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 전반의 점검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운항 여부·지연 상황 확인 필수

취소시 비환불권도 환불 가능 교통부 웹사이트서 보상 확인

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전국 공항에서 항공편지연 및 취소 등의 대란이 일어 나고 있다. 〈본지 11월 4일자 A-2면〉

FOX 11은 이런 항공 대란 상황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정 리했다.

▶공항 가기 전 사전 확인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항공사 앱이 나 항공편 웹사이트에서 운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연방항 공청(FAA) 웹사이트(nasstatus.faa. gov)를 통해 해당 공항의 전반적인 지 연상황도조회할 수 있다.

▶항공편 지연

미국 항공사는 항공사 과실로 장기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체류 승객에게 추가 현금 보상이나 숙박·식사비를 제 공할 의무가 없다.

▶항공편 취소

항공편이 취소되면 가장 먼저 할 일 은 대체 항공편을 찾는 것이다. 항공사 는 추가 비용 없이 이후 항공편으로 재

예약을 해준다.

공항 고객 서비스 데스크에 줄을 서 는 동시에, 항공사 예약센터에 전화하 거나 온라인으로 접속해 재예약을 진 행하는 것이 좋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항공사에 연락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항공사는 타 항공사 항공편으로 예약 을 변경해줄 의무는 없다.

여행을 할 필요가 없거나 다른 이 동 수단을 찾았다면, 환불 불가 항공 권이라도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항공 편 취소 사유와 관계없이 항공사는 법 적으로 요금 환불 의무가 있다. 수하물 요금과 좌석 업그레이드 비용 등 추가 비용도환불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유효기간이 짧은 바우 처 대신 현금 환불을 받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미국 항공사는 항공사 책임으 로 인한 항공편 취소라도 체류 승객에 게 추가 현금 보상이나 숙박·식사 제공 의무가 없다. 항공사별 정책은 다르며, 연방교통부(DOT) 홈페이지에서 각 항공사의 환불 및 지연·취소 보상 정책 을비교할 수있다.

송윤서 기자



정부 셧다운이 길어지는 가운데 버지니아주 알링턴 레이건 워싱턴 내셔널공항 전광판에 항공편 지연 정보가 표시되고 있다. [로이터]

데이터센터 세금혜택 2050년까지 연장 추진

데이터센터가 환경오염과 전력난의 원 인이 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버지 니아 의회에서 각종 세금 혜택을 연장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테리킬고어(공화, 스콧카운티) 하원 의원이 상정한 법안에 따르면 2050년까 지 각종 세금환급 등의 조치가 연장된 다. 이 조항이 통과되면 데이터센터 기 업들은 장비 및 설비 구입 시 부과되는

등을 일정 비율로 환급받게 된다.

킬고어 의원은 "우리는 데이터 센터 를 규제하려고 하지만 오하이오, 인디 애나, 켄터키, 조지아 등이 우리의 데이 터산업을 본받아 우리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1등을 할지알수없는상황에서지속적인세 제 혜택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버지니아 라우던 카운티와 프린스 판매세(Sales Tax)와 사용세(Use Tax) _ 윌리엄 카운티에 형성된 데이터센터 _ 표"라고 밝혔다.

단지는 전세계 1위 규모를 자랑한다.

데이터센터는 원래 북버지니아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 옹호했으나, 지 금은 중부와 남동부 지역 공화당 의원 들의 주요 관심사가 됐다.

킬고어 의원은 "데이터센터 산업은 이미 버지니아 경제의 중추가 됐다"며 "특히 서부와 남부 지역에도 시설 유치 를 확대해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목 김윤미기자 | 된다

>> 1면 '지방선거' 에서 이어집니다

[주하원의원 선거]

민주당 후보들은 4일 주 하워의워 선 거에서 북버지니아 지역 30개 의석을 모두 차지하면서, 51 대 49의 다수당 지 위를 크게 확대했다.

4일 밤 11시 현재 13석을 차지했고 한 곳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총 100석 중 최소 64석을 확보하게 돼 이는 거의 40년 만에 가장 많은 의석이

지난 수년 간 공화당이 장악해 오던 와중에 민주당은 2019년 하원에서 과 반 의석을 확보했지만, 2021년 공화당 의 글렌 영킨이 주지사로 선출되면서 과반 의석을 잃었다.

그러나2021년 말 선거주 재조정 이후 20234년에 다시 과반 의석을 확보해 오 늘에 이르렀다. 김성한 기자

> 중앙일보구독 문의 703-281-9660

위성턴날씨 (°F) 7일(금) 66-54 🏝 10일(월) 45-29 🏝 8일(토) 71-48 11일(화) 49-36 11월 6일(목)59-35 12일(수) 62-38 👛 9일(일) 67-36 🕋

① 위싱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SALE (독점) 교통 좋은 알렉산드리아 3층 타운 홈 \$749,900 차고 2, 방 3, 화 3½

강사 소개

RENT FA 기차역 가까운 매나세스 3층 End 타운 홈 차고 2, 방 3, 화 2.2

워싱턴 세계선교축제

World Mission Festival in Washington, USA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2007년 5월에 출발한 송웅호 선교사의 선교사역이 2025년 9월 23일 101차의 긴 선교여정을 은혜 중 마치게 되어 선교보고와 더불어 선교사역의 생생한 내용을 담은 "에벤에셀" 출판기념회로 모여 기쁨을 함께 나누고 아울러 이름없이 선교현장에서 사역을 하며 열매를 거두고 있는 두 분 선교사의 생생한 간증을 든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교포럼(Forums)을 통하여 21세기 선교의 바른 방향에 대한 주장을 듣고 배우고 정리하는 시간을 함께 합니다. 선교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누구나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짜: 2025년 11월 14일-15일

장소: 안나산기도원

목적: 목사 초청 만찬회 겸 선교포럼 (11월 15일 토요일 오전 11시)

주관: GMC/지구촌선교모임 (송웅호 선교사)

전화: 703-223-3986 (미국) / 010-6698-5809 (한국)

***11월 14일**(금)과 **15일**(토)에 저녁식사를 하실 분들은 오후 6시 식사 시간을 지켜 주시고, 사전에 꼭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안나산 기도원 (김영창 원장) 전화: 301-874-2983 강사 소개: 송웅호 선교사, 정득채 선교사, 백영정 선교사



김영창 원장



1. 송웅호 선교사

- Founder of GMC (지구촌선교모임)
- 16개국에서 101차의 선교사역을 마침
- 8권의 책을 만듬 (3권은 선교현장에서 가르치는 교재)

2. 정득채 선교사

- 연세대 졸업, 조지워싱턴대학 경영대학원 졸업
- Chief CEO로 은퇴 (DUCOM Inc.- 1985년 설립)
- 비영리단체인 DYC Foundation (2015년 설립)을 통하여 선교사 지원, 신학생 장학금 지원 그리고 선교현장에서 교회와 선교센터 건립 후원

3. 백영정 선교사

- 강서대 사회복지과 졸업, 안양신학교 (M. Div.)
- 한국에서 15년간 부교역자로 봉사
- 중국선교 20년. 중국, 러시아농촌, 북한사역 4년



"18년 선교사역 열매 함께 나누고파"

11월 14~15일 워싱턴 세계선교축제

20년 가까이 진행되어 오고 있는 선교 사역의 여정을 함께 나누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GMC지구촌선교모임(대표 송웅호 선교사)은, 오는 11월 14일(금)부터 15 일(토)까지 메릴랜드 소재 안나산기도 원(원장 김영창)에서 워싱턴 세계선교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07년 5월 시작한 송 웅호 선교사의 선교사역이 지난 9월 23일 101차의 긴 선교여정을 마치게 된 것을 함께 기뻐하며 그 선교사역의 내 용을 담은 책 '에벤에셀'의 출판을 기 념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최측은 설명 했다. 송웅호 선교사는 16개국에서 101 차의 선교사역을 마쳤으며 8권의 책을 출간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남모르게 선교현장에서 사역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정득채 선 교사와 백영저 선교사 등 두 선교사의 간증도함께 들을 수 있다.

(문의: 703-223-3986, 301-874-2983)

홍알벗 기자

"트럼프정부,비만치료제약값인하곧발표예정"

워싱턴DC 재미대한사격연맹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라이 릴리, 노보 노디스크와 비만치료제 가 격 인하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미 CBS 보도를 인용해 5일(현지시간) 전 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두 제약사와의 협상 결과를 오는 6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상으로 비만체료제 가격은

한 달분에 150달러까지 인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와 두 제약사사이에 약값 인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전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양사의 비만치료제 일부 저용량 제품을 새 웹사이트 '트럼 프알엑스'(TrumpRx)를 통해 소비자 에게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과 특



정 장애인 의료 지원)와 메디케이드(저 소득층 의료 지원)에서 이들 비만치료 제의 비용을 보장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와이 연가' 상영 및 강연회

주미대한제국공사관서 개최, 8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미국사무소 (소장 강임산)는 오는 8일(토) 오후 2시, 워싱턴DC 주미대한제국공사 관 3층 전시실에서 '하와이 연가, 미 주 한인이민사를 말하다'라는 제목 의 제8회 전문가 초청 강연 및 영화 상영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미주 한인이민사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하와이 연가〉 상영과 이진영(나우프로덕션 대표·사진) 감독의 무비 토크로 진 행된다.

이 감독은 앞서 〈무지개나라의 유 산〉을 통해 하와이 지역 한인이민사 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바 있다.

〈하와이 연가〉는 하와이의 한인 유적지를 배경으로 초기 한인이민 자들의 삶을 세 가지 옴니버스 형식 으로 구성했다.

연극배우 예수정의 나레이션과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바이 올리니스트 김지연, 하와이 심포니 오케스트라 악장 이그나스 장, 슬랙 키 기타리스트 케올라 비머(Keola



Beamer) 등이 참여했다.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이메일 (info@OldKoreanlegation.org)을 통한 사전 접수(선착순 40명)로 참 가할 수 있다. 주차장은 제공되지 않으며 대중교통 이용이 권장된다.

장소: 주미대한제국공사관 3 층 전시실 (1500 13th St NW, Washington DC)

문의: 202-844-3319 / 국외소재문 화유산재단 미국사무소

김윤미 기자

중동서 이란 미사일 막은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

지난 3월 중동으로 파병됐던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가 임무를 마치고 한반도 로 복귀했다.

이들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저지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방공 전력 강화에 투입될 전망이다.

주한미군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초미 중부사령부 작전구역에 파 병됐던 제35방공포병여단 예하 제1방 공포병연대 2대대가 한반도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복귀 병력은 약 500명 규모로, 지난달 30일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귀환했다.

이 부대는 지난 6월 미국의 이란 핵 시설 타격 이후 카타르 미군 공군기지 를 향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 는 작전에 투입됐다.

당시 미사일 요격에 성공하며 중동

지역 미군 및 연합군 자산을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이번에 복귀한 병력은 해외 실전에서 얻은 경험을 토 대로 한반도 방위태세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한미 연합훈련과 상호작전 경험 덕분에 다른 순환부대보다 훨씬 빠르게 전투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95 교통사고 후 화재 2명 사망, 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스포칠베이니아 카운티 프레 드릭스버그 지역의 I-95 하이웨이에서 5일 픽업트럭 충돌 사고 후 화재가 발 생해 2명이 사망했다. 버지니아주 경찰 (VSP)에 따르면, 충돌 사고는 이날 오전 1시경 126번 출구 앞 남쪽 차선에서 발생했다. 충돌로 인해 픽업트럭 안에 있던 두 사람은 현장에서 숨졌는데, 신 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트랙터 트레일러 운전자는 부상을 입지 않고 멀쩡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I-95 구간 2마일 이상 차량 정체 현상 을 빚으며 교통혼잡을 야기했다.

경찰을 충돌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 인을 조사 중이다. 김성한 기자



향군 회원 들이 거수 경례를 하 고있다.

고(故) 김귀동 예비역 육군 대령 장례식 거행

예비역 육군 대령 고(故) 김귀동 씨의 장례식이 지난 4일 메릴랜드주에서 거 행됐다.

장례식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Hines Rinaldi Funeral Home에서 추 모예배로 진행됐으며, 이어 오전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Gate of Heaven Cemetery에서 하관예배가 거행됐다. 이번 장례에는 재향군인회 미동부지회 김인철 회장이 태극기 관 포식을 집전하며 고인의 군 경력과 공 헌을 기리는 추모사를 낭독했다.

김 회장은 "고인은 해마다 직접 가꾼 향나무로 옷장용 향주머니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나누어 줄 만큼 따뜻하고 인자한 분이었다"며 "그분의 세심한 정성과 배려를 오래도록 기억하겠다" 고 말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이행사** www.**toptravelusa** info@toptravelusa.com

애난데일 **703.256.0606** WA 엘리秋티**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센터빌 중심부에 열린 시니어 데이케어를 11월 중 오픈합니다.

FDIC F

5649 Mount Gilead Rd, Centreville, VA 20120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케어 받을 수 있습니다

홈 케어

데이 케어

양로 호텔

가정 돌봄 센터



버지니아 열린 홈 헬스케어 / 대표 : 김 종 훈 Mobile (703)268-0107 / Office (703)280-0910 / Fax (571)487-8751 email: info@VAOHCARE.COM / General Inquiries: info@vaohc.com

LAPD 합의금 4억불 ... 시 재정 비상

경찰 총격, 불법 수색 등이 절반 5년간 2000건 소송, 시가 배상 감사관 "LA시 재정 파산 위기" 주민 서비스 제공할 기금 고갈

최근 5년간 LA경찰국(LAPD)의 부적 절한 행위로 인해 지급된 합의금이 4억 달러에 달하면서 LA시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인권 침해와 과잉 진압 등으로 만 약 2억 달러가 지출돼, 일선 경찰관 들의 부적절한 대응도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후 LAPD를 상대로 제기된 약 2000건 의 소송으로 LA시가 약 3억8400만 달 러를 합의금으로 지급했다고 3일 보도 했다.

가장 많은 지출은 시민 인권침해, 경 찰 총격, 과잉 진압, 불법 수색 등으로 전체의 절반인 1억8300만 달러를 차지

했다. 교통사고 관련이 23%, 노사분쟁 이 17%로뒤를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LA시는 2024-25 회 계연도시작 후 불과 두 달 반 만에 약 4800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지출했다. 이는 올해 LA시 소송 합의금 예산(1억 8700만 달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당시 케네스 메히아 LA시 감사관은 "시 재정이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고경고한바있다.

메히아 감사관은 모든 합의금이 시 정부의 일반기금에서 충당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 예산·재정위원회 소속 유니 세스 에르난데스(1지구) 시의원은 "시 LA퍼블릭프레스는 지난 2019년 이 수입이 배상비용 증가 속도를 따라가 지 못하고 있다"며 "일반기금이 배상 금으로 빠져나가면서 보도 수리나 가 로등 보수 등 주민 서비스가 줄고 있 다"고말했다.

> 지난 회계연도 LAPD 관련 합의금 은 1억5500만 달러였다. 이는 LA시 동 물관리국과 가로등 관리부의 1년 예산

을 합친 수준이다. 다른 부서에서도 소 송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 감사실 자 료에 따르면 전체 상위 10건 중 8건이 LAPD 관련 사건이었다.

2019년 이후 시위 관련 과잉 진압 및 인권침해 소송 35건으로 2000만 달러 가지출됐다. 특히 최근 반이민 단속시 위에서도 LAPD의 과잉 진압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권 변호사 댄 스토머 는 "이런 사례가 누적될 경우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추가 합의금이 발생할 가 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UCLA 조애나 슈워츠 법학 교수는 "시가 경찰 관련 소송비용을 줄이려면 개별 경찰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 예산에서 합 의금을 충당하더라도 초과분은 결국 시가 보전해주는 구조라 근본적 해결 이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LAPD는 소송 예방을 위한 구 체적 대책이나 시의회 보고서를 제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한길 기자



UPS화물기, 공항 인근 폭발 추락 4일 켄터키주 루이빌 국제공항 인근에서 UPS 화물기가 추락 했다. UPS 화물기는 이륙 직후 폭발하며 대형 화재로 번졌고, 불길은 인근 산업단지까지 확산됐다. 현재 공항은 전면 폐쇄된 상태다. 이 사고로 비행기에 탑승해 있던 승무원 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 [WLKY 캡처]

SD카운티 주택가 1년 새 3% 하락

교외 지역은 크게 떨어져 칼스배드, 외려 4% 올라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주택 가격이 지 난해보다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 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 질로 (Zillow)에 따르면 2024년 9월~2025년 9월 샌디에이고의 평균 주택가는 약 3% 감소했다.

다만 칼스배드는 예외적으로 주택 가가 상승하며 캘리포니아 주와 샌디 에이고 카운티 내 최대 인상 지역으로 꼽혔다. 칼스배드의 평균 주택가는 지 난해 119만 달러에서 올해 9월 124만 달러로 약 4% 상승했다. 랜초 산타페 역시 평균 주택가가 전년 대비 약 3만 달러 오른 427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

외 본샐, 알파인, 펄브룩, 엔시니타스 등지역도 다소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교외 지역에선 하락세가 두드 러졌다. 마운트 라구나의 평균 주택가 는 전년 대비 13%(-4만1452달러) 하락 해카운티내가장큰낙폭을기록했다 . 또 팔로마 마운틴은 11%, 보레고 스 프링스와 불러바드는 각각 8% 가량 떨 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하락세는 교외뿐만이 아닌 도시 지역에서도 이어졌다.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곳은 임페리얼 비치로 2024년 9월 이후 평균 주택 가치가 약 4 만1450달러 감소했다. 샌디에이고 주 택가 역시 전년 대비 4만3405달러(4%)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세나 기자

아이어스 멜버른대교수, 차광렬 줄기세포상 수상

지난달 ASRM 연례 총회서 선정 생식 발달·성분화 연구 성과 인정 차 소장, 사재 100만 달러 기부

차병원·차바이오그룹이 제12회 '차광 렬 줄기세포상' 수상자로 케이티 아이 어스 호주 멜버른대 머독아동연구소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LA 할리우 드 차병원을 비롯해 전 세계 7개국 96 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그룹은 지난 달 25일부터 29일까지 텍사스주 샌안 토니오에서 열린 제81회 미국생식의학 회(ASRM) 연례 총회에서 수상 사실 을 발표했다.

차광렬 줄기세포상은 세계 최초 미 성숙 난자 체외배양법과 급속 난자동 결법을 개발하고 난자은행을 설립한 차광렬 차병원·차바이오그룹 글로벌 종합연구소장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11년 제정됐다. ASRM이 제정한 상 가운데 아시아인 이름이 붙은 유일한 상으로, 매년 생식의학·줄기세포 연구 분야에서 혁신적 성과를 낸 연구자를 선정한다.

올해 수상자인 아이어스 교수는 '태 아 생식선 발달과 성 분화 이상에 관여 하는 유전자·조절 영역 분석을 위한 확 장형 줄기세포 모델 개발'연구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머독아동연구소 그룹 리더이자 멜버른대 소아과 부교 수로서 인간 생식 발달의 유전·분자 메 커니즘과 성발달차이(DSD)를 연구하 고 있으며,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게

학술지에 다수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줄기세포 유래 고환 오르가노 이드를 활용한 이번 연구가 인정받아 뜻깊다"며 "성 발달 차이 등 생식 질환 의 유선석 원인 규명과 임상 가이느라 인 마련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놈 바이올로지, 디벨롭멘털 셀 등 주요

이와 함께 차광렬 차병원·바이오 그룹 글로벌연구소장은 생식의학 연 구 보호와 차세대 연구자 지원을 위 해 ASRM에 사재 100만 달러를 기부 했다. 이번 기부는 연구 지원 캠페인 'Fighting for Our Future: Rescuing Research'의 일환으로, 기부금은 줄

기세포·생식의학 연구 교류 프로그램 'KY CHA 심포지엄' 개최와 수상자 연구비 증액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엘리자베스 긴즈버그 ASRM 회장 은 "차 소장의 후원에 깊이 감사한다" 며 "생식의학 연구 생태계를 보호하고 차세대 과학자 양성에 큰 힘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차광렬 소장은 차 병원·차바이오그룹의 모태인 차산부 인과를 설립한 고 차경섭 명예 이사장 의 아늘이다. 1985년 한국 민간병원 최 초시험관 아기 출산 성공, 1988년 세계 최초 미성숙 난자 임신·출산 성공, 난자 급속 냉동 기술(유리화 난자동결보존 법) 개발, 1999년 세계 최초 난자은행 설립. 2014년 성인 피부세포 기반 체세 포복제 줄기세포 확립 등 생식의학 분 야에서 세계적 성과를 이뤄낸 인물로 평가받는다.

배스, 노숙자 비상사태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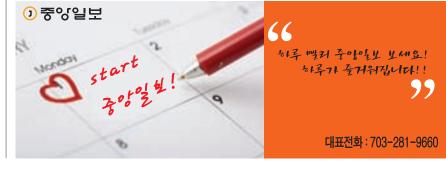
캐런 배스 LA 시장이 노숙자 문제 해 결을 위해 지난 2022년 12월 10일 취임 첫날 발효했던 '노숙자 비상사태'를 약 3년 만에 해제했다.

배스시장은 4일 시의회에 제출한 서 한을 통해 "노숙자 문제 대응을 위한 여러 체계적인 도구들이 자리를 잡아, 비상사태 선언 없이도 긴급 대응을 지 속할 수 있게 됐다"며 해제 이유를 밝 혔다. 그는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시 가 노숙자 관련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

행할 수 있었다"며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통해 노숙자에게 임시 주 거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소득층 및 노숙자용 주택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한 '행정명령 1호(ED1)'도시행 가능하 게 됐다"고 덧붙였다.

배스 시장은 필요시 비상사태를 재 선포할 방침이다. 그는 "비상사태는 해 제하지만, 위기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노숙자 문제 해결을 가속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주저 없이 비상사태를 다 시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준기자



WWW.UMNLOAN.COM

신뢰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15개 주 Lender License를 보유하고 뉴저지와 조지아에 Local Office가 있어 다른 주에 투자 또는 이주시에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의 꿈을 이루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CEO 숀 Gean H Yio NMLS #: 262952 / M.B.A., MS Finance

NMLS #: 2425871 (회사)

UNITED MORTGAGE NATION.uc

대표전화:

Lender Licensed States (VA, MD, DC, NJ, GA, PA, TN, NC, AL, MI, FL, DE, WV, SC, CA)

703-204-0022 | 703-268-3954

VA Fairfax Office 3923 Blenheim Blvd., Unit 62A&B Fairfax, VA 22030

NJ Cherry Hill 1415 Route 70 E. Suite 502 Cherry Hill, NJ 08034 NJ Fort Lee Office 222 Bruce Reynolds Blvd., STE 590 Fort Lee, NJ 07024

GA Duluth Office 3483 Satellite Blvd, STE 208S **Duluth, GA 20096**

종합 △ △



4일 뉴욕 퀸스의 한 펍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시장 선거에 출마한 조란 맘다니 뉴욕주 의원의 승리가 예측되자 지지자들이 환호하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연소 뉴욕시장 맘다니는 누구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부인 미국 뉴욕 시장에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조란 맘다니(34) 뉴욕주 하원의원이 당선됐 다. 맘다니는 뉴욕 최초의 무슬림이자 인도계 아프리카 출신이면서 20세기 이후 최연소 시장이라는 타이틀을 한 꺼번에 거머쥐게 됐다. 우간다서 태어나 7세 때 미국 정착 엘리트 집안, 대학 연학비만 1억 써 임대료 동결 등 포퓰리즘 공약 추진

AP통신은 4일(현지시간) 치러진 뉴욕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맘다니가 당선됐다고 보도했다.

맘다니는 뉴욕의 전형적인 엘리트

이민자 집안 출신이다. 우간다에서 태어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거쳐 7세 때미국에 정착했다. 어머니 미라 나이르는 유명 영화감독으로, '몬순 웨딩'으로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았다. 인도계 우간다인인 아버지는 정치학자이자 컬럼비아대 인류학과 교수다.

엘리트 집안의 외동아들답게 뉴욕

맨해튼의 사립학교와 브롱스과학고를 다녔다. 대학은 명문 사립대인 보든 칼 리지를 졸업했다. 보든 칼리지는 연간 학비만 7만 달러(약 1억원)에 달하는 곳이다.

맘다니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진보 적 색채를 띠기 시작했다. 그는 대학에 서 친(親)팔레스타인 단체를 조직해 활동했다. 졸업 후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상담사 등 여러 직업을 전전했다. 주로 저소득층 이민자 가정들이 퇴거 통지에 대응하고 집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다고 한다. 이는 맘다니의 임대료 동결 및 무료 버스, 무상 보육, 최저임금 인상 등 포퓰리즘성 공약으 로 이어졌다. 맘다니는 무상 시리즈의 재원을 부자증세로 마련하겠다는 입 장이다. 정계에 입문한 건 2015년 뉴욕 시의회 선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면 서다. 이즈음부터 자신을 '민주사회주 의자'로 칭했다.

막다니는 여기에 무슬림 정체성이란 조미료를 듬뿍 끼얹었다. 틱톡 영상으로 할랄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의 어려 움을 꼬집는 등 이민자 출신임을 적극 적으로 내세웠다. 뉴욕은 미국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인데, 외신들은 맘다니의 선거 전략이 유효했다고 평가했다.

올 초 부부의 연을 맺은 아내 라마

두와지(28)도 맘다니를 설명하는 데 빼놓을 수 없다. 맘다니는 18만 팔로어를 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인 두와지와 데이팅앱 '힌지'로 처음 만난 사실을 공개해 젊은 세대의 공감을 끌어냈다. 두와지 역시 시리아계 이민자 가정 출신이다.

막다니의 짧은 정치 경력에 대해선 의구심도 나온다. 지난 4년간 퀸스 주 의원으로 활동한 게 전부인데, 뉴욕시 장이 되면 30만 명의 공무원과 1120억 달러(약 161조8600억원) 규모의 예산 을 다뤄야 한다.

지난해 11월 5일 당선된 도널드 트럼 프 미 대통령은 1년 만에 참패를 맞으며 뼈아픈 날이 됐다. 뉴욕시장뿐 아니라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다. 뉴욕시는 직전인 2021년 선거의 투표자 수(110만 표)의 거의두 배에 달하는 200만명 이상이 투표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투표용지에 내 이름이 없어서 졌다"는 글을 올렸다.

다만 압승을 거둔 민주당 내 분위기 도 복잡하다. 맘다니 때문에 내년 중간 선거와 차기 대선 때 '반(反)트럼프 중 도 빅텐트' 전략을 펴려던 계획에 차질 을 빚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장윤서 기자

맘다니에 맘졸인다…부유층·금융사 '뉴욕 엑소더스' 조짐

〈사회주의자 뉴욕시장〉

법인세 인상무상 보육 등 공약 부호들이사전망에 플로리다미소

4일 치러진 미국 뉴욕시장 선거에서 조 란 맘다니가 당선되며 부유층과 기업 들의 '뉴욕 엑소더스(대탈출)'가 가시 화되고 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월가 의 금융 기업들은 충격에 휩싸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부 기업들은 맘다 니의 경쟁자였던 앤드루 쿠오모 등 다 른 후보에 대한 지지를 독려하고, 수백 만 달러를 쏟았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한다. 유명 해지펀드 억만장자 빌 애크 먼은 맘다니를 저지하기 위해 200만 달 러(한화 약 29억 원)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애크먼은 선거 결과가 발표되자 맘다니에 축하 인사를 건네 며 바로 자세를 낮췄다. 격한 반응도 나 왔다. 퀀트 투자자 클리프 애스니스는 엑스(X)에 영화 '혹성탈출' 중 자유의 여신상이 산산이 조각난 장면을 게시 했고, 암호화폐 투자자 앤서니 폼플리 아노는 "사회주의자가 세계 금융 수도 의 시장으로 선출된 건 미친 짓이다"고 했다.

이번 선거의 승리 요인으로는 도널 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꼽힌 다. 고율 관세에 따른 물가상승, 공무 원 대량해고 등으로 먹고 살기가 팍팍 해지면서 민심이 돌아서기 시작했고, 그 틈새를 민주당이 파고들었다고 한 다. 가령 버지니아 주지사에 당선된 애 비게일 스팬버거는 "살만한 버지니아" 를 내걸고 약값 중간마진 규제 등을 내 세웠고, 맘다니는 5세 무상보육과 무 료 시내버스, 임대료 동결 등을 공약 으로 내세웠다. WSJ은 "전국의 민주 당 후보들이 '경제적으로 살만한지 (affordability)'를 핵심 정치 테마로 내 세웠다"고 짚었다.

'트럼프 경제'의 역설적인 수혜자들은 또 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부동산 중개인들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뉴욕의 부자들이 맘다니를 피해 이사을 것으로 기대에 부풀어있다. 플로리다의 부동산 개발회사 BH그룹은 "지난 4개월 동안 뉴욕 주민들과 1억

달러(약 1450억원)가 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 이상 규모다. 아이작 톨레다노 BH그룹 최고경영자(CEO)는 "(뉴욕고소득층은) 맘다니의 정책에 대해우려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안전한 플로리다의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있다"고 CBS에 말했다.

뉴욕포스트는 또 법인세가 없는 텍 사스주가 뉴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금 융 허브로 떠오르고 있다고 조명했다. 앞으로 맘다니의 뉴욕시가 법인세를 인상하고 치안 불안을 야기할 것에 대 비해 텍사스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늘 고 있어서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텍사 스 댈러스에 7만8000㎡ 규모의 캠퍼스 를 짓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이 캠퍼스를 2028년 개장해 직원 5000명 이상을 보낸다는 계획이다. JP모건체이스는 이미 텍사스에 3만명이 넘는 직원을 두고 있다. 이는 뉴욕의 2만 4000명보다 많은 수치다.

댈러스에 금융 기업들이 모여들며 '열스트리트(Y'all street)'라는 신조어 도 만들어졌다. 텍사스 사투리 인사말 인 '하우디 열?'에서 따온 말로 월스트 리트의 경쟁자로 댈러스가 급부상하 고 있다는 얘기다. 텍사스는 기업들에 세금 혜택과 각종 지원책을 제시하며 노를 젓는 중이다. 뉴욕포스트는 "댈 러스는 금융 부문에서 38만4000개 이 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뉴욕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금융 중심지로 자리매김 했다"고 전했다.

장윤서 기자











미 전역 무비자 & 무보험 환자 환영 전화 치료와 처방 (\$110+)

Phone / Text / Photo / Kakao Talk

3301-338-8119





Mega Realty & Investment, Inc.

4600 John Marr Dr, #201, Annandale, VA 22003

미국이든 중국이든 ··· Z세대 "스벅 안 마셔요"

흔들리는 커피제국 스타벅스 색감 좋고 단 음료 찾는 Z세대 '더치브로스' 에 점유율 1위 뺏겨 중국선 값싼 현지브랜드에 밀려 스벅, 중국사업 지분 60% 팔아

이탈리아의 커피 문화를 미국식으로 재해석하며 세계적 커피 브랜드로 성 장했던 스타벅스가 핵심시장인 미·중 시장에서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 "스타 벅스가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니다"라며 스타벅스의 침체를 조명했다. 스타벅 스는 국내에서 최근 7분기 연속 하락 세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에선 이미 또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 '더치브로스'에 점유율 1위를 내줬다는 시장 보고서도 있다. WSJ은 "스타벅스가 거대화하며 품질과 경험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 다"며 "거기다가 젊은 세대는 커피를



셀카 세대인 Z세대를 겨냥한 마케팅으로 효과를 본 더치브로스.

[인스타그램 캡처]

마신다기보다 사진을 찍는다"고 짚었

미국에서는 스타벅스의 전통적인 '핫 아메리카노 문화'를 대체하는 달 콤하고 시각적인 음료 트렌드가 폭발 적으로 확산 중이다. 스타벅스를 제 친 더치브로스도 '셀카 세대'인 Z세대

(1997~2012년생)를 겨냥한 효과를 봤 다. 이 브랜드는 1990년대 오리건에서 우유 배달을 하던 형제가 푸드트럭에 서 시작해 밝은 색감의 아이스 음료와 '브로이스타(broista)'라 불리는 친근 한 직원 문화로 인기를 끌고 있다. 더 치브로스의 주문 중 94%가 아이스 음

료이며, 그 중 3분의 1은 에너지 음료 기반이라고 한다. 단백질 파우더를 곁 들인 아이스 커피부터 초콜릿 마카다 미아 시럽과 하프앤하프 우유를 곁들 인 애니힐레이터 에너지음료 등 특색 있는 메뉴가 인기다. 더치브로스는 여 기다 서부와 남부를 중심으로 약 1000 개의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운영하며 전국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기세를 몰아가는 중이다.

'블랭크스트리트(Blank Street)'는 '말차 감성'을 앞세워 젊은 층을 사로 잡았다. 이 브랜드는 딸기 쇼트케이크 , 블루베리, 화이트초콜릿 맛 등 달콤 한 색감의 말차 음료를 앞세워 틱톡에 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전체 매출 의 절반이 Z세대 고객에게서 나온다고 한다. 블랭크 스트리트의 공동창업자 는 "말차는 음료 조합에 최적화된 재 료"라며 "아직 개발할 맛이 무궁무진 하다"고기대했다.

중국에서도 스타벅스의 상황은 다

르지 않다. 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 면 스타벅스는 최근 중국 사업 지분 60%를 홍콩계 사모펀드 보위캐피털에 40억 달러에 매각하기로 했다. 스타벅 스는 40% 지분만 유지한 채 브랜드와 지식재산권(IP)을 라이선스 형태로 제 공할 예정이다. 이는 글로벌 소비재 기 업이 중국 사업 지배권을 넘긴 거래 중 순위권에 꼽힌다.

중국 사업 매각 배경에도 급격한 점 유율 하락이 있다. 시장조사업체 유로 모니터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중국 커 피시장 점유율은 2019년 34%에서 지 난해 14%로 급락했다. 같은 기간 중국 의 토종브랜드 '러킨 커피'는 매장을 1 만3000곳 이상으로 늘리며 스타벅스 를 제쳤다. WSJ는 "중국의 젊은 소비 자들이 값싼 로컬 브랜드를 선호한다" 며 "러킨은스타벅스의 3분의 1가격으 로 쿠폰을 뿌리며 소비 습관을 바꿔놨 다"고 분석했다.

한지혜 기자

베네수엘라, 암호화폐로 170억불 돈세탁 정황

국제 제재 회피해 외화벌이 최근엔 달러 기반 코인 활용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부가 암호화폐를 이용한 수백억 달러대의 돈세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경 제 제재를 피해 나갔다는 내용의 보고 서가 나왔다.

국제투명성기구 베네수엘라 지부는 "베네수엘라 정부는 2017년부터 최근 까지 암호화폐 생태계를 부패, 정치적 통제, 국제 제재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 려는 의도를 추진해 왔다"고 4일 밝혔

지부는 베네수엘라는 2018년 세계 에서 처음으로 정부에서 주도해 발행 한 가상화폐인 '페트로'(Petro)를 국영 석유회사(PDVSA)의 석유 판매 및 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통 위장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덧붙혔

마두로 정부에서는 원유를 담보로 판매한 페트로를 '디지털 주권'의 상 징으로 띄우며 '암호화폐자산감독청 (Sunacrip)' 같은 별도의 부처까지 둘 정도로 의욕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

국제투명성기구 베네수엘라 지부는 페트로에 대해 "경제 현대화를 위한

주권형 암호화폐로 소개됐지만, 페트 로는 결코 탈중앙화되거나 투명한 암 호화폐가 아니었다"면서 "행정부가 통 제하는 토큰으로, 불투명한 거래와 공 금 빼돌리기 등에 악용됐다"고 설명했 다.

'페트로 붕괴' 이후 2024년께부터 베 네수엘라 정부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유에스디코인(USDC) 및 테더 (USDT)로 눈을 돌렸다고 지부 측은

국제투명성기구 베네수엘라 지부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암호화폐를 이용 한 돈세탁 규모를 169억5000만 달러로 추산했다.

서방의 경제 봉쇄를 우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석유 대금을 암호화폐로 징 수했는데, 이 대금이 돈세탁 과정을 거 쳐 증발했다는 뜻이다.

중국 '기러기 아빠' 공무원 정리

이강 전 인민은행장 등 포함 9명 부패 위험·국가안보 피해 예방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고위 간 부 9명이 무더기 해임됐다. 해임자 중 엔 정협 경제위원회 부주임을 맡고 있 던 이강 전 중국인민은행장도 포함됐

홍콩 성도일보 등에 따르면 정협은 지난 1일 폐막한 제14기 전국위원회 상 무위원회 제14차 회의를 통해 이 전 행 장을 비롯해 9명의 전문위원회 부주임 을 일괄 해임했다. 공식적인 사유는 밝 혀지지 않았지만, 성도일보는 내부 당 국자를 인용해 "당국이 '뤄관'(기러기 공무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단행된 조치"라고했다.

중국 공산당은 2014년부터 당 중앙

위원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정협·정 부 부처·중앙기율검사위원회·국유기 업 간부 등의 가족이 해외에 거주할 경 우주요 직책에서 배제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뤄관이 해외 이주·거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패를 저지를 가능성 이 크고, 부정축적 재산을 해외로 빼 돌리거나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 다고보고 있다.

이 전 행장 외에 해임된 인물은 장쥔 쿼전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부주임, 장 타오린 전 농업농촌부 부부장, 장제 전 상하이교통대 총장, 차오웨이싱 전자 연자원부 부부장, 천궈칭 전 최고인민 검찰원 부검찰장, 왕룽 전 광둥성 정협 주석, 천위안펑 전 국무원 대만사무판 공실 부주임, 수이쥔 전 중국화교연합 회 부주임이다.

전민구 기자

6년 만에 가장 큰 수퍼문 떴다

1년에 단 3~4회만 관측

5일 밤 10시에 '수퍼문(Super Moon)' 이 뜬다. 수퍼문 현상은 달이 지구에 가 장 가까운 지점인 근지점을 통과하며 다. 보름을 맞는 순간 일어난다.

이날 보름달은 지구와 약 35만 7000km 거리에서 관측될 예정이다. 지 구와 달 간 평균 거리(38만4000km)보 다 약 2만7000km가량 가까워진 거리

서울 기준 월출은 오후 4시58분이었

가정법 (Family Law)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고, 날이 가상 둥근 시점인 '방(望)'은 밤 10시19분으로 예측된다.

월몰은 다음날 오전 6시24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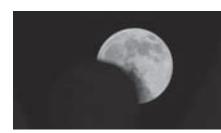
한국천문연구원 기준 올해 가장 작 은 보름달(마이크로문)은 4월 13일에 관측됐다. 수퍼문과 마이크로문의 크 기 차이는 약 14% 수준이며, 수퍼문이 마이크로문보다약30% 더 밝다.

달이 근지점에 도달하는 시점과 보

듬이 겹질 때반 수퍼분이 관즉되기 때 문에 한 해에 3~4회만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달이 막 떠오르는 해질 녘 동남쪽 하늘을 보면 수퍼문을 가장 극적으로 관측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지 평선 부근에서는 '달 착시' 현상으로 달이 실제보다 훨씬 커 보이기 때문이

신혜연 기자



5일 경북 포항시 송도해수욕장 평화의여신상 위 로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다. 이날 보름달은 2019 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크게 뜬 '슈퍼문'이다.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고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항소 (Appeal)

• 헌법/인권 침해 변호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5457 Twin Knolls Rd., Ste. 300, Columbia, MD 21045 mkim@prosperlawpllc.com

2025년 추수감사절 독거노인 전달 행사 후원 요청



미국을 대표하는 명절 중 하나인 추수감사절은 오곡의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가족과 이웃을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실천하는 날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했던 마음과 현재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아픔, 그리고 홀로 사시는 분들을 배려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랑의 쌀 전달 행사를 실시하니, 동포 분들의 많은 후원을 바랍니다.



● 일시: 2025년 11월 27일 (목) 추수감사절 정오 12시

장소: H MART (버크점) 9550 Burke Rd, Burke, VA 22015

문의: 202-258-6384

후원금 보내실 곳

▶ Pay to the Order of : K.S.C.A.

▶주소: 1609 Great Falls St, Suite 243, McLean, VA 22101

버지니아 한인회 (V.S.O.K) & 워싱턴 통합 노인연합회 회장 우 태 창



NOV. 6TH - NOV. 13TH, 2025





MADE IN KORFA

Microwave Safe Food Container Set 글라스락 햇밥용기+계란찜기



ROUND - RICE CONTAINER (300 mL X 6 EA) + EGG STEAMER (500 mL X 1 EA) SET/LIMIT 2

REG. \$34.99

\$19.99



SQUARE - RICE CONTAINER (440 mL X 6 EA) + EGG STEAMER (500 mL X 1 EA) SET/LIMIT 2

REG. \$37.99

\$21.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WART

VIRGINIA

FAIRFAX ANNANDALE CENTREVILLE FALLS CHURCH MANASSAS BURKE HERNDON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CATONSVILLE GAITHERSBURG WHEATON FREDERICK ELLICOTT CITY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3301 NORTH RIDGE RD., ELLICOTT CITY, MD 21043

법무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 계 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 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 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

법무부는 5일 "서울중앙지법의 체포 동의 요구에 따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한 체 포동의요구서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

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을 청구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 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며 다른 의원들의 본회의 참여 를 방해한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특검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 거 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현직 국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장동혁 대표의 발언

의원은 체포나 구금을 위해 국회의 동 의를 받아야 한다. 체포동의요구서를 접수한 국회의장은 이를 처음 개의하 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보고 시점으로 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길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표결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 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

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

추 의원은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 의 사를 밝힌 상태지만, 법 절차에 따라 국회 표결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권성동 국민 의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 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9월 11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배재성 기자

박지원 "여건 되면 평양 조문" 특사 자청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중 용된 북한 외교 원로 고(故) 김영남 전 최고인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대구 경 북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주장이 제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전 상임위원장과의 인연을 소개하며 "그분이 경북고등학교 출신 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 출 신이다. 키가 훤칠하고 김종배씨처럼 미남이다"라고했다.

김 전 상임위원장은 암성중독에 의 한 다장기부전으로 지난 3일 세상을 떠났다. 박 의원은 전날 김 전 상임위원 장의 사망에 조의를 표하며 "여건이 허 락한다면 제가 조문 사절로 평양을 방 문하겠다"고 대북 특사를 자청했다.

박 의원은 "그분은 저와 특별한 인연 이 있다. 열차례 정도만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2000년 6·15 남북정 상회담 개최 합의 당시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북한 특사와 남한 특사 박지원 송호경 간에 4·8합의서가 있 다"며 "여기 '남북정상이 상봉하고 회 담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남한 측에서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 과 상봉은 하고 회담은 김영남 상임위 원장하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굉 장히 말이 많았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DJ 대통령께서 저한테 많이 화도 내시고 했지만 결국 김정일 위원장과 상봉하고 회담했지만 또 별도 상임위원장과 회담도 했다"며 "그리고 그분이 외교관 출신으로 김정 일도 김정은도 그분에게만은 '상임위 원장님'하고 깍듯하게 모시더라"고 전 했다. 또 "그런데 아주 유연하시다"며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 판문점 회담 때 만찬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김 정일 위원장이 저에게 인민예술가라고 칭호를 불렀는데 왜 증명을 안 주냐'고

이야기하니까 김 전 상임위원장이 스 스럼없이 김 위원장에게 박지원 장관 선생과 위대한 장군님의 관계를 설명 하더라"고했다.

그는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제가 잘 압니다. 상임위원장님 정령을 개정 해서 인민예술가 칭호를 수여하십시 오'이렇게 얘기를 했다"며 "그런 게 문 제가 아니라 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에게도 얘기했고, 국정감사하면서 이 종석 국정원장한테 물었다. 이 국정원 장도 '정부보다는 그러한 인연이 있는 박 의원께서 가는 것이 최적임자인데' 라며 아쉬움을 표시하더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남북 간 핫라인이 존재하 지만 불통의 상태라며 "국정원에서 매 일 아침 10시, 저녁 5시에 전화를 해 확 인을 한다"며 "신호는 가도 거기서 받 지를 않아 소위 연락의 길이 없다. 그것 이 오늘의 남북관계"라고 했다.

정혜정 기자

'서해피격' 서훈 징역 4년·박지원 2년 구형

서훈 "정무적 동기 기획수사" 박지원 "檢 '월북몰이' 억지"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 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 들의 1심 변론이 5일 마무리됐다. 재판 부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선고를 진 행할 예정이다. 2022년 12월 기소 후 3 녕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서훈 전 청와대 국가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 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 다.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3년, 박 전 원장 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 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과 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하고 공용전자기록을 삭제한 뒤 피격 후 소 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며 "국민을 속이고 유가족도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 전 실장에 대해 "국가 위기 상황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함에도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 았다"며 "피격·소각 사실을 알고도 이 를 은폐할 것을 기획·주도한 자로, 이 사건 최종 책임자로서의 죄책이 무겁 다"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으로 서 북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 의 수장임에도 안보실장의 은폐 계획 에 적극 동참했다"고 지적했다.

서 전 장관에 대해선 "군 지휘 감독의 책임자로, 합참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구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

검찰은 이밖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 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 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직접 출석했다.

이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국민 발 표에서 북한과 연락할 채널이 없어 구 조와 송환 요구를 하지 못했다고 했지 만, 대통령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무 책임하고 무능한 대국민 사기 발언 아 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엄청난 조작과 살인이" 이뤄지 는 동안 국가와 안보라인과 수사라인 이 국민을 지키지 않았고, 북한이 저지 른살인 과정을 지켜봤단 건 공직자로 서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며 울분 을 토했다.

이어진 최후변론에서 각 피고인의 변 호인들은 이 사건이 윤석열 정권에서 기획한 '월북몰이' 수사라며 무죄임을 강조했다.

서 전실장 측은 "이 사건 수사는 결국 정무적인 동기로 기획됐고,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진 수사란 게 매우 명백하 다"며 "범죄사실이 구성될 수 없고, 입 증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무죄를 선고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주홍 이도흔 기자









\$589,000

방3, 화2.5, 차고1, Hmart 인근, 29/Braddock/28/66

\$670,000

최고 학군, RT267/7, 덜러스 공항 \$399,000

> 방2, 화2, 1,050sqft, RT 495/66/267/7, Metro, Tysons Galleria 옆

4. 사우스라이딩 타운 \$645,000



2014년, 방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5. 게인스빌 골프 싱글

SOLD \$1,060,000

게인스빌 레이크 매나사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

6. 빌더 새집 구매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1. Bristow 55+ single \$750,000 방4, 화3.5 차고 2

2. Haymarket 55+ Villa \$670,000 방3, 화3.5 차고 2

\$649,000



1997년, 방4, 화3.5 차고1, 뒷숲, 최고 학군, 전부 리모델링 포토멕 몰/RT95, RT1, Rt234, 디씨출근 편리

8. 도미니언 밸리 컨트리 클럽, 헤이 마켓 싱글 \$1,699,000



1에이커 숲속, 6,700sqft, 방5, 화 5.5, 차고3 선룸,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욕실, 드레스룸 인로우 스위트, 미디어룸, 게임룸, 바 포함,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야외 리조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야외 주방, 벽난로, 연못, 분수, 데크, 음향 시스템 등) 골프장, 클럽하우스, 수영장, 테니스, 산책로, 최고 학군

황계실 571-239-6054

고객만족 17년!

매매 / 리스 전문 주택·건물·오피스·창고·상가

부동산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 B





受養者外的質別

11-0 = उ र्षुणा के मार्थ के स्वार्थ के स्वा



410-370-4229 · 301-275-1494

EMET.Inc NMLS #201332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HDIE 주차장 건너편 **703.543.2322 • 855.870.1235**

에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뜨레쥬르 제과점 옆 410.480.0100 * 800.564.4429

TOPTRAV

인터넷보다 저렴한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배, 도배 직판점

S KOREAN AIR **▲ DELTA**





탄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혼인증명서 시민권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32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유심칩 판매 한국 방문시 로밍 걱정 끝! 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채용 미동부 투어가이드 공고 사무직원(센터빌지점)

할인 해드립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info@toptravelusa.com ■ 문의:703 543 2322

2025-26 Yearly Schedule

\$1190+항공

11/21~12/02 이집트 두바이 11박 12일 \$3899+항공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11/23~11/27** 4박 5일

12/22~12/30 튀르키예 일주 8박 9일 \$1899+항공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12/23~12/28

5박 6일 \$2490+항공 12/23~12/30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7박 8일 \$2490+항공

2026

01/21~02/02 신비의 인도 12박 13일 \$3790+항공 페루&우유니사막&파타고니아 01/27~02/11 16박 17일 \$9990+항공 02/01~02/11 호주&뉴질랜드 10박 11일 \$3190+항공

02/02~02/06 코스타리카 4박 5일 \$1990(항공포함) 02/07~02/15 바하마 크루즈(뉴저지 출발) \$1599(인사이드),\$1899(가려진 발코니) 8박 9일 02/19~03/06 아프리카&두바이

15박 16일 \$12500+항공 02/23~03/05 프랑스 일주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4290+항공(동반자 \$2150+항공) 10박 11일

02/25~03/03 페루일주 6박 7일 \$3090+항공 02/26~03/07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 9박 10일 \$3590+항공

03/16~03/28 남미 일주(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12박 13일 \$5690+항공 03/16~03/23 브라질&아르헨티나

\$3290+항공 7박 8일 03/22~03/28 페루일주 6박 7일 \$3090+항공

프랑스 일주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03/16~03/26 \$4290+항공(동반자 \$2150+항공) 10박 11일 04/14~04/24 고품격 고국일주 1차 \$2990+항공 10박 11일

정통 서유럽 04/22~05/02 \$3590+항공 10박 11일 동유럽&크로아티아&돌로미티 04/29~05/12 13박 14일 \$4590+항공

04/29~05/06 정통 동유럽 7박8일 \$2990+항공 05/05~05/12 크로아티아&돌로미티 7박8일 \$2990+항공

05/05~05/15 그리스&튀르키예 \$3190+항공 10박 11일 05/11~05/21 고품격 고국일주 2차

10박 11일 \$2990+항공 05/12~05/22 스페인&포르투갈 10박 11일 \$3590+항공

05/19~05/29 서유럽 3개국 10박 11일 \$3590+항공 메모리얼 특선 옐로스톤 05/22~05/25

3박 4일 \$1290+항공 스위스 알프스 일주 06/09~06/17 \$4590+항공 8박 9일 06/10~06/20 정통 서유럽

\$3590+항공 10박 11일 06/16~06/26 고품격 고국일주 3차(영&한) 10박 11일 \$2990+항공

06/17~06/28 영국일주 \$5890+항공 11박 12일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06/20~07/03 13박 14일 \$5990+항공 북유럽 4개국 06/23~07/03

\$4990+항공 10박 11일 06/30~07/05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1690+항공

07/01~07/04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07/07~07/17 여름방학 특선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07/14~07/22 아이슬란드 일주 8박 9일 \$6890+항공 08/01~08/14 북유럽 4개국+발틱 3국 13박 14일 \$5990+항공 08/04~08/14 북유럽 4개국

10박 11일 \$4990+항공 08/07~08/12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1690+항공 알래스카 일주

08/13~08/19 6박 7일 \$2990(항공포함) 08/21~08/28 알래스카 크루즈 7박8일

출발



소규모 맞춤여행

탑여행사는 소규모의 단체여행을 모국, 유럽 등전세계를 요구하시는대로 맞춤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특히 친한 그룹끼리 골프 또는 여행을,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들만의 3세대 투어를 전문적 으로 맞춤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32년 전통 탑여행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고국투어! 고국 방문의 명가 탑여행사가 모십니다.

10박11일(제주포함) | \$2990+항공 8박 9일(내륙관광) | \$

1차 4월 14일~4월 24일 2차 5월 11일~5월 21일 3차 6월 16일~6월 26일(영&한) 4차 9월 15일~9월 25일 5차 10월 13일~10월 23일 6차 10월 20일~10월 30일 까 10월 27일~11월 06일

인천/부여/군산/전주/담양/순천/여수/광양/하동/진주 **_여행지** 거제/부산/울산/경주/정동진/강릉/속초/김포/제주

- 특전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서울관광포함(경복궁,인사동)

•모든 옵션 포함 여수해상케이블카/외도+해금강유람선 정동진 레일바이크+서귀포유람선

•최고급호텔숙박, 바닷가호텔 오션뷰확정 콘래드서울/전주한옥마을라한호텔/여수소노캄/거제소노캄 부산 그랜드조선/경주 라한셀렉트/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

• 엄선된 호텔과 현지 식당 특식

국여행에 일본여행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연합

동경 3박4일

오나카 3박4일

\$1149+항공

동경。오시카 5박6일 \$1899+항공

* 2인 이상 출발보장



\$1149+ੇੇਂਤ

★ 특급호텔의 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mark>호텔에</mark> 일찍 도착하는 일정으로 운영됩니다.



콘래드서울















롯데리조트 속초 일반뷰와 \$180차이





「매주 2인이상 출발보장」

┗ 서울 사무소 직영 운영 ┗

LH특 6박7일

한글 Tour \$1499+항공 영어 Tour \$1699+항공

서남권 3박4일 한글 Tour \$829+항공

영어 Tour \$929+항공

동해안 4박5일

한글 Tour \$989+항공 영어 Tour \$1119+항공



영어 Tour \$749+항공

제주·동해 6박79**8** 한글 Tour \$1549+항공

영어 Tour \$1879+항공

전국일주 9박10일 **한글** Tour \$2199+항공

영어 Tour \$2599+항공

등남아 3박5일 | \$490등 하노이/하롱베이 🗟 3박 5일 | \$690+항공

망콕/파타야

다낭 3박5일 | \$450+항공

3박 4일 | \$690+항공 싱가폴

🗟 나트랑/달랏 🗟

대만

3박 5일 | \$450+항공

3박 5일 | \$850+항공

갖축형 의료 서비스

TMC 고국건강검진 서울대병원(기본검진)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여 \$520

서울삼성병원(Primary 남 \$1340/여 \$1660

세브란스(미국국적) 남 \$720/여 \$770

남/여 \$940

현대이산병원 경희대병원 가천대길병원

2025

† — +아미쉬마켓 2025년 마지막 공연 몽일 / 12/4, 18

\$199

빛으로 물든 부쉬가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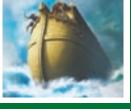
달일 / 12/11, 18

\$159

≺–Mas

마법 축제

- 석식 포함



大ト& 12/5, 19 \$189

라디오시티

<u> 스트라스버그</u>



· 타임스스퀘어 호텔, 엣지 전망대 – 락펠러 점등 트리 - 코리아타운 석식 업그레이드 1일일 /12/8,15,29 \$499

2026년

ОП

있는 36피트 등대

당일 1/1 \$99

Concord Point Light

굿바이





알래스카

옐로人톤

마운트

3박 4일 \$950+항공 매주**윌,금출발**

6박 7일 \$1640+항공

\$2190+항공(인사이드)

나이아가라/토론토/몬트리올 퀘백/플래츠버그/뉴욕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5박6일 \$1350

.욕&천섬

3박 4일 \$899



1박 2일 \$399

뉴욕&나이아가건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스카이론타워 스페셜 특식(옵션) 2박 3일 \$650

탑여행사 당일관광 워싱턴디씨 \$100 루레이동굴 \$125

루레이 티켓만 판매 \$25



712/17 \$199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요세미티 샌프란川人코 5박 6일 \$990+항공 매주 🔷 출발

4박5일 \$1190+항공

캐此다 록키

러시모어 3박 4일 \$1090+항공 코스타리카ese 5박6일 \$1300+항공/매주 월출발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한·미 관세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니다" 결론

"MOU는 법적 구속력 없어 불필요" 여권"관세 인하 늦어지면 기업 피해" 정부, 이달 내 대미투자 특별법 발의 야당"국민부담 주고 비준 거부, 오만"이라는 고려도 있다고 한다. 여권 핵

대통령실은 5일 한 미 관세 합의 양해 각서(MOU)의 국회 비준 동의는 필요 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대통령실 핵 심 관계자는 이날 "관세 합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 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헌법 60조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 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 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 고있다.

대통령실은 MOU는 조약이 아니므

로 국회 비준 동의도 필요 없다고 판 단한 것이다.

대통령실 판단의 배경엔 법적 검토 외에도 지금은 신속함이 중요한 시점 심 관계자는 "MOU를 국회 비준 동 의를 받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 다"며 "그럼 관세 인하도 늦어져 기업 들 피해가 커진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 친 뒤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을 바꾸기라도 한다면 유연한 대응 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통상조약법 13조에 따르면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의 보완 대책, 재원 조달 방안 등 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준비 시간이 필 요한 것이다. 여기에 비준 동의를 두고 정쟁이 불거질 경우 동의안 처리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2007년 국회에 제출된 한·미 자유무 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은 여야 갈 등속에 국회에 제출된 지 4년2개월 만 에 국회를 통과했다. 비준 동의안의 의 결 정족수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인 만큼 과반 의석을 차 지한 더불어민주당(166석) 단독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강행 처리의 후폭풍이 클수 있어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대통령실의 최종 결론에 따라 정부 는 국회 비준 동의 절차는 진행하지 않 고, 3500억 달러(약 506조원) 대미 투자 펀드 관련 특별법 제정만 추진할 계획 이다. 특별법엔 대미 투자 펀드 설치 근 거, 운용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 정이다. 정부는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 해 의원 입법 형식으로 발의를 추진한

한 미 양국은 한국이 특별법안을 국 회에 제출한 달의 첫날로 소급해 미국 이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 하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달 내에 특별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5 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마련 중 인 대미투자특별법을 11월 중에 최우 선으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으로선 야당 반발이 정치 적 부담이다. 국민의힘은 "3500억 달러 는 내년 정부 예산의 70%에 육박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대의기관인 국회가 꼼꼼하게 짚어봐야 한다"(조용술 대변

인)며 합의문 공개와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국민 1인당 1000만원에 가까운 부담을 지는 관세 협상을 해놓고 국회에 비준 동의를 받 지 않겠다는 것은 어떤 오만함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양국 간 양해각 서 또는 협정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통상조약 체결 절차 및 국회의 비준 동 의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을 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준 대상 여부 와 관계없이 관세 협상 결과는 국회에 충분한 보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 다. 대통령실은 야당도 국익 관점에서 한 미 합의 내용에 동의할 것이라고 보 윤성민·하준호 기자

트럼프 책상 오른 팩트시트 … 안규백 "핵잠, 미 부처간 조율중"

새로 합의된 핵잠 막판변수 떠올라 미 비확산 · 기술부처 반대 가능성도 "용산·백악관 직접 채널 가동 중"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 등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 트'(공동 설명 자료)의 상세 문안을 놓 고 한 미가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한·미가 '4일 정오발표'로잠 정 합의했던 팩트시트 서명이 늦어지 는 건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 관 련 문안 조율 때문으로 보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

구윤철"경제는 마무리, 안보만 남아" 회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한· 미 안보협의회의(SCM)의 공동성명 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양국 정상 간 조인트 팩트시트가 협의 중이어서 그 이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 어제 오전에 끝날 것으로 알고 저희도 준비했는데, 원자력잠수 함과 또 여러 가지 협정 이런 문제들이 미국 자체 내에서, 여러 부처 내에 조율 이 필요해서 시간이 지체된 것 같다"고 부연했다.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도 같은 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어 제 한·미 국방부 장관이 협의한 것처럼 안보 분야 팩트시트가 있다. 경제 분야

시트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됐고, 안보분 야만 마무리되면 팩트시트에 사인하게 될것"이라고밝혔다.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안 보분야 팩트시트는 이미 지난 8월 첫 한 미 정상회담 직후 완성됐고, 관세 협상 타결 뒤 함께 발표하기 위해 공개 가 보류된 상태였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안보 분야를 조율하고 있다는 건 새로 합의된 핵잠 문제에서 제동이 걸렸다 는의미일수있다.

미부처간 온도차도감지된다. 안장 관은 미 의회에 대한 우려에 "그건 트 럼프 대통령이 리더십을 갖고 하는 것 이라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도 국 무부, 상무부, 에너지부를 설득하겠다 고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미 정부 내에서 핵 비확산 을 담당하고, 상무부는 원자로 등 민감 기술 이전과 통제를 총괄한다. 이들을 '설득'하겠다는 건 곧 관련 부처가 한국 의 핵잠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 했다는 뜻일 수 있다. 헤그세스 장관도 전날 SCM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 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잠 승인) 공 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무부, 에너지부 와 신중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 라고 말해 전쟁부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는 사안이란 점을 내비쳤다.

관련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하 우스 투 하우스'(대통령실 대 백악관) 직접 채널이 가동 중"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문안이 트럼프 대통령 의 책상에 올라간 상태"라고 언급했다.

결과적으로 헤그세스 장관은 SCM 공동성명을 도출하지 못한 채 4일 한 국을 떠났다. 이런 가운데 미 해군의 니 미츠급(10만t급) 핵추진 항공모함 조 지워싱턴함(CVN-73)은 예정대로 5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이는 SCM 직후 동맹의 공고함을 과시하는 이벤 트 성격도 있었지만,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며 의미가 퇴색했다는 말도 나온다. 이유정·심석용 기자

與 "정치 양극화로 민주당 비호감도 높았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6·3 대선 승리에 대해 "불법적 계엄을 '빛의 혁명'으로 무산시키고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 에 따라 내란을 종식한 역사적 사건"이 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개한 제21대 대선 백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에서 "대선 승리로 국민은 일상을 회복했고 대한민국은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했 다"며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처음부터 압도적이었다"면서 도 대선 막판 보수층의 결집으로 인한 득표율 격차 감소는 극복해야 할 숙제

민주당은 "진보(이재명 및 권영국 후 보)와 보수(김문수 및 이준석 후보)로 득표율 차이를 보면 31만8천501표밖에 차이 나지 않아, 역대 선거 중 가장 작 은 격차를 보여줬다"며 "예상 밖의 높 은 보수 득표율은 정치 양극화를 반영 하고 아직 민주당의 안정적 승리 기반 이 구축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진 단했다. 그러면서 "보수 지지층 결집은 국민의힘의 일관된 이재명 네거티브 전략의 효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으로는 정치 양극화로 인해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대단히 높았음을 의

미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 책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하고 국 민적 신뢰를 확대해야 한다"고 짚었다.

민주당은 대선 백서에 선거 결과 분 석에 더해 선거 순비 과성무터 숭앙선 거대책위원회의 각 본부·위원회·단 등 조직별 활동도 담았다.

이 대통령은 백서 인사말을 통해 "이 백서는 단지 대선 승리의 기록이 아니 다"라며 "어둠이 드리운 담벼락 밑에 서 기어코 빚을 찾아 고개를 들었던 장 엄한희망의 기록"이라고 소개했다.

정청래 당 대표는 발간사에서 "지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백서 발간 시연회에서 백서를 들고 지난 대선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웠던 일, 반성해야 할 일을 빠짐없이 남 겼다"며 "백서에 담긴 국민의 소중한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좋은 일, 안타까 여망을 되새기고 새로운 정치의 지침 으로 삼을 작정"이라고 했다.

안정훈 기자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 Retired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굽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림.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571-564-3282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www.hyebanmd.com

KOREAN BBQ

HYEBAN

한국식BBQ구이전통한식



(월 ~ 일: 11AM ~ 3PM)

*Last Seating: 2PM 까지







시원한 국물, 쫄깃한 면발을 뷔페에서 무제한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정통 한식 구이의 불맛과 신선함이 만나는 곳, 엘리콧시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 "혜반(HYEBAN)"에서 완벽한 점심을 즐기세요!

> 월, 화, 목, 일 수요일

> > 금, 토

오전 11시 ~ 오후 10시 정기 휴무 / CLOSED 오전 11시 ~ 오후 11시







443.420.3096

HyeBan23@gmail.com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7, Ellicott City, MD 21042

구인 홀서버 (Hall Server)

김건희 "샤넬백 두 차례 받았다" 첫 인정

김 "통일교서 건진 통해 전달 청탁 없어, 목걸이도 안 받아" 내달 결심공판 내년초 선고 전망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64)씨 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샤넬백을 받은 사실을 5일 인정했다. 다만 청탁이 이 뤄진 적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청탁 여부를 놓고 법정에서의 다툼을 예고

김 여사는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입 장문을 내고 "전씨로부터 두 차례 가 방을 선물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며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보다 신중히 처 신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깊이 반 성한다"고 밝혔다. 전씨가 "김 여사 측 에 샤넬백 등을 전달했고,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증언하면서 김 여사가 "받은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지난달 14일 자신의 재판에 서 "김 여사에게 통일교 측에서 받은 샤넬 가방 2점과 그라프 목걸이를 전 달했다. 2024년에 이를 김 여사 측으로 부터 돌려받았다"고 인정했다. 24일 김 여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선 전달 과 정에 대한 더 구체적인 증언을 내놨다.

김 여사가 샤넬백 수수를 인정한 데 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두 차 례에 걸쳐 받은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정황이 드러난 점도 영향을 미 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여사 재판에 증 인으로 나왔던 전직 샤넬 직원은 "유 전 행정관이 제품을 교환할 때 영상통 화로 상대방에게 제품을 보여줬다"며 "통화 상대방은 걸걸한 여성 목소리로, (김 여사와) 목소리가 비슷하다고 생 각했다"고말했다

김 여사는 샤넬백을 받은 사실을 인 정하면서도 "해당 선물을 사용한 바

없이 과거 전씨에게 모두 반환했다. 청 탁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구체적인 직무와 무관한 막 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청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한 6000만원대 그라프 목걸 이에 대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 다"고밝혔다.

전씨도 재판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청탁 사안을 김 여사에 게 전달하고 꼭 들어줘야 한다고 요청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전씨 역시 알선수재로 함께 기소된 만큼 혐의를 벗기 위해서 청탁이 없었 다고 주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측금품수수등에대한서울중 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재 판은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재판 부는 이날 "오는 14일까지 예정된 증인 신문을 모두 종결하고, 26일에 피고인 측최종 의견 진술을 들은 뒤 심리를 끝 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늦어도 다 음 달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내년 초엔 선고가 날 전망이다.

정진호 기자

'윤 면회→5·18 참배' 급선회한 장동혁 …중도 겨냥?

"매월 한차례 호남 방문" 약속도 당내 '호남 홀대론' 비판에 공감 지방선거 전 중도층 공략 분석

일시적 유턴인가, 전략적 변침인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해 5.18 민주묘 지를 참배하는 걸 놓고 당 안팎에서 해 석이 분분하다. 지난 9월 두 차례 장외 투쟁에 이어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등 강성 지지층을 향했던 장 대표 의 시선이 돌연 호남으로 향했기 때문 이다.

장 대표는 이달 들어 적극적으로 호 남에 구애하고 있다. 5·18 민주묘지 참 배 계획이 알려진 지난 3일 장 대표는 한술 더 떠 "매월 한 차례씩 호남을 방 문하려고 한다"고 약속했다. 실제 장

대표는 12월 중에 호남 현장 최고위원 회의 개최를 당에 지시했다고 한다. 국 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당 차워에서 호 남을챙기겠다는의지"라고했다.

그간 장 대표의 행보는 호남 민심과 괴리감이 컸다. 호남에 기반을 둔 한 인 사는 "과거부터 계엄의 트라우마가 있 는 호남은 반탄(탄핵 반대) 세력을 등 에 업고 당선된 장 대표를 신뢰하기 어 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달 17일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자 호남 민심이 들끓기도 했다. 한국갤럽 조사 에서 국민의힘 호남 지지율은 9월(5%) 과 10월(8%) 모두 한 자릿수를 면치 못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도 강성 일변도였던 장 대표가 달라졌다고 느끼 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면회등숙제를끝낸이후장대표행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금강 세종보를 찾아 수자원 확보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가 자유롭게 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6 일 광주 방문 또한 장 대표가 직접 결정

했다고 한다.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서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지난 달 25일엔 참사 진실 규명을 여권에 요 구해 국정조사를 관철시켰고, 같은달

[연합뉴스]

30일엔 국회에서 유가족을 만나 "진실 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당 내부의 '호남 홀대론'에도 반응했 다 지난달 10일 전북 익산 출신 조배숙 의원이 국민의힘 전국 시·도당위원장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동진(영남권 공 략) 정책은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우 리 당 서진(호남권 공략) 정책은 이게 뭐냐"고 하자 장 대표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장 대표는 이후 조 의원을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에 임 명했다.

이런 변화는 장 대표의 중도 확장 전 략과도 맞닿아 있다. 장 대표 측 인사는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이 나 수도권 등으로 외연 확장이 필요하 다는 생각이 확고한 것으로 안다"고 했 다. 다만, 그동안 국민의힘이 서진 정책 을 펴다 중단한 일이 반복됐던 만큼 장 대표의 행보가 일회성에 그칠 것이란 회의적 시선도 있다.

김규태 기자

돌잔치 예약전쟁 … 아이 낳기도 전에 "꼼꼼이로 예약할게요"

월별 출생아수 14개월 연속 늘어 저출생 역주행, 돌잔치장 조기 마감 작년보다 예약 76% 폭증한 곳도

"아기 이름은 태명 '꼼꼼이'로 예약할 게요. 아직 안 태어나서…."

지난달 안유경(29)씨와 서태원(35) 씨 부부는 첫 아이 출산 2주를 앞두고 내년 10월 24일로 돌잔치부터 예약했 다. 안씨가 서다은(0)양을 낳은 건 지난 1일. 안씨는 "원하는 돌잔치 홀은 내년 추석까지 예약이 다 차 있어 겨우 예약 했다"며 "너무 이른가 했지만 미리 알 아보길 잘했다"며 안도했다.

지난해 7월 이후 월별 출생아 수가 1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보이면서 아이를 낳기 전부터 부모들 의 '돌잔치 예약 전쟁'이 벌어지고 있 다. 지난달 29일 국가데이터처(통계청) 가 발표한 '2025년 8월 인구 동향'에 따 르면, 지난 8월 출생아 수는 2만867명 으로 1년 전보다 764명(3.8%) 증가했 다. 올해 1~8월 누적 출생아 수는 지난 해 동기 대비 6.8% 늘어난 16만8671명 으로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이같은 저출생 역주행에 전국의 호 텔·식당·스튜디오등 돌잔치 전문 식장 들은 이르면 내년 5월부터 늦게는 9월

까지 예약이 마감됐다고 안내하고 있 다. 지난 8월 첫 아이를 출산한 김현지 (29)씨도 "미리 예약해야 원하는 날짜 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서 돌잔치 10개 월을 앞두고 지난달에 예약을 완료했 다"고말했다.

서울의 한 돌잔치 전문 식장은 "재 작년에는 한 달에 50건이던 예약이 요 즘에는 매달 70건 이상"이라며 "내년 7 월까지 모든 홀 예약이 마감됐다"고 했 다. 올해 서울 더플라자 호텔과 드래곤 시티 돌잔치 예약은 1년 전보다 각각 76%와 21% 증가했다.

이에 출생 전 돌잔치부터 예약하는 부모도 늘고 있다. 서울 동작구 한 식장

관계자는 "보통 토요일 점심시간을 가 장 선호하기 때문에 이때를 잡으려고 '꼬물이', '행복이' 같은 태명으로 예약 하거나 조리원에서 문의하는 손님들도 많다"고 안내했다.

영유아 상품 거래액과 신제품 출시 도 늘고 있다.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 는 패션플랫폼 포스티는 올해 3월~7월 유·아동 상품 누적 거래액이 지난해보 다 1389% 늘었다고 밝혔다.

매일유업은 지난 9월 7년 만에 신생 아 전용 분유 '앱솔루트 산양 100'을 출 시했다. 유한킴벌리는 지난 4월 프리미 엄 기저귀 라인 '하기스 스킨 에센셜' 을 발표했다.

출생아 반등의 배경에는 혼인 증가 가 깔렸다. 올해 8월 혼인 건수는 1만 9449건으로 지난해 대비 1922건(11%) 늘어나며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 갔다. 올해 1월~8월 누적 혼인 건수는 15만7716건으로 1년 전보다 7.7% 늘었 다. 이에 결혼식장 예약도 쉽지 않다.

내년 11월 말 서울에서 결혼 예정인 김모(26)씨는 "지난달부터 예식장을 돌기 시작했는데 자리가 남아있지 않 았다"며 "가고 싶었던 드레스숍은 예 약이 꽉 차서 2주째 문턱도 못 넘고 있 다"고 말했다. 한 결혼준비업체의 웨딩 플래너는 "예식장 투어에 2주 대기는 기본"이라며 "웨딩 사진 수정도 6개월 씩 걸려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 이크업)' 상담은 더 빨리 잡아야 한다" 고 설명했다. 전율·오소영 기자

) 임마누엘 몸헬스

임마누엘 가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
- 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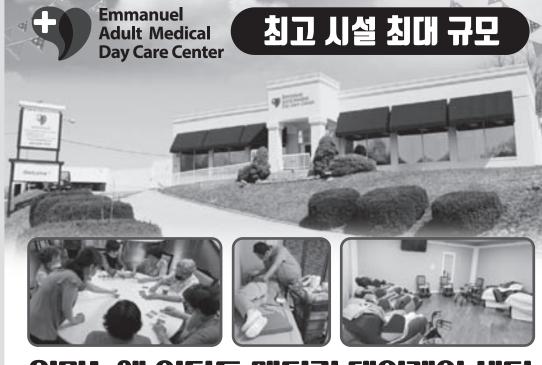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443-288-6677



Main Offic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주2회 방문), 마사지체어실, 탁구대, 당구대, 노래방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 의료동행서비스 (병원 예약및 진료에 동행, 맞춤형 지원)

즐겁고 활력 넘치는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878-6611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올 연말 사랑하는 분들께 **우메켄**을 선물하세요

강석우/나연신 부부

10%할인+무료선물

\$98이상 제품 구입시 **할인+선물**



100억 유산균 **\$39**





리포포-C **\$68**

\$165이상 제품구입시 **할인+선물**



발효 미네랄 L칼슘 \$69





건강 다시 타쿠미 2박스 **\$56**

할인혜택과 함께 **무료 선물**도 받으세요

SALE +선물증정

베타글루칸 세트



\$539 \\$485

리포포세트



\$439 \\$395

효소환 세트



\$439 \\$395

L&B화장품세트



\$399 \\$359

무료증정



타키 2박스(\$56) 무료증정



건강을 담은 특별한 선물!

무엇을 선물할지 고민되시나요? **우메켄 기프트카드**로 건강을 선물하세요! 사랑하는 이들이 원하는 건강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특별한 날, 진심을 담은 선물로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실속있는 연말선물 - **우메켄 기프트 카드**

888 · 941 · 3311 umeken.com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한·미관세협상비준선그은與…김병기 "특별법최우선처리"

월별 출생아수 14개월 연속 늘어 저출생 역주행,돌잔치장 조기 마감 작년보다 예약 76% 폭증한 곳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정부가 마련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을 11월 중에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에 관해 "팩트시트(fact sheet·설명 자료) 가 완성되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신속 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구성된 민주당 'APEC(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특별위원회'의 위 원장을 직접 맡은 김 원내대표는 "당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가 만든 외교적 성과를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하겠 다"고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특별법안을 성안하 는 대로 의원 입법 방식의 발의를 추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하기로 했다. 정부 안에서 국무회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정부 입법 과 달리 의원 입법은 국회 내 심사 절차 만 밟으면 돼서 신속한 법안 처리가 가 능하다. 3500억 달러(약 506조원) 규모 대미 투자 기금 조성의 법적 근거와 운

용방식,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길 특별법안은 한 미양 국 간 양해각서(MOU)와 공동 설명자 료(조인트 팩트시트) 조율 작업이 마 무리된 직후 공개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내용

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헌법상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한 건 외국과 의 조약뿐"이라며 "이번에 양국이 체 결하는 건 MOU일뿐더러, 설사 조약 에 준해서 보더라도 대출과 보증이 상 당 부분 포함된 투자라 국민에게 중대 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의 비준 절차를 거친 뒤에 도널드 트럼 프미국 대통령이 말을 바꾸기라도 한 다면 유연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그러나 국민의힘은 "미국과 합의했 다는 3500억 달러는 내년 정부 예산의 70%에 육박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대 의기관인 국회가 꼼꼼하게 짚어봐야 한다"(조용술 대변인)며 합의문 공개 와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앞 서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달 31일 발간 한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 에서 "관세 협상 결과에 따른 대미 투

자 규모는 향후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 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양국 간 양해각서 또는 협정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통상조약 체 결 절차 및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특별법 처리 과정도 순타치만은 않 을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 정부 장관은 5일 KBS 라디오에서 "법 안은 기재부 (소관) 법안이 될 것 같다" 고 말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현재 위원장이 국민 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이다.

여야가 법안을 합의하지 않아 위 원장이 특별법안을 상정하지 않을 경 우민주당이 쓸수 있는 방법은 신속처 리대상(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 는 것이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안건이 되더라도 최대 심사 기간은 270일에 달

하준호 기자

양대 노총 "정년 65세 연내 처리를" 국회에 공식 요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5일 공동 기자 회견을 열고,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킬 것을 국회 에 공식 요구했다. 연내 입법이 어렵다 는 전망이 커지자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양대 노총은 "민주당이 65세 정년연 장 연내 입법을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지 7개월이지만, 지금까지도 사 회적 논의를 지켜본다는 원론적 입장 을 반복하고 있고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 자들과 만나 "사측과 합의는 어렵고 법 을 입법하는 국회나 정부와 협의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측과의 계속고 용 방식이나 임금 조정 합의보다는, 정 치권을 움직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특별위원회로 격 상하고, 2033년까지 정년을 단계적으 로 65세로 늘리는 법안을 올해 안에 추 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사 간 입 장차는 여전히 평행선이다.

노동계는 '계속고용'이 아닌 임금 삭 감 없는 법적 고용 의무화를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임금과 근로조건을 유 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퇴직 후 재고 용'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 회정책본부장은 "연공급 중심의 임금 체계를 유지한 채 정년을 그대로 연장

한국은행의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6 년부터 지난해까지 60세 정년 연장으 로 고령층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 년층 근로자는 0.4~1.5명 감소한 것으 로 분석됐다. 국회미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정년 60세를 채운 노동 하면 기업의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고 자는 전체의 17.4%다.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혜택 쏠림 우려가 나온다.

세종=김연주 기자

한·미 조선협력 숨은 조력자는 신동식 ···"관세협상 지렛대로 조선업" 김민석에 제안

〈박정희 정부 초대 경제수석〉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 통령은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조 선 협력 프로젝트(MASGA)를 추진하 기 위해 양국 간 조선협력협의체를 신 설하기로 합의했다.

양국간 '조선업 원포인트' 직통 채널 이자 컨트롤타워를 만들기로 한 것이 다. 합의 뒤엔 '조선업의 대부'라 불리 는 신동식(93) 한국해사기술 회장이 건 넨 반복된 제언이 있었다.

박정희 정부 초대 경제수석 출신인 신 회장은 1960년대 불모지였던 한국 조선업의 기틀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

신 회장은 지난 7월 총리 후보자 신 분이던 김민석 국무총리를 처음 만나 "한·미 관세협상에서 지렛대로 삼을 것

이 필요할 텐데 우리가 내세울 것은 조 선업 하나"라며 "미·중 갈등 속에서 미 국에 조선업은 사활을 건 산업"이라고 다. 조언했다. 박정희 정부 때 대통령 직속 해사위원회를 뒀던 것을 거론하며 "우 리도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해사 산업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한 미 관세협상 카드를 두고 고심하 던 김 총리는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 보실장,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등과 한 미 관세협상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조선업을 카드로 써 보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실에도 "신 회장의 의견을 경청해 달라"고 요 청했다. 이후 신 회장의 말

처럼 MASGA는 7월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때 결정적 지렛대로 작용했

대통령실도 신 회장을 주목하기 시 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주 재한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 신회 장을 별도로 초청해 얘기를 들었다. 신 회장은 당시 "인공지능(AI) 로봇을 활 용한 첨단 기술, 고부가가치 선박과 스 마트 조선 개발 등을 위해선 전문 기술 인력 양성과 초격차 개발 등 여러 노력

> 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해사 산업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 > 이 대통령은 회의 직후 김 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 게 "신 회장에게서 더 이

야기를 들어 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김 장관은 10월 신 회장을 따로 만나 설 명을 들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신 회장이 김 총리에게 첫 제안을 하고, 김 총리가 대 통령실에 신 회장 의견을 경청할 필요 성을 제기한 게 MASGA의 땔감이 됐 다"며 "양국 간 기구를 신설하기로 합 의한 배경 중 하나"고 설명했다.

다만 양국은 "한·미 국가안보실 (NSC) 사이에 조선협력협의체를 출범 시키기로 한다"는 큰 틀엔 합의했지만, 설치할 기구에 대한 각론은 만들지 못

정부 관계자는 "조직을 어떤 형태로 출범시킬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고했다.

신 회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신설될 기구의 관건은 인력"이라며 "통상 전문가뿐 아니라 조선업 자체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이들이 반드시 포 함돼야한다"고했다.

이어 "현재는 MASGA에 디테일이 없어 보인다. 한국은 선박 제조에서 세 계 최강이고 또 AI 기술은 미국이 제일 이니 제대로만 결합되면 세계 조선 패 권을 가져올 기회"란 말도 덧붙였다.

윤지원 기자







K방산에 사이버공격 급증…한국군은 안녕한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옛 국방부) 장관이 그제(4 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 회의(SCM)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 과 재래식 전력 증강을 통해 전시작전 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는 방 안을 논의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SCM 후 기자회견에서 "대북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주도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에 전작권을 환수하겠 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한·미는 이 를 위한 평가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과거 주한미군이 없으면 한국군의 전쟁 수행 능력이 불가능하다는 평가 에서 이제는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수 준까지 방향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셈 이다. 이는 한국의 첨단무기 도입과 함 께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산을 활용 한 한국군의 현대화와 전력 강화 덕분 이라 볼 수 있다. 실제 K방산은 이제 세 계 무기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름이 됐 다. K-9 자주포, K2전차, 천궁 미사일 등이 이미 중동과 폴란드 등에 수출돼 명성을 떨치고 있고, 우리 기술로 만든 KF-21전투기도 수출 얘기가 오가고 있다. 한국은 세계 7번째로 초음속 순 항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며 방산 강국 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북한도 재래식 무기 현대화 박차

북한은 지난달 10일 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다탄두 대륙간탄도미 사일(ICBM)로 추정되는 화성-20형을 비롯해 극초음속 단거리 미사일, 무인 공격기 발사대 등 나름 첨단 무기를 선 보였다. 북한은 2년 전 조국해방전쟁승 리기념일(정전협정체결일) 열병식에 선 무인정찰기 샛별4와 무인공격기 샛 별9를 공개했다. 각각 미국의 고고도무 인성잘기 글로벌호크와 MQ-9 부인공 격기(리퍼)와 흡사한 모습이다. 북한이 공개한 샛별4와 샛별9의 실제 성능은 확인할 길이 없지만 세계 최고수준의 무기를 흉내 낸다는 사실을 그냥 넘길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북한이 수시 로 시험 발사하고 있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도 우리 안보에 위협요소다. 핵 무기 못지않게 북한이 재래식 무기 개

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경제난과 자원이 부족한 북한이 핵 개발에 올인 하며 '한방'을 준비해 놓고 재래식 무기 현대화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기초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는 북한이 어떻게 이런 첨단 무 기 기술을 손에 넣었느냐다. 북한은 1970년대 후반 옛 소련제 스커드 미사 일을 이집트에서 들여가 역설계 과정 을 거쳐 미사일 개발에 활용하는 수준 이었다. 아직 첨단 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할만한 기술 축적이 이뤄지지 않 았다는 방증이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 의 기술 지원을 상정해 볼 수 있지만, 어느 나라든 우방국에도 첨단 무기 개 발 기술을 넘기는 데엔 난색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다.

북, 해킹으로 무기 개발?

무기 기술은 하루아침에 도약할 수 없다. 현대 과학의 총체가 무기다. 그렇 다보니 북한이 최근 공개한 무기들이 미국이나 한국의 정부나 업체를 해킹 해 설계도나 기술을 확보한 뒤 자체적 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 에 없다. 샛별4·9의 외형이 미국산과 완 전히 흡사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 다. 실제 국내 방산업체는 북한이나 경 쟁국들의 해킹 목표가 되고 있고, 이미 상당수의 기술이 유출된 정황도 포착 되고 있다. 북한은 2014~2016년 사이 국 내 방산 대기업에서 4만여 건의 자료를 탈취했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에서는 잠수함과 이지스함 설계도, 전 투체계 관련 기밀이 피해를 입은 것으 로 추정된다. 2021년엔 한국원자력연구 원 등에서 원자력 기술 관련 자료까지 공격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의 록히드마틴으로 불리는 한 국항공우주산업(KAI)도 북한이 배 후인 '김수키'에 해킹당해 KF-21 전투 기와 수리온 헬기 기술을 유출당했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강선 영 의원실이 올해 국정감사 때 각 군에 서 집계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은 지난해 1 만4000여 건을 넘어섰다. 올해 8월까지 군이 받은 사이버 공격만 총 1만2368건 에 달한다. 군을 겨냥한 외부의 사이버 공격은 2020년 1만2678건, 2021년 1만 1621건, 2022년 9048건, 2023년 1만3514 건, 2024년 1만4419건으로 해마다 늘어 가고 있다.

북한은 단순히 홈페이지 공격이 나 메일을 통한 악성코드 살포를 넘 어 본인 인증 소프트웨어까지 해킹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미국의 고고도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와 흡사한 '샛별-4'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조선중앙TV]

한국산 무기 세계에서 각광 북은 최첨단 유사 무기 공개 북, K방산 전방위 해킹 시도 사이버 보안 체계 확립 시급

고 있다. 이른바 '공급망 해킹(Supply Chain Attack)'이다. 소프트웨어·하 드웨어·서비스의 개발과 배포 과정 전 체를 장악해 최종 시스템을 뚫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해킹으로 어떤 기술 과 자료가 넘어갔는지 정확히 확인되 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진화하는 북한의 무기기술 탈취

기술의 확산은 동시에 위험의 확 산이다. 첨단무기가 복제되거나, 심 지어 적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다. 2010년대 이라크에 수출된 국 산 소총이 IS 무장세력에게 넘어 갔 던 일을 경고로 인식했어야 했다. 최 근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판 매된 무기 또는 관련 기술이 북한 으로 새어나갈 가능성까지 거론된 다. 미국은 동맹인 한국에 무기를 판 을 막기 위해 부품을 뜯어보지 못 하도록 계약단계에서 못을 박는다.

자체 기술이 부족한 북한은 기술 탈 취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다. 2015년에 선을 보인 300㎜ 방사포 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중국에서 관 련 기술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을 접하 고, 설계도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 사

례다. 물론 중국 측이 알아차리지 못 하게 무단으로 가져가는 식이었다. 정 보원이나 개인네트워크를 통한 설계 도면 획득이 과거의 방식이었다면 최 근에는 사이버 공간에서 기술 탈취가 일반화돼 있다. 북한은 초등학교(소학 교) 저학년 시절부터 컴퓨터에 재능 있 는 학생들을 선발해 집중교육을 한다. 일반학생들은 듣기에도 생소한 도스 (DOS)부터 시작해 프로그래밍, 코딩 등 컴퓨터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기 술'을 습득시킨다. 영재학교인 제1중학 교를 거쳐 김책공대 등에서 고급 기술 을 가르치고, 필요할 경우 중국 베이징 이나 선양 등에 유학을 보내기도 한다. 이들이 사이버 망에서 가상자산이나 군에서 필요한 설계도와 기술 탈취에 나서는 것이다. 보안 업체인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은 2019년 중반 러시아의 3.5세대 전차 인 T-14 등을 개발·생산하는 우랄바곤 자보드의 설계 도면을 해킹하는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 5위 군사력? 자만은 금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한 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라는 섬을 강 조한다. 한국 국방비가 북한 국내총생 산(GDP)의 1.4배에 달한다는 근거도 빼놓지 않는다. 정부는 국방비를 GDP 의 3.5%까지 늘리겠다면서 전작권을 되찾아오겠다고 한다. 6·25전쟁 때 유 엔군의 도움 없이 전쟁 수행 자체가 불 가능했던 한국이 세계 5위권에 들었다 는 통계는 반길 일이다. 그렇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건 단순한 수치 에 불과하다. 올해 국방예산 61조2469 억원 중 전력유지 예산은 18조491억 원에 불과하다. 방위력 개선비도 17조 8462억원이다. 전력유지와 무기 도입예 산이 35조8953억원으로 전체 국방비의 58.6% 수준이다. 국방비 총액이 아니 라 증강되는 전투력이 실제 전쟁에서 발휘될 수 있는지, 전쟁 수행을 위한 물 자가 어느 정도로 구비돼 있는지 촘촘 히 따져보는 게 우선이다.

겉보기 전력만 늘어난다고 안보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북한이 사이버 영역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 는 상황에서 이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전력이나 K방산의 위력은 무용 지물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북한을 방어 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들여 개발한 기술이 북한에 넘어가 부메랑 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다. 안보에선 모든 가능성을 상정하고 대 비해야 한다. 한순간의 방심이 극단적 인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이제 방산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이 를 지켜야 하는 게 발등의 불이 됐다. 사이버 보안 체계가 바로 그 출발점이 다. 국방 분야는 군이 알아서 할 것이 란 박연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스라 엘 방위군(IDF)에만 보안을 맡겨선 한 계가 있다는 판단으로, 안보기관(샤바 크)이 주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업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이스라엘의 경험을 참고할 만하다. 우리의 방산 기 술을 지키는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는 다면, 오늘의 성취는 내일 적의 무기가 돼돌아올 것이다.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져 치료경력

②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정기적인 눈 검사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안구 건조중 치료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Dry Eyes Therapy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용 보험 적용 됩니다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dceyeclinic@yahoo.com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 MD Degree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Participa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Participated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Korean Dail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건경학 치이나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Implant**

- 잇몸치료 - 치아교정 Periodontal Orthodontics Surgery Invisalign

신경치료 - 치아성형 **Root Canal** Veneer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응급환자

Emergency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우리말 바루기

희한한 존칭 "누우실게요"

"다리를 펴고 누우실게요" "허리를 드실게 요"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실게요"-. 며칠 전 허리가 아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병원 직원들은 몹시 친절했다. 하지만 지나 친 공손에서 오는 기형적 표현이 오히려 거 부감이 들게 했다.

'-리게요'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약속하 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ㄹ게'에 존대 의 뜻을 나타내는 '요'가 붙은 것이다. 즉 '-리게요'는 내가 상대에게 어떤 행동을 하겠 다고 공손하게 약속하는 말이다. "다시 연 락할게요"는 내가 상대에게 연락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우실게요" 는 어떻게 되는 걸까. 우선 "누울게요"는 내 가 눕겠다고 상대에게 공손하게 얘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시'가 첨가된 "누우 실게요"는 어법상 성립하지도 않는다. "누 우실게요"는 내가 눕겠다는 의지와 상대를 높이는 말이 결합한 희한한 표현이다.

"다리를 펴고 누우실게요"는 "다리를 펴고 누우세요", "허리를 드실게요"는 "허 리를 드세요"라고 해야 한다. 무턱대고 '시' 를붙인다고 상대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다.

아마도 이것이 공손한 표현이라 생각하 고 직원들을 교육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 이 든다. "누우실게요"→"누우세요" 처럼 '-실게요'를 '-세요'로 바꾸면 대부분 해결 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 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 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 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①중앙일보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홍알벗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재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무대와 시선

LA필의 새해 선물은 CQ

많은 부모가 자녀 안에 내재돼 있을 음악적 감성 을 찾아보려 피아노 앞에 앉히고 바이올린을 손 에 들려준다.

아이들이 내키지 않아 해도 억지로 등 떠밀며 교습을 강요하는 부모도 많다. 잠재된 재능을 발 견하려면 어려움을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 문이다. 하지만 음악적 재능은 어려움을 겪어야 만찾아낼수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딸들이 어렸을 때 이 미스터리한 재능을 발견 해 보려 억지로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시켰다가 아이들이 울면서 연습하는 모습에 두 손 들었던 경험이 이 사실을 확신케 했다.

어느덧 중년이 된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 사 라 장(44·장영주)이 음악에 특출한 재능을 보인 것은 4세 때. 바이올리니스트인 그의 아버지 장민 수씨는 집에서 실내악 연습을 하곤 했는데 어느 날인가 네 살배기 딸이 장난감 바이올린으로 자 신이 동료와 연습했던 곡을 비슷하게 소리 내는 것에 놀랐던 기억을 자주 얘기하곤 했다.

그는 "음악인의 길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아이들은 음악가로 키우지 않겠다고 굳 게 다짐하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딸의 재능을 발견하고 이를 모른척할 수 없었던 장민수씨는 결 국 딸에게 바이올린 교습을 시작했다. 그리고 사 라 장은 불과 8세의 나이에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 트라와 협연하며 세계 음악계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어떠한 분야든 뛰어난 재능을 타고나 는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그렇다면 예



유이나 칼럼니스트

술적 재능이 없다고 아예 자녀를 예술과 멀리해 감성이 무딘 성인으로 자라도록 방치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성향을 평가하기 위 해선 지능지수인 IQ(Intelligence Quotient) 와 감성지수인 EQ(Emotional Quotient)외에 CQ(Cultural Quotient)라는 '문화지수'를 자료 로 사용하기도 한다. CQ란 정서와 교양을 점검하 는 일종의 '사회성 아이큐'다. 이 부분이 발달한 사람은 창의적일 뿐 아니라 대인관계가 좋고 열린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해나간다.

중요한 사실은 IQ 와 EQ가 선천적 요인에 기인 하는데 비해 CQ는 후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는 것이다. 두뇌가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정서함 양에 힘쓰지 않는 사람은 CQ가 낙후되며, 다방면 에 걸친 지식 습득과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고 이 를 가까이 접해 온 사람은 CQ가 높게 나타난다.

정 트리오를 세계적 음악인으로 키워낸 고 이 원숙여사는 "내가 중요시한 것은 음악을 사랑하 는사람으로만드는 것"이었다고 강조하곤 했다.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씨도 어머니의 이 교 육 철학이 충족한 삶의 원천이었음을 인정한다.

"6.25 전쟁 후 시장에서 어렵게 장사를 하시면서 도 어린 시절 우리를 주말마다 항상 새 옷 입혀 음 악회에 데리고 가셨다"며 바이올리니스트로의 길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 자신을 일으켜 세 웠던 힘은 바로 음악사랑이었다고 회상한다.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이번 시즌에도 클 래시컬 뮤직계를 빛내고 있는 많은 한인 음악인 을 초청,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에서 멋진 음악회 를 준비했다.

피아니스트 김선욱과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이 내년 1월21일 함께 리사이틀을 연다. 피 아니스트 조성진도 1월27일 바흐와 쇼팽 등 독보 적 기량을 보여줄 곡으로 독주회를 갖는다.

지난 16일 LA 필 초청 리사이틀로 청중을 사로 잡았던 피아니스트 임윤찬은 내년 2월12일부터 15일까지 4차례 구스타보 두다멜 지휘로 LA 필 과의 협연 무대에 오른다.

특별히 이번 무대에서 임윤찬이 들려줄 곡은 낭만시대 매스터피스로 평가되는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이다. 로베르트 슈만이 평생 단한 곡만을 작곡한 피아노 협주곡으로 피아노와 오케스트 라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19세기 최고의 걸작 이다. 예술을 가까이 접하며 사회적 아이큐를 높 일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쉽고 즐거울 수 있다. 새해 선물처럼 다가온 이 세계 음악계 한인 보석 들을 만나는 것이 어찌 즐겁고 기쁘지 않겠는가.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재능보다 충족한 마음 일 듯 하다.

열린광장

기부금 공제, 따뜻해진 세법

2025년, 올해부터는 누구나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받을수있는길이 열렸다.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서 기부금 공제를 훨씬 많이 인정 해준 것이다.

지금까지는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 를 선택한 납세자만 기부금 공제가 가능했다. 그 러나 2025년부터 새로 시행된 세법은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를 선택하더라도 일정 금액 의 현금 기부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이 공제는 'above the line', 즉 조정총소득 (AGI)을 계산하기 전에 차감된다. 이 말은 연방소 득세뿐 아니라 주(州) 세금 계산에도 영향을 준다 는 뜻이다. 다시말해 금년부터 기부를 하면 연방 정부 소득세뿐만 아니라 주정부 소득세까지 줄이 는효과를 낸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보자. 소득이 5만 달러인 근로자가 1000달러를 현금으로 기부했다면, 그 금액은 'above the line' 공제로 먼저 빠진다. 따라서 과세 소득은 4만9000달러로 줄어든다.



손헌수 변호사·공인회계사

현재 이 사람의 연방소득 세율(약 12%)을 적용 하면 연방세가 약 120달러 절감된다. 또 캘리포니 아주소득세율(6%)을 적용하면 추가로 약 40달러

결국 1000달러 기부로 약 160달러의 세금 절 약 효과가 생긴다. 이 말은 1000불을 기부하면 그 중에 160불은 정부가 내는 것이고 본인은 나머지 840불만 부담을 한다는 말이다.

2026년, 내년부터는 기부금과 관련해서 새로운 기준이 하나 더 생긴다. 기부금이 조정총소득의 0.5%를 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 이다.

즉, 연소득이 5만 달러라면 250달러 이하의 기 부는 공제 대상이 안 되는 것이다. 기본공제 대상 자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대신, 일정 금액 이하는 '사회적 기여의 기본선'으로 남겨둔 것이다.

법인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법인은 순이 익의 1%를 넘는 기부금부터만 공제가 가능하다. 그이하 금액은 기업의 철학과 사회적 약속으로서 의 기본 의무로 남는 것이다. 세법이 단순히 혜택 을 주는 수준을 넘어, 기업이 '세금이 아닌 신념으 로기부'하도록방향을 제시한셈이다.

기부금 영수증 한 장은 더 이상 단순한 종이가 아니다. 그 안에는 세금의 논리를 뛰어 넘는 따뜻 한 인간의 온기가 함께 담겨 있다. 세법은 여전히 복잡하지만, 그 속에서 세금은 사람을 향해 조금 씩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는 기부를 하 는 사람을 존경만 할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기 부를 할 일이다.

기부는 마음의 일인 동시에, 세금이 인정하는 '지혜로운 선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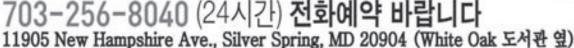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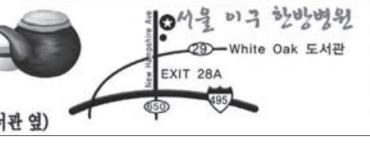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VA, MD, DC 면허 소지

저서

-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설침구혈위대전





**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목디스크,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E2 비자/투자이민
- 취업/가족초청이민 비자변경 및 연장 ● 종교비자/이민
 - 강제추방문제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부동산 투자 개발

Business / Real Estate

703-973-8700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혼앞빌딩3층

적립금 1400조원(국내총생산의 50% 수준), 가입자 수 2198만 명(10월 말 기 준). 국민 노후생활 보장의 핵심 축인 국민연금의 현재 모습이다. 1988년 도 입된 국민연금은 일본 공적연금(2200 조원), 노르웨이 국부펀드(2000조원) 에 이어 전 세계의 연기금과 국부펀 드 중 3위 규모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늘어나는 노령층의 소득안전망 역할 을 해 왔다. 특히 1차 베이비 붐 세대 (55~63년생) 약 700만 명의 주요 노후 소득원이 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내 자본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192 조원(8월 말 기준)으로 국내 상장사 평 균 지분율이 6%에 이를 정도로 '큰손' 이다. 국민연금은 기업 경영 과정에서 의사 결정에 개입해 큰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도입 논의부터 시행 까지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연금제도를 도입하면 저축 제고뿐 아니라 국가 재정을 위한 투자재원 조 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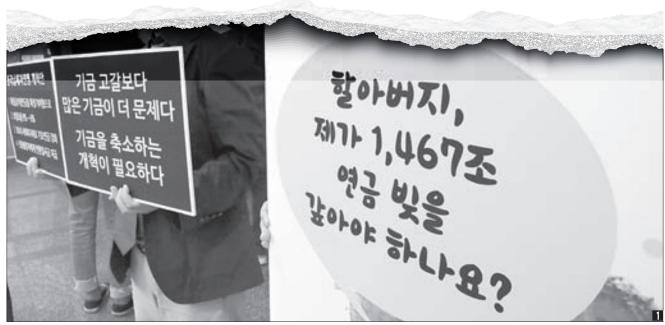
1972년 11월 30일 청와대, 박정희 대 통령과 경제 부처 장관들이 모인 가운 데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만제 원장 이 연금제도 도입 필요성을 보고했다. 박정희는 10월유신 직후 "유신에 대한 평가는 수출 100억 달러 달성에 달려 있다"며 "모든 정책 초점을 이에 맞추 어 집중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특히 "중화학공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특단 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도시로의 인구 집중, 핵가족화로 인 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빨라지면서 전 통적인 가족 부양체계로는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부양이 점점 어려워지던 시절이었다. 사회보장 연금제도의 도 입이 필요했다. 하지만 당시 국내 정치 권에선 유럽 등 서구권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가 경제적으로 생산성을 높 이지 못하는 '소비성 정책'이라며 부정 적 인식이 많았다. 경제개발이 시급한 한국적 상황에서 도입은 시기상조라 는 것이었다. 김 원장은 오히려 "연금 제도를 도입하면 수출 역량을 키우기 위한 투자 재원 마련이 용이하다"는 논 리로 설득했다. 장시간 토론 끝에 박정 희는 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 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86년 유럽 순방 식후 귀국길에 결성

1년 후인 73년 12월 '국민복지연금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중 동전쟁으로 제1차 석유파동이 터지고, 74년 1월 긴급조치가 발동돼 연금제도 시행은 무기한 연기됐다. 2015년 국민 연금공단이 펴낸 『실록, 국민의 연금』 에 따르면 논의가 다시 시작된 것은 전 두환 정부 때다.

'노년의 믿을 구석' 국민연금 "나라에 부담" 편견 깨기 16년







■ 2018년 8월 한국납세자연맹 회원들이 보험료 인상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국민연금 도입에 부정적이던 전두환 대통령을 설득 한 것은 KDI 원장 출신인 김만제였다. 1986년 1월 부총리 임명장을 받는 김만제. 图 1987년 9월,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서 국민연금공단 개소식이 열렸다. 2015년 공단 본부가 전북 전주시로 이전했다. [중앙포토·뉴스1]

81년 1월 새해 첫 국무회의, KDI 김 만제 원장은 국민연금 도입을 포함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기본구상' 보고 서를 들고 다시 청와대에 들어갔다. 보 고를 받은 전두환은 특별한 논평을 하 지 않았다. 내심 대통령의 반응을 기대 한 김 원장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 후에도 KDI 측은 한두 차례 국민연금 관련 보고서를 만들어 청와대에 올렸 지만 성과는 없었다. 84년 1월엔 KDI 에 새로 부임한 안승철 원장이 신임 인 사차 청와대를 방문해 국민연금을 다 시 보고했다. 전두환은 "한국에서 이 런 것 하면 경제가 망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한다. 2년 후인 86 년 4월 21일 유럽 4개국 순방을 마친 전

비행기가 알프스 상공을 지날 무렵, 수행 중이던 김만제 부총리 겸 경제기 획원 장관과 사공일 청와대 경제수석

이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다. "각하 듣기 싫은 얘기일 수 있겠습니 다만, 우리가 방문한 영국·독일 등이 부

국인 이유는 은퇴자들이 노후에 빈곤

72년 첫 제안, 88년에야 시행돼 "노후가 편해야 국가도 성장" 공감

적립금 1400조, GDP의 절반 수준 '덜내고더받는' 구조문제 여전

잇단 개혁 실패, 미래세대는 불안 기금 안정정책 과감히 검토해야

을 걱정하지 않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 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제도 많 이 성장했으니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국민이 노후 빈곤을 걱정하지 않고 살 게 해줘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 말 없이 얘기를 듣던 전두환이

"참 질긴 사람들이구먼. 내가 그렇게 안된다고했는데 말이지. 좋습니다. 도 입을 검토해 보세요."

진행됐다. 8개월 후인 12월 31일 국회에 서 '국민연금법'이 통과됐다. 시행은 88 년 1월부터였다. 초기엔 10인 이상 사업 장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었다. 전 국민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원장 김우기 DPT

연금시대는 99년부터다. 국민연금 도입 37년이 지났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 십수 년째 논란이 되는 기 금 고갈 문제, 세대 간 형평성 등 해묵 은 과제들이다. 고성장 시대인 박정희 정부 때 설계한 골격을 10년 이상 지났 는데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채 시행한 데서 비롯됐다.

처음에는 '덜 내고 더 많이 받는' 식 이었다. 88년 당시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70%, 보험료율(내는 돈)은 3%에 불과했다. 이후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라 98년 9%가 되도록 했다. 가입자가 낸 총액과 이자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 은 돈을 받게 돼 있었다. 가입자 입장에 서 보험료율 인상은 인기 없는 정책일 수밖에 없었다. 정부나 정치권은 오랫 동안 보험료율 인상에 소극적이었다.

90년대 중·후반부터 저성장·저출산· 평균 수명 증가 문제가 대두하면서 연금 대통령 승인이 떨어지자 일사천리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됐다. 국민연금은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 피했다. 98년과 2007년 연금개혁이 이뤄 졌다. 김대중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70% 에서 60%로 낮추고, 연금수급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이후에도 연 금 재정 불안 이슈는 끊이질 않았다. 노 무현 정부는 보험료율은 그대로(9%) 유 지하되 소득대체율은 매년 0.5%포인트 씩 낮춰 2028년까지 40%로 하는 단계적 하향을 결정했다. 두 번의 개혁에도 기 금 고갈에 대한 우려, 소득대체율에 대 한 불만 등이 겹치며 논란은 계속됐다. 정부는 가입자가 싫어하는 보험료율 인 상은 1%포인트도 하지 않고 17년을 보 냈다. 그러다 올 3월 20일 새로운 국민 연금 개편안(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33년까지 8년에 걸쳐 13% 로 인상하고, 2028년 40%로 떨어질 예정이던 소득대체율을 2026년부터 43%로 올린다는 것이 골자다. 절충을 시도한 것이다. 소위 '조금 더 내고, 조 금더받자'는 것이다.

연금개혁 밀어붙인 슈뢰더 총리

보험료율은 인상했지만 연금 고갈 등 근본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 는 비판은 여전하다. 특히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높였다는 측면에 서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는 지적도 있 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정에 따르면 국 민연금 미적립부채(2095년까지 낼 돈 과 현재 적립금으로도 연금을 지급하 기에 부족한 액수)는 1820조원에 달한 다. 지급할 금액보다 적립금이 많이 부 족하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자동조정 장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 산율, 평균수명, 경제성장률 변화에 따라 연금 급여액이 자동으로 조정되 는 방식이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70%가 이 제도를 도입 했다. 이번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도 뜨거운 쟁점 중 하나였지만 도입에는 실패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국감 때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스웨덴에 이어 2004년 자동조정장 치를 도입해 연금개혁에 성공한 독일의 경우를 눈여겨봐야 한다. 당시 슈뢰더 총리가 이끌던 사민당 내각은 연금 재 정 안정화를 위해 인구구조와 노동시 장 상황을 반영해 연금제도를 개혁했 다.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반대가 심했 다. 경제전문가 위원회 의장으로서 연 금개혁의 산파 역할을 한 베르트 뤼럽 은 국민을 이렇게 설득했다.

'특성 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월능 하게 손해를 보는 것을 최소화하는 쪽 으로 개혁 목표를 정해야 한다. 그래야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가능해질 것이다."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의 개혁은 세대 간 갈등을 줄여 국민통합으로 가는 지 름길이라는 의미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올랐다.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20151, Table 14 Paris Ct. Ste. A, Chantilly, VA T 703-865-6455 F 703-649-6455 [센터빌, 첸틀리 지역]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보험 에이전트 모십니다!

<mark>전미주로 뻗어가는 브리지원 보험</mark>과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브리지원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562-896-3400

시 설

한 · 미 관세 합의, 시간 걸려도 국회 비준이 정답이다

정부, 비준 절차 대신 특별법 추진 논란

국회 논의 통해 내용 투명성 확보해야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국회의 비준 동의 _ 럴 필요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 합의의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비준 동의 대 상이 아니다"고 판단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대신할 방 침이라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해 부적절하다.

헌법 60조 1항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 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 비준 동의권을 갖는 다"고 규정하고 있다. "MOU는 조약이 아니므로 비준 이 필요 없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은 말장난에 가깝다.

이번 관세 합의의 핵심은 향후 10년에 걸쳐 3500억 달러(약 506조원) 규모를 미국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이 금액은 현금 투 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프로

젝트(마스가) 1500

억 달러로 구성되며, 현금 투자는 연간 최대 200억 달 러 한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집행된다. 재원은 한국은 행이 외환보유액 운용으로 거두는 연 150억 달러 수준 의 이자·배당 수익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분은 국책은 행의 해외 채권 발행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구조상 단 기 외화 유출 위험이 크지 않다고 하지만, 국가 재정· 통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일이다. 헌법이 국회 비준을 요구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범주에 포함된다 하겠다.

김민석 총리도 국회에서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 비 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그

그랬던 정부가 돌연 입장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는 비준 절차를 밟으면 관세 인하가 늦어져 기업 피해가 커진다는 점을 내세운다. 2007년 국회에 제출 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여야 갈 등으로 4년여 만에 통과된 전례도 거론한다. 그러나 국회 동의 없이 여당 주도의 특별법으로 막대한 대외 투자를 추진한다면 비준 지연보다 훨씬 큰 정치적·경 제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통상조약법 13조는 국회 비준을 위해서는 재원 조 달 방안과 국내 산업 보완 대책을 함께 제출하도록 규

정한다. 정부에는 번거로운 절차지 만, 이를 거쳐야 야 당과 국민이 정당 성을 인정하고 거

국적 투자가 가능해진다.

더구나 이번 합의는 수익 배분(5대 5), 손실 상계 방 식, 프로젝트 선정 절차 등 불투명한 부분이 적지 않 다. 합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 황에서 미국 측은 "한국에서 9500억 달러를 투자받을 것"(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발언까지 내놓고 있다. 협 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의 비준을 받는 것 이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길이다. 국민의힘 역시 비준 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해선 안 된다. 관세 협상의 빈 틈과 독소조항을 꼼꼼히 점검하되 국익을 위한 신속 한 집행에는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야 '샤넬백 수수' 시인…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 했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대선 직 후통일교 측에서 제공한 샤넬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전달받았다고 시인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 사는 전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 정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선물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주장했 다. 그전까지 샤넬백을 포함한 각종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던 김 여사 측이 부분 인정으로 입장을 바꾼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전씨가 기존 진술을 뒤집 는 등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재판 대응 전략을 수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김 여사가 특검 수사에서 부 분적으로 거짓말했다는 걸 고백한 셈인데, 더 이상의 거짓말은 없어야 한다.

김 여사 측은 샤넬백 수수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인정하지 않았 다. 통일교 측에서 고가의 선물을 아무런 대가도 바라 지 않고 순수한 뜻에서 줬다는 것인데,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김 여사 측은 통일교 측에서 6000만원대 다이아몬 드 목걸이를 받았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전씨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김 여사 둘중한 명은 거짓말하는 셈이다.

그동안 김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은 한둘이 아니다.

김 여사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의 이권 개입 의혹,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경기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받 고 있다. 명품 가방・목걸이 등 금품 수수 의혹은 그중 일부일 뿐이다. 김 여사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사 람"이라고 했지만, 지난 정권의 핵심부에서 있었던 수 많은 의혹의 실상이 특검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마치 양파껍질처럼 한 꺼풀씩 드러나고 있다. 이제라도 김 여사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은 얄팍한 거짓말로 법 적 책임을 모면할 생각을 버리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 히는데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법정에서 각종 의혹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할 의 무는 윤 전 대통령에게도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6회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 했다가 지난달 말부터 법정에 다시 나왔다.

지난 3일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 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해 국군의날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총으로 쏴서라도 죽 이겠다"고 말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윤전 대통 령 변호인단은 "그런 발언은 없었다"고 했지만, 추가 조사와 진상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과거 국정 최고 책임자이자 국군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걸 명심하길 바 란다.

묘수가 '긁어부스럼'이 된 이유

김승현의 시시각각

時視各角



더불어민주당의 지상과제였던 재판중 지법이 '민망한' 상황을 연출했다. 국정 안정법으로 호칭까지 바꿔 법안을 추진 하려던 민주당 지도부에 대통령실이 제 동을 걸면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기를 당부한다"고 브리핑까지 했 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서 재판중지 법은 일단 제외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민 망했겠지만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 나중에 더 낯 뜨거운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기 때 문이다. 애초 법안의 체계에 대통령을 '멕이는' 맹점이 있었다.

재판중지법의 정확한 법적 명칭은 '형 사소송법(형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난 5 월 2일 대표 발의했고, 국회 법제사법위 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구 조는 간단하다. 형소법의 '공판 절차의 정지' 규정(306조)의 적용 대상에 '피고 인 대통령'을 추가하는 것이다. 추가되 는 조항(⑥항)은 '피고인이 대통령선거 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민망 포인트'는 기존 법 조항 전체를 함께 읽어야 찾아진다. 5개 조항 중 ①, ②항은 이러하다. ①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 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 공판 절차를 중 지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해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 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 절차를 중 지하여야 한다. 나머지 3개 항은 재판 중 지 때 의사 의견을 듣고(③항), 무죄·면 소 등 사안이거나 경미한 죄는 피고인 없이도 재판할 수 있다(④,⑤항)는 내용 이다. 그 아래 ⑥항으로 '피고인이 대통 령에 당선된 때'가 추가된 것이다. 법안 이 통과하면 심신상실자, 중환자와 함께 대한민국 대통령이 형사소송법에 등재 된다. 거대 여당이 국정안정법, 국정보

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이라고까지 치켜 세운 법안의 모양새는 이토록 격이 떨어 졌다.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는 "법체계 정합성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냈다. 일 부 법학자는 "심신상질자에게만 적용되 던 것을 잘못 가져와 우스운 꼴이 됐다" 고 지적했다.

재판중지법 발의 당시 민주당의 절박 함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대법원이 이 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 죄 취지로파기 환송(5월 1일)한 다음 날 이었다. 대권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절 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찾은 묘수라 생 각했을 것이다. 그랬던 법안은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고, 이 대통 령이 당선되자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근 거로 재판을 중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기감이 재발했다. 국정감사 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이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발언을 하고,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 되면서다. 이후 위기 관리인지, 과잉 충

철회된 재판중지법 민망한 체계 '심신 상실자' 아래 '대통령' 추가 김현지 불출석도 염치없는 편법

성인지, 심기 경호인지, 자기 정치인지 모를 호들갑이 벌어졌다. 민주당 안에서 도 '긁어 부스럼'이라는 말이 나왔다.

유사한 패턴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 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공방에서도 읽힌 다. 역대 정부 총무비서관들은 모두 국 정감사에 나왔다는데 유독 김 부속실장 만 뺐다. 정쟁 소재로 삼으려 한다는 방 탄 논리는 오히려 김 부속실장을 '절대 존엄'으로 만들었다. 총무비서관에서 부 속실장으로 옮긴 인사는 꼼수 의심을 받았고, 오전 국감에만 가겠다는 타협안 은 '반반치킨' 비아냥을 들었다. 긁어 부 스럼이다.

강력한 힘을 갖고도 조바심을 내고 염 치를 불고하는 게 최근 민주당 스타일이 다. 절대권력과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절 대 책잡히지 않으려는 박쥐 근성이 뉴노 멀이 된 것인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민망 법안, 긁어 부스럼을 보게 될지 두

논설위원

중앙일보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i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불편·불만 처리센터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일사로 48-6 안내전하 02-751-5114 9114

사장·발행인 **홍정도**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종윤

>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가00195 저작권자(C)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사전재계약제휴사미국THENEWYORKTIMES, THEWALLSTREET JOURNAL, LOS ANGELESTIMES, NEWSWEEK 영국FINANCIAL TIMES 일본時事逝点 日本經濟新聞 구독료 (월정 20,000원/1부 1,000원





CHRISTIAN MUTUAL MED-AID 와 함께 하는

건강한 인생 & 의료비 나눔

크리스전들을 위해 의료비 걱정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의료보험이 아닌 크리스천들을 위한 의료비 나눔 사역 CA, DC, MA, NJ, RI 주: 의료보험 미가입 벌금 면제 혜택 • IN, MO 주: 회비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

CMM 회원 혜택



경제적인 월회비

- 월 \$45로도 질병당 입원 및 수술비 최대 \$150,000

30여 년의 신뢰와 경험. CMM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 25세까지 부양 자녀 1유닛 회비 적용



글로벌 의료 서비스

- 미국, 한국 포함 전 세계 어디서나 이용 가능
- 원하는 의사와 병원을 자유롭게 선택



의료비 나눔

- 질병당 최대 \$150,000
-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1,000,000 추가
- 가입 전 질환에 대한 의료비 나눔 범위 확대



100% 한국어 서비스

- 한국어와 영어 서비스 제공 - 간단하고 신속한 가입 절차
- 연중 언제든지 회원 가입 가능

지금 바로 QR 코드를 스캔하여 나에게 맞는 레벨을 확인하세요!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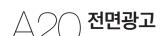




773-777-8889 2315 Sanders Rd. Northbrook, IL 60062



가입문의: 773-777-8889 (Ext.5002) 동부지부 김준범 지부장: 917-535-1144, 917-500-1330









Dr.Chung's Food

STAY HEALTHY WITH EVERY SIP OF VEGEMIL.



베지밀(검은콩고칼슘/ 검은콩 & 검은참깨/검은콩 & 아몬드/ 검은콩 16곡/아몬드 & 호두/ 고단백 검은콩/17곡)

Dr. Chung's Food Vegemil - Soy Milk (Selected Varieties)

16X190 ML







①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November 6, 2025 C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LENNOX) (TRANE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Carrier, Lennox 전문딜러 교체해드립니다.

UNIVERSAL Office: 703-618-4822





임종범 대표 변호사(VA/MD) 703-333-2005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JOY LAW GROUP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은 별도 \$750)

>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馬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홍행초)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직한 회사 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당하여 드립니다.



(703)303-4556/t.(703)303-0988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정부 셧다운, 주택 거래 악영향 없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가주 주택시장은 큰 변화 없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플로리다에서 홍수보험 발급과 갱신이 중단돼 주택 거 래가 지연되는 것과 대비된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터닷컴의 해나 존스 선임 경제분석가는 "정부 셧다운 이후 가주 주택시장은 뚜렷한 변화 조 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 규 매물은 지난해보다 늘었고 시장에 머무는 기간은 안정적이며 재고 증가율 도 둔화세를 유지하고 있다.

가주는 전국에서 주택청과 재향군 인청 대출 규모 6위와 농무부 주택 투자 총액 9위, 홍수보험프로그램(NFIP) 가 입 건수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연 방프로그램이연방정부셧다운으로중 단되거나 심각하게 지연되는 상황에서 연관성이 큰 가주 시장은 안정을 유지하 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은 가주 경제의 17.6%를 차지하고 있어 셧다운의 영향 이 커지면 경기에도 큰 영향을 준다.

가주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은 주택시 장의 주도층이 건재하기 때문이다. 가 주 주택 구매자 대부분은 셧다운의 영 향을 받지 않는 일반 대출을 이용한다. 집값이 비싼 LA와 샌프란시스코, 샌호 세 등에서는 현금과 점보 대출 구매가 여전히 활발하다.

존스 분석가는 "고소득 현금 구매자 와 점보 대출 이용자는 셧다운에 따른 공무원 무급휴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 지 않는다"며 "구매자들이 가주 시장의 버팀목역할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IRS)의 '소득 검증 신속 서비 스(IVES)'가 정상 운영 중인 점도 거래 안정의 버팀목이다. 세금 정보를 확인 해 대출 심사를 이어가는 이 시스템은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플로리다 등에서 주택 거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가주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심사 절차 문제 없어 더 길어지면 파장 불가피 건설 허가·공사 검사 지연

이용자의 수수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 회의 예산 승인과 상관없이 움직인다.

신용검증업체 서비스 퍼스트의 커티 스 누스 대표는 "매주 수천 건의 세금 기록을 요청하는데 지금까지 지연된 적 이 없다"고 말했다. 이 회사의 리사 빙 클리 최고운영책임자(COO)는 "IVES 를 통한 세금 기록 요청의 97%가 3일 안 에 처리되고 있다"며 "셧다운 이전과 동 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셧다운 영향이 감지되는 부분도 있다 . 최근 첫 주택 구매자 중 주택청이나 농 무부 대출 이용 열기가 식고 있다. 가주 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만 19억 달러 규 모의 주택청 대출을 기록해 전국 3위를 차지했다. 농무부를 통한 주택 투자는 2024년 이후총 200억 달러에 달했다.

이들 대출은 연방 인력과 승인 절차

에 의존하기 때문에 셧다운으로 사실상 중단 상태다. 정부 운영이 불확실해지 자 자격 있는 바이어조차 대출 이용을 주저하는 상황이다. 셀러들은 이에 대 응해 가격을 소폭 조정하거나 계약 기간 을 연장하고 있다. 반면, 건설업계는 타 격을 받고 있다. 이미 인허가와 공사 검 사가 지연되기 시작했다. 다세대 주택 프로젝트 등은 작은 지연도 전체 일정 에 도미노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의 러셀 릭스 규제 담당자는 "지금은 영향이 미미하 지만 셧다운이 더 길어지면 인허가 절차 가 본격적으로 막히기 시작할 것"이라 고 우려했다.

LA 지역 건설사인 오퍼스 빌더스의 개리 므크르티챈 대표는 "10월 초 이후 신규 주택 공사 현장에서 인프라 관련 요청이 거의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단 순 하수도 연결이나 소화전 이전도 지 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셧다운으로 연 방 정부가 운영하는 홍수보험 프로그램 (NFIP)이 중단되면서 남가주의 산불

피해 지역과 홍수 위험 지역의 거래가 영향을 받고 있다.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대형 산 불이후최소 5년간 홍수 위험이 평소보 다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문제는 산 불 피해 주택 중 연방 홍수보험에 가입 된 비율은 4%에 불과하다. 팰리세이즈 와 이튼 파이어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은 아직 복구가 진행되는 상태로 NFIP 가 중단되면서 신규 가입과 갱신이 모두 멈췄다.

존스 분석가는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홍수보험 신규 발급이 중단돼 거래 지 연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가주 주 택시장은 안정적이지만 복잡하게 얽힌 시장의 구조를 고려하면 장기 셧다운의 여파가 뒤늦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존스 분석가는 "대출 승인이나 보험 문제로 거래가 지연되면 매물 회수나 가 격인하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며 "소비 자 심리가 흔들리면 구매를 미루는 사 례가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유회 객원기자





연말 파티에 200명 초대 합니다. 품짐한 상품 및 1000불 상금 12월 6일 토요일 6시 **Pine Plaza** 7 Broad Ave 4^{fl} Palisades Park, NJ 07650

상담 및 예약: 917.359.1578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수리 후

\$50,000 이상 이익

- 수리 전 가격 : \$650,000
- · 공사비(후불): \$45,000
- 수리 후 가격 : \$750,000
- * 집 마다 공사비와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mark>"수리하고 파세요. 결과가 다</mark>릅니다"



\$999,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5, 화장실 4+1, 차고 2 넓은 구조와 잘 가꾸어진 집, 벽돌, 마루바닥



\$1,05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우드슨 학군, 편리한 교통, 최근에 업데이트 많이 함



\$850,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끝집, 아주 밝고 이쁘게 잘 꾸며진 집

비엔나 싱글홈 방 6, 화장실 6, 차고 2 새집같이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 집, 편리한 교통





SOLD Sold in 2 days 새로 다 꾸민 집

\$985,000 → \$1,265,000 28만불 더 받고 팔림





\$349,900 Nottingham 타운홈 방 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다 새로 고친 집, HOA 없음



\$1,075,000 포토맥 싱글홈 방 4, 화장실 2+1, 차고 2

포토맥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649,000 SE 타운 방 5, 화장실 3+1

새 타운 하우스, 모던하게 지은 이쁜 집

남가주 세입자 렌트비 부담 전국 최고

가주 38곳…남가주에만 17곳 전국 3위 뉴포트비치 3360불 알리소비에호는 6년새 40% ↑

가주가 전국에서 세입자에게 가장 비 싼 도시들이 몰려 있는 지역으로 나타

부동산 렌트 정보업체 아파트먼트 리스트가 최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610개 도시의 3개월(8~10월) 평균 렌트비를 비교한 결과, 전국 50대 고가 임대 도시 중 38곳이 가주 도시였다. 이 중남가주지역만 17곳이 포함됐다.

남가주에서 렌트비가 가장 비싼 도 시는 뉴포트비치로, 평균 월세가 3360 달러에 달해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이 는 6년 전보다 24% 상승한 수치로, 상 승폭으로는 상위 50개 도시 중 18위에 해당한다. 〈표참조〉

전국 1위는 뉴저지주 호보켄으로 월 3601달러, 6년 전보다 23% 상승했다. 2 위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샌마 테오로 8% 증가한 3521달러였다.

남가주내 다른고가 임대 도시는 렌 트비가 3216달러인 레이크포레스트가 전국 8위, 10위 어바인도 3090달러로 렌트비가 3000달러를 넘었다. 이어 알



OC 지역 렌트비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어바인의 한 아파트 임대 안내문.

리소비에호(2998달러)는 17위, 라구나 달러)는 20위에 올랐다.

특히 오렌지카운티 내 도시들의 렌 트비 상승이 두드러졌다. 알리소비에 호는 6년 새 임대료가 40% 급등하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어바인 의 렌트비 또한 지난 6년간 29%나 상 승했다.

이 밖에도 미션비에호(2929달러)와 니겔(2990달러) 18위, 컬버시티(2942 사우전드오크스(2893달러), 치노힐스 (2871달러), 시미밸리 등 LA 인근 지역 이 20위권이었다. 치노힐스의 렌트비 상승률은 32%에 달했다.

> 그 뒤로 랜초샌타마가리타(2723달 러), 카마리요(2616달러), 코스타메사 (2603달러), 브레아(2552달러), 헌팅턴 비치(2542달러), 패서디나(2527달러),

오렌지(2515달러)까지 전국 렌트비 순 위톱50에들었다.

박낙희 기자

지난 10월까지 LA시의 3개월 평균 렌트비는 2095달러 수준으로 이들보 다 낮은 편에 속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고임대 지역은 세입자뿐 아니라 주택 보유자 역시 생 활비 부담이 상당하다"며, 남가주 전 반이 고비용 주거지로 굳어지고 있다

남가주 도시 렌트비 전국 순위

3기구 고시 핸드미 현국 군귀								
순위	도시	렌트비 (\$)	6년간 상승률(%)					
3	뉴포트비치	3,360	24					
8	레이크포레스트	3, 216	33					
10	어바인	3,090	29					
17	알리소비에호	2,998	40					
18	라구나니겔	2,990	30					
20	컬버시티	2,942	9					
22	미션비에호	2,929	32					
24	사우전드오크스	2,893	28					
25	치노힐스	2,871	32					
27	시미밸리	2,799	25					
31	랜초샌타마가리타	2,723	32					
40	카마리요	2,616	26					
41	코스타메사	2,603	29					
44	브레아	2,552	22					
47	헌팅턴비치	2,542	24					
48	패서디나	2,527	21					
50	오렌지	2,515	26					

자료: 아파트먼트리스트

고지적했다.

한편 최근 시장조사업체 프로퍼티 샤크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집값 이 가장 비싼 우편번호(ZIP코드) 지역 120곳 중 LA카운티 지역은 총 17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오렌지카운티 역시 12개에 달해 세 번째로 많았다.

우훈식 기자

서울 집값 크게 오르자 … 2030 '부모 찬스' 2배로 뛰었다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며 2030세대의 부동산 '부모 찬스' 의존이 1년 새 2배 가량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4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 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21~2025년 상 반기서울지역주택취득자금조달계 획서'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올 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입자(자금계 획서 제출자) 3명 중 1명(33%)은 20·30 대였다. 이들이 집을 사기 위해 증여. 상속으로 충당한 금액은 5조7413억원 으로, 1년 전(2조8227억원)의 2배 이상 (103%)으로 늘었다. 건수 역시 4601건 으로 전년(2498건) 대비 84% 늘었다.



굳어지는 부의 대물림

상반기 매입자 3명 중 1명이 2030 '증여·상속' 충당금액 5조7413억 부모에게 받은 대출액도 83% 급증 "차용증 쓰고 이자 받기도 증여 성격"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한 건수 도올상반기 2133건으로 전년 상반기 (1251건) 대비 71% 증가했다. 금액은 2 조4753억원으로 1년 전(1조3486억원) 보다 83.5% 급증했다.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고받는 형식이지만 실질적 으로는 증여 성격이 강한 사례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부모 찬스'를 통해 혜택을 본 1인당 평균 금액(증여·상속 12억4000만원, 직계존비속 대출 11억6000만원)은 서 울아파트한채 값수준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과열 기에도 정부의 세제 강화와 맞물려 가 족간증여·상속이나 대출을 활용한 거 래가 활발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부모 찬스'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흘러드는 흐름이 나타 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기준금 리 인상과 시장 침체로 매수 심리가 위 축된 2022년 상반기에는 증여·상속이 2506건, 직계존비속 대출이 1561건으 로 전년 대비 각각 62%·58% 감소한 바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전문위원 은 "자산가들은 부동산 가치 상승뿐만 아니라, 현금 가치 하락을 함께 고려한 다"며 "부모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력 이 되면 집을 먼저 살 수 있게 도와주 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부모세대 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자산 정리

와 맞물려, 증여·대출의 형태로 자녀의 집 마련을 도와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동산을 매개로 한 '부의 대물림'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성 훈 의원은 "정부의 대출 규제 등이 맞 물리며,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이 부모 의 재력에 좌우되는 현상이 가속화하 고 있다"며 "청년이 실질적으로 자산 을 형성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내놔 야한다"고주문했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은 "부모 찬스에는 세금 탈루 등이 없 는지 '핀셋 대책'을 고려하고, 임대주택 과 함께 구도심 개발을 병행하는 등 청 년 주택을 위한 대책을 첫 단추부터 다 시 끼워야한다"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

USAA, 주택보험 7.3% 인상 추진

내년 적용 시 평균 178불 올라

가주에서 7번째 규모 주택보험사인 USAA가 보험국에 주택 보험료 평균 7 .3% 인상 승인을 요청했다.

인상안이 승인되면 35만 명에 달하

는 USAA 보험 가입자는 내년 4월 30 일 이후 첫 갱신 시점부터 인상된 보험 료가 적용된다. 콘도는 인상안에서 제 외된다.

현재 USAA의 평균 연간 주택보험 료는 2428달러 수준으로 인상안 승인 땐 평균 1/8달러가 오른다.

하지만 지역과 화재 위험도에 따라 인상폭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말리 부의 경우 연평균 732달러가 인상되며 가입자에 따라 연 4800달러 이상 오를 수도 있다.

2024년 기준, USA A는 가주 주택보 험 시장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 USA A는 군 복무자와 가족 대상으로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가주 주택보험은 산불 위험 증가와 재보험료 급등으로 연쇄적으로 오르 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인상 흐름이 내 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지난8월에는 점유율 3위와 5위 주택 보험회사인 머큐리보험과 CSAA도 각 각 6.9% 인상안을 제출했으며 현재 보 험국이 승인을 심사 중이다.



중앙일보 광고 및 구독 신청 문의 Tel. 703-281-9660





낙관 대세는 현실이지만 편향은 위험

11월 주식 시장 리뷰 과열·회복 사이의 균형

10월 말까지 이어진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세는 겉보기엔 여전히 견고하다. S&P500과 다우지수는 연속된 갭 상 승으로 고점을 높이며 연준의 금리 인 하 기대와 인공지능(AI) 성장 스토리 를 재점화했다.

그러나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 승의 기반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이어진 네 차례의 상승은 모두 거래 참여가 줄었고 소수 의 초대형 기술주, 이른바 '매그니피센 트 7(Magnificent 7)'이 지수를 떠받치 는 구조가 이어졌다.

지수는 상승하지만 참여 종목의 폭 이 좁아지는 현상은 과거 2000년 닷컴 버블과 2021년 기술주 피크 때도 나타 났던 신호다. 일부 기술분석가들은 이 를 상승의 마무리 국면으로 해석한다. 물론 이 해석은 지나치게 사이클 중심 적이며, 펀더멘털·정책 변수의 영향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이 늘 따라온다.

그러나 시장의 구조적 피로감, 과도 한 낙관심리,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 이 겹쳐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랠 리의 수명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경계 심은 그래서 반드시 특정 분석가들만 의 이야기로 치부할 수 없다.

▶낙관은 위험의 전조

최근 투자심리를 보면 시장 참가자 10명 중 9명이 낙관적이다. '베어(비 관론자)' 비율은 13.5%로 7년 만의 최 저치다. 이는 지난 2018년 1월, 그리고 2021년 11월, 두 차례 주요 고점 직전의 상황과 놀라울 만큼 닮았다.

당시에도 시장은 경기가 양호하다 며 기술 혁신이 새로운 시대를 연다 는 서사 속에 과열을 이어갔다. 이후 12~24개월 동안 지수는 각각 20~30% 조정을 받았다. 이번에도 유사한 패턴 이 반복될 가능성은 크다. 다만 이번 사이클은 과거보다 연준의 정책적 개 입이 훨씬 유연하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통제 범위 내에 머물고, 고용 둔화가 점진적으로 진행

다. 즉, 2000년식 붕괴보다는 2015년형 '조정 후 회복'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 다. 시장은 과열이지만 경기 자체가 '붕 괴'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다.

▶AI 붐: 혁신과 투기의 경계

AI 산업은 2020년대의 상징이다. 자 율주행, 생성형 인공지능, 로보틱스, 헬 스케어 AI까지 거의 모든 산업이 AI와 의 연결고리를 강조하고 있다. 기업들 은 AI 프로젝트를 이유로 천문학적 규 모의 자본 지출(CapEx)을 단행했고, 이로 인해 반도체·클라우드·전력 인프 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AI 버블'이라 규 정하기도 한다. 1999년의 닷컴 버블 보다 크고, 수익은 더 적다고 경고한 다. 실제로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 는 수년간 급등했지만 대부분 아직 뚜렷한 이익 구조를 갖추지 못했다. OpenAI·Anthropic·Cohere 같은 모 델 기업조차 상업화보다 자금조달과 규제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일면적이다. AI가 '즉각적인 이익'을 내지 못한다고 해서 거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1990년 대 인터넷도 5년간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했지만, 그 기반 위에서 글로벌 경제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

AI 역시 생산성 혁신과 산업 전환의 촉매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속도 다. 현재의 투자 속도가 기술의 실제 확 산 속도를 앞서가고 있다는 점이 위험 하다. 따라서 향후 12~24개월은 기술주 전체가 아닌, 실적 기반 AI 종목만 선 별하는 냉정한 구분의 시기가 될 것이

▶빚으로만든낙관

주식시장 랠리의 또 다른 축은 레버 리지다. 2025년 9월 기준, 뉴욕증권거 래소(NYSE)의 마진 부채는 1조 1,300 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는 2021년 고점 대비 20% 이상 증가한 규모다. 더 놀라운 것은 ETF 시장의 변 화다. 현재 거래되는 주식형 ETF 중 레 버리지 상품 비중은 33%로, 2022년의 세 배 수준이다. 5배 수익을 추구하는 '초고위험 ETF'까지 등장했다.



상황 변동이 심한 요즘 시기 로스 컨버전과 보너스 어뉴이티를 적절히 활용하면 세금을 줄이면서 장기적 투자를 통한 안정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은퇴 이후 자산 효율성 높이는 전략적 접근 단기 절세보다 장기적 순자산 늘리는 설계 RMD 부담 크거나, 변동성 심한 시기 유효

심리의 이중성을 보여준다. '조금만 더 벌고 싶다'는 욕망이 '손실은 남의 일' 이라는 착각과 결합된 것이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시장이 급락할 때 유동 성을 순식간에 증발시키는 역할을 한 다는 점이다. 레버리지 ETF의 가치가 20% 하락만으로 청산될 수 있는 구조 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레버리지가 투기적이라 고 볼 수는 없다. 금리 환경이 완화되 고, 기업이익이 양호한 한 적절한 수준 의 레버리지는 자산 효율성을 높일 수 도 있다. 핵심은 규모와 분산이다. 투자 자는 '빚'이 아니라 '비율'을 관리해야

▶금리의 하락이 말하는 것

단기 국채(3개월, 6개월물) 금리가 2023년 10월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 이러한 금융공학적 상품은 투자자 다. 이는 자금 수요의 둔화, 그리고 경 다. "경기 둔화는 이미 반영되었다"는

제 성장률 하향 조정을 시사한다. 연준 은 2024년 말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하 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정책금리는 시 장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다. 통상적으 로 이런 구조는 경기 둔화 초입에서 나 타난다. 전문가들은 이를 경기하강의 시작으로 본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은 다르다. 이번 사이클의 금리 인하는 경기 위축이 아 니라 '정상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이 다. 인플레이션이 3%대 중반으로 떨어 지고, 임금 상승 압력도 완화되고 있는 만큼 연준의 완화 전환은 '침체 대응' 이 아닌 '정책 조정'의 성격이 강하다.

즉.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시장 을 지지할 여지가 있으며, 그 효과가 소 멸되기 전까지는 주식·채권 모두 일정 수준의 밸런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 반론이 힘을 얻는 이유다.

▶불확실성의 시대, 균형이 답 2025년의 시장은 '과열된 낙관'과 '정책적 완화'가 공존하는 독특한 국면 이다. 비관론은 이를 역사적 고점 직전 의 마지막 랠리로 규정하지만, 실물경 제의 회복력과 정책 대응 여지를 감안 하면 그만큼 단선적으로 보기는 어렵

투자자는 지금 극단적 비관도, 맹목 적 낙관도 피해야 한다. 시장엔 여전히 수익 기회가 존재하지만, 그 기회는 '방 어를 겸비한 선택' 위에서만 유효하다. AI와 기술혁신은 장기적 성장의 방향 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가격과 기대가 과도하다. 금과 달러는 헤지 자산으로, 채권은 금리 사이클 전환의 수혜 자산 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리스크의 속도를 조절 하는 것이다. 지금은 '벌기 위한 시기' 가 아니라 '잃지 않기 위한 구조를 만드 는 시기'다. 낙관과 공포의 파도 사이에 서 진정한 균형 감각이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켄 최 아피스 자산관리 대표





중앙일보와 함께 상쾌한 하루를 보내세요~~







"비종교인이라고 다 같진 않다"

반종교적 열성 무신론자 11% 그냥 안 믿는데 그치지 않고 교인에 신앙 바꾸라고 설파 무신론자 대부분은 중립적

'비종교인도 다 같은 비종교인이 아니 다.' 이스턴 일리노이대학교의 라이언 버지 정치학과 교수가 지난달 25일 '넌 스(nones)'로 불리는 비종교인을 네 가 지 부류로 분류한 글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버지 교수는 정치학자이면 서 종교사회학자로 비종교인 분석 연 구로 유명하다. 그는 비종교인 현상을 다루는 장기 연속 연구 '넌스 프로젝트 '에서 적극적으로 종교를 거부하고 공 개적으로 무신론을 주장하는 집단을 분석해왔다. 버즈 교수는 최근 발간한 '논스프로젝트(The Nones Project)' 시 리즈에서 세분화된 비종교인의 구도를 제시하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집단으 로 '열성 무신론자(Zealous Atheists)' 의 정의를 새롭게 제시했다.

버지 교수는 비종교인을 ▶이름만 무종교인 ▶영적이지만 비종교적인 이 들 ▶종교에서 완전히 떠난 이들 ▶열 성 무신론자 네 집단으로 구분했다.

이름만 무종교인은 종교 행사 참석 률이나 기도 빈도가 높은데도 특정 종 교에 속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들이다. 영적이지만 비종교적인 이들은 전통 종교는 거부하면서도 명상이나 에너 지, 운명 같은 뉴에이지 성향의 영성에 는 높은 관심을 보인다.



비종교인도 성격에 따라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레딧 등 온라인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을 열성 무신론자라고 규정한 연구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종교에서 떠난 이들은 신의 존재나 내 세를 믿지 않고 예배나 기도를 전혀 하 지 않는다. 종교적 활동과는 완전히 단 절된 그룹이다.

버즈 교수가 주목한 열성 무신론자 는 전체 비종교인의 약 11%에 해당하 는 소수지만 종교 비판과 탈종교 운동 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그룹이다.

버지 교수가 일반적으로 무신론자 라는 하나의 성격으로 묶여 있던 이들 을 세분하게 된 데는 계기가 있다. 연구 진이 비종교인들에게 "지난 12개월 동 안 누군가에게 종교를 떠나라고 설득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자

약 1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버지 교수는 이들 중 대부분이 열성 무신론 자'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들은 특히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토론 게시판이나 SNS에서 종교 비판적 발 언을 주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버지 교 수는 "이들은 단순히 종교를 믿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바꾸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흥미로운 점은 또 있다. 열성 무신론 자들은 종교적 활동을 완전히 끊지 않 는다. 조사에 따르면, 열성 무신론자 의 60%는 종교 행사에 전혀 참석하지

않지만 약 20%는 1년에 한 번 정도 예 배에 참석한다. 비종교인 네 그룹 중 두 번째로 높은 참석률이다.

기도의 빈도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다. 열성 무신론자의 56%는 기 도를 전혀 하지 않지만 12%는 가끔 기 도한다. 이런 경향은 열성 무신론자가 종교적 행위를 완전히 버린 비종교인 과 달리 종교와의 접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버지 교수는 네 개의 그룹에서 완전 히 종교를 떠난 이들과 열성 무신론자 의 성격이 대조적이라고 주장한다. 그 는 완전히 떠난 이들의 성격을 피로감

으로, 열성 무신론자를 투쟁심으로 묘 사하면서 둘의 차이를 동전의 양면에 비유한다. 완전히 떠난 이들은 더는 종 교 논쟁에 에너지를 쏟지 않는다.

버지 교수는 "이들은 과거에는 종교 의 의미나 신에 대해 토론했지만 이제 는 '살고 싶은 대로 살되 나만 끼워 넣 지 말라'는 태도를 보인다"고 설명한다 . 반면 열성 무신론자는 여전히 '전투 모드'다. 버지 교수는 "이들은 종교에 대해 논쟁하고 설득하며 때로는 조롱 한다. 종교와 마찰이 오히려 자신의 정 체성을 강화한다"고 분석한다.

나이에서도 차이가 분명해 열성 무 신론자는 네 그룹 중에서 가장 젊다. 18~45세가 70%를 차지하며 35세 이하 가 절반에 육박한다. 65세 이상은 12% 에 불과하다. 반면 완전히 떠난 이들은 고령층 비중이 높아서 65세 이상이 3분 의 1를 넘는다.

버지 교수는 이를 "비종교인의 세대 간 양상 차이"라고 분석한다. "완전히 떠난 이들이 오랜 종교 논쟁에 지쳐버 린 세대라면, 열성 무신론자는 여전히 세상을 바꾸려는 열정을 가진 젊은 세 대다." 버지 교수는 "이들은 목소리가 가장 크지만 전체 미국인의 약 3%"라 며 "실제로 비종교인 대부분은 종교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버지 교수는 결론적으로 "목소리가 크다고 3%가 전체 비종교인을 대표하 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많은 비종교인 들은 종교를 싫어하기보다 중립적이거 나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안유회 객원기자

사물 본질 직관해 학문 토대 마련



선입견 등 버리고 판단중지 순수의식 상태로 바라봐야 칸트와 달리 "본질 볼 수 있다"

실존주의는 인간의 본질이란 무엇이 냐는 물음을 던지는데, 사르트르는 _ 구들 했으나, 모두 잭으로 줄간하지 그의 저서인 '닫힌 방'에서 '응시'에 않아서 그가 집필한 수많은 원고(책 로 직관해야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 대해서 얘기한다. 그작품속에는성 인남자한명과성인여자두명이출 시를뚫고벨기에의 '루뱅대학'에 숨 구도 없는 조그만 방에 갇히게 된.. 그들은 서로의 비밀을 털어놓자, 서 이라고 단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로를 응시하기 시작했다. 인간이 인 있다. 아직도 연구 중이기 때문이다. 간을 응시하는 것처럼 지옥이 없다고 그는 과학 실증주의에 빠진 인문 사

사르트르는 작품 속에서 하소연한 다. 지옥이 무서운 것은 항상 불이 켜 져 있고, 자기를 응시하는 것이라고 사르트르는 말한다.

인간의 응시와 관련된 것으로 '현 상학'이 있다. 현상학을 처음 제시한 사람은 에드문트 후설이다. 그는 유 대인으로서 현상학에 관해서 많은 연 100권 정도의 분량)를 나치 독일의 감 기게 된다. 아직도 그의 철학을 무엇

회를 구하고자 '현상학'이란 학문을 주창한다. 현상학은 사물의 본질을 직관하여 그것을 토대로 모든 학문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후설은 모든 자연적 태도(현상에 보이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주시하 는 것, 선입견 또는 주관적 태도)를 버 리고 '판단중지(epoche)'를 통하여 사물을 주시(노에시스)하면 본질화 된 사물(노에마)로 되는데 이것을 위 해서 형상적 태도를 통한 자연스러운 변경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 에마가 형성되면 그것을 뇌로 보내서

기억시키고 필요시, 그 사물을 다시 보면 본질을 바로볼 수 있다는 '환원 '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마치 칸트의 관념론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칸트는 본질을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 후 설은 본질을 볼 수 있다고 한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여기서 환원되는 사 물의본질이사람마다모두다르게나 타난다는 점이 모순처럼 보인다. 객 관화가 빠진 상태서 어떻게 관념화가 가능한지 의심스러운 것이다.

사르트르는 '순수의식'은 무(無) 므로 새로운 내용의 의식으로 언제든 다고 했다. 즉, 순수의식이 된상태로 지 채움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여 기에 대해 메를로퐁티는 비판한다. 인간의 의식은 항상 무언가로 채워진 다는 것이다. 즉, 죽을 때조차도 인 간의 표정을 보면, 그 순간도 뭔가를 의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것

을 '몸의 현상학' 또는 '지각의 현상 학'이라고 부른다. 즉, 응시는 눈으 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감각 을 모두 동원한다는 것이다. 예술작 품을 보면서 시각뿐만 아니라 촉각으 로도 느낀다는 것이다. 가령, 셸링이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 무의식 속에서 본질의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것과도 유사하다.

플라톤은 본질을 보는 방법으로, 참지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본질'을 봐야 하는데, 이것은 '변증법'을 사 증법을 사용하여 본질을 볼 수 있다 고 주장했는데, 플라톤의 영향을 받 은 것이다. 헤겔은 정반합(正反合) 개 념으로 변증법을 정형화했다. 만물 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변화의 원인 을 자기 부정 즉, 모순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2026 川口케어 플랜 기업 및 변경

ONE STOP FINANCIAL SERVICES

UNI와 함께 하세요!!

최적의 메디케어 플랜을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메디케어 플랜 가입 및 변경, 전문가의 도움으로 더 쉽게! 상담에서 신청까지 무료! 라이센스 에이전트가 도와드립니다.



문로리 703-895-7648



이린다 443-515-8522



안은신 804-464-3662



이은경 571-303-9060



장미원 703-486-6082



오경자 443-690-4290

02 생명보험 03 메디케어 04 어뉴이티 05 롱텀케어

올바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선 올바른 교육이 필요합니다. UNI가 원스탑 재정 서비스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VA 페어팩스

11/1 (토요일@10am) 11/13 (목요일@7pm)

MD 엘리콧시티

10/8, 11/5, 12/10 (수요일@10am) 10/18, 11/22 (토요일@10am)



VA (Fairfax)

703-865-8788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MD (Ellicott City)

410-995-8074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VA (Richmond)

804-464-3662

14321 Winter Breeze Dr. Suite15 Midlothian, VA 23113

부동산 가이드



상업용 대출 절차와 핵심 기준

Newmark Korea Advisory Group 대표

신용뿐만 아니라 안정적 수익도 중시 대출 후 수익·재무 보고 요구할 수도

상업용 부동산을 구입하실 때, 대부분의 투 자자분들은 대출을 함께 활용하십니다. 하지 만 주택담보대출과는 달리, 상업용 대출은 훨씬 더 복잡한 절차와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신용만을 보는 것 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 자체가 안정적인 수 익을 낼 수 있는가를 은행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 전에는 최근 2~3년치의 세금보고서, 임대현황표(Rent Roll), 운영비 내역,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해두셔야 합 니다. 또한 다운페이 자금의 출처도 투명하 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자금이 외부에서 유입될 경우 별도 확인 절차가 따를 수 있습 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은행이 신청자의 재무 상태와 투자 구조를 검토하고, 사전승인서 (Pre-Approval Letter)를 발급합니다. 이 서 류는 셀러에게 구매자의 자금 조달 능력을 보여주는 신뢰 도구가 되며, 거래 협상 과정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본격적인 대출 심사(Underwriting)가 시작됩니다. 은행은 감정평가(Appraisal)를 통해 부동산의 시 장가치를 재확인하고, 환경 리포트(Phase I ESA)를 통해 토지의 오염 가능성을 확인 하 며, 필요할 경우 건물 상태 보고서도 요청합 니다.

DSCR(부채상환능력비율)과 LTV(담보가치

최근 퇴직연금 수익률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

고 있다. 좋은 상품이라도 생애주기나 은퇴 목표

에 맞지 않으면 기대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 퇴직

연금의 목적은 단기 수익이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

자금 마련이다. 핵심은 상품이 아니라 운용 전략

에 있다.

대비 대출비율)입니다.

▶DSCR(Debt Service Coverage Ratio) 은 순영업소득이 원리금 상환액의 몇 배인지 보여주는 지표로, 보통 1.20 이상이면 안정적 이라 평가받습니다.

▶LTV(Loan to Value)는 대출금이 감 정가의 몇 %인지 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70% 이하가 선호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은행은 융자 확정 레터 (Loan Commitment)를 발행하며, 여기에는 금리, 대출 만기, 상환방식, 수수료 등의 조건 이 명시됩니다.

이후 소유권, 세금, 보험 조건 등을 검토하 고, 모든 서류에 서명이 완료되면 대출금이 집행되면서 거래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상업용 대출은 거래 종결의 끝이 아닙니다.

대출 실행 후에도 은행은 매년 부동산의 임대 현황, 수익, 재무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 으며, 수익이 감소하거나 공실이 늘어날 경우 추가 서류 제출, 자본금 보완, 재검토 등의 요 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단순히 돈을 빌리 는 과정이 아니라, 부동산이 '수익을 창출하 는 사업체'로서 은행을 설득하는 절차입니 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는 다소 복잡하고 부 담스러울 수 있지만,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 여기서 특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바로 를 미리 준비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신다 면 훨씬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이야기



해리 정 한바다 부동산 대표 투자 매매와 관리에 AI 활용

소비패턴과 투자율 비교까지 척척 문서 작성 등 자동화해 시간도 절약

주식시장에서는 지금이 'AI 버블의 초입기' 라는 말이 나온다. 그만큼 인공지능이 산업 전반을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는 뜻이다. 상업 용 부동산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제는 개인 투자자도 AI를 활용해 매물 탐색부터 투자 분 석, 그리고 보유 후 관리까지 훨씬 정교한 의 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상업용 부동산의 전통적인 리스팅 플랫폼 으로는 Costar, LoopNet, Crexi 등이 잘 알 려져 있다. 여기에 생성형 AI의 대표주자인 ChatGPT와 LoopNet 플러그인, 혹은 Reonomy와 같은 데이터 플랫폼을 결합하면 그 효과는 배가된다. 예를 들어 Reonomy의 자 산 데이터와 Crexi 또는 Costar의 리스팅 정 보를 연결하면 수십만 건의 상업용 매물 정보 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여, 시세 변동, 예 상 투자수익률, 인근 공실률, 인구·소득 추세 등을 시각화된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AI는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 지역별 인구 증가율과 소비 패턴의 상관관계 를 분석하거나 최근 거래된 유사 매물의 투자 율을 비교하는 등 복합적인 인사이트를 도출 해낸다. 또한 오프마켓의 소유주 연락처나 매 입가능성을 예측하는 기능도활용할 수 있다.

고가의 툴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무료로 제공되는 ChatGPT만으로도 투자 판단에 유 용한 분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디애 나폴리스의 최근 5년간 인구 증가율과 소득 수준 변화, 신규 리테일 개발 현황을 요약해 달라"고 요청하면, AI가 공공데이터와 통계

사이트 정보를 종합해 간단한 리포트를 작성 해준다.

여기에 투자 대상 매물의 마케팅 패키지를 업로드 하면, AI가 자동으로 오퍼가격과 다 운페이에 따른 투자율 계산, 테넌트 신용 분 석, 지역 인구 구조 및 주요 산업 동향까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정리해 준다. 이렇게 AI 가 제공하는 분석은 단순한 데이터 나열이 아 니라, 투자자가 보다 입체적이고 객관적인 판 단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준다.

보유 단계에서도 AI는 직접 부동산을 관리 하는 오너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예 를 들어 AppFolio나 Buildium 같은 관리 플 랫폼은 AI를 활용해 임대료 연체 가능성을 예측하고, 정기 공지 메일을 자동 발송하며, 테넌트의 커뮤니케이션 패턴을 분석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시간대에 메시지를 보 낸다.

또한 반복적인 테넌트 통지문, 리스 갱신 안내, 관리 보고서 등 문서작성을 자동화하 여 관리 효율을 크게 높인다. ChatGPT와 같 은 생성 형 AI를 이용하면 테넌트 분쟁 상황 에서 중재 방안을 제시 받거나, 리스 계약서 를 업로드해 특정 조항의 해석과 대응 방향을 빠르게 확인할 수도 있다.

이런 기능은 과거 전문 매니저나 변호사의 도움 없이 처리하기 어려웠던 영역을 훨씬 쉽 게 만들어 준다. 결국 AI는 상업용 부동산 투 자자에게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현실로 만들어 준다.

김순실의 마켓 나우

퇴직연금 수익률, 상품보다 전략이 중요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세 가지로 나뉜다. DB형은 회사가 운용과 지급을 책임지는 구조로, 근로자 는 정해진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는다. 반면 DC 형과 IRP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수익을 내야 한다. 따라서 원리금 보장형 상품만 고집하면 장 기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보전'이 아니라 '운용'의 개념임을 기억하자. 위험과 수익의 균형을 고려해 분산투 자와 장기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블랙록의 래리 핑크 CEO는 "고령화 사회에서 연금 준비 는 더는 선택이 아닌 긴급 과 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 국의 대표 제도인 401(k)는 세제 혜택과 고용주 매칭 제 도(회사가 근로자 납입액에 일정 비율로 추가 지원)를 통

해 근로자가 장기 투자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연금 운용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일반 투자와 달리, 은퇴 후 안정적 소득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



자여야 한다. 대표적인 장기 운용 상품이 목표시점펀드 패스'(은퇴 시점에 가까워질 고 있다. 수록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 는 자산배분 전략)에 따라 자 산을 자동 조정한다. 은퇴 시 기에 맞춰 자산을 분산하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함으로써 위험을 줄이면서 단계별 목표 수익을 추구한다.

금융시장에 익숙하고 적극적 운용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상장지수펀드(ETF)도 좋은 대안이 다. ETF는 주식처럼 쉽게 사고팔 수 있고, 일반 펀드보다 수수료가 낮다. 장기투자용 ETF를 선 택해 자주 거래하기 어렵다면 적립식 자동매수 (정기적 자동 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로보어드바이저(AI 알고리즘 기반 자동투자 서 비스)가 퍼지며, 투자자의 목표와 성향에 맞춘 (TDF)다. TDF는 '글라이드 ETF 포트폴리오를 자동 운용하는 서비스도 늘

> 또한 최근 주목받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 제도)은 가입자가 별도 상품을 선택하지 않아도 전문가가 구성한 포트폴리오로 자동 운용해주는 제도다. 투자 경험이 부족한 가입자에게 특히 유 용하다. 결국 연금자산 운용의 핵심은 지속 가능 한 분산투자와 자동화된 관리다.

> >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운용본부 본부장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MARYLAND

Ellicott City

\$749,000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슡ℝ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UNDER CONTRACT

Ellicott City

\$540,000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싱글홈

Ellicott City

\$820,000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싱글홈

Hanover

\$548,000

방4, 화2/1

타운홈

예쁘게 단장 해 UNDERCONTRACT

Pasadena \$675,000

방4, 화3.5, 차고2 **싱글홈** 방5, 화5

방2, 화2 **타운홈**



\$595,000 타운홈

방3, 화2/2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Jinny19619@yahoo.com

200 Gaithersburg 월 \$3,300

타운홈

Jessup 월 \$2,800

방3, 화2.2, 차고2 **싱글홈**

Ellicott City 월 \$2,750

Pasadena 월 \$2,600

Columbia 월 \$1,500 방2, 화2

방4, 화2 타운홈

방3,화3 타운홈

방3, 화2.2 | 타운홈

Hanover

\$450,000

방2, 화2.5, 차고1





jglconstruction.com



8,000sf의 완벽한 휴식처, 각종행사, 가족, 교회 단체 모임 센터빌에서 40분 전화예약 703-485-5483 (138 Wooded Lane, Front Royal, VA)



JGL 社會包从

JGL 건설회사는 VA/MD/DC 컨트렉터 클래스 A 라이센스 및 시공 보험에 가입된 전문 건설회사입니다.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실내공사 INTERIOR 실외공사 EXTERIOR ★ 마루 ★ LVP, Hardwood 스페셜 프로모션 1,000sq 이상 \$500 할인 ★ 창문 ★
 스페셜 프로모션
 창문 20개 이상
 \$500 할인

3개월 할부 무이자



마루시공 Hardwood, Carpets



주방 리모델링 Cabinet, Sink, Faucets



욕실 리모델링 Bathroom, Tile



덱 / 사이딩 Deck / Siding



| <mark>창문</mark> | Windows



지붕 싱글, 플랫

강풍 / 우박 피해 지붕 보험 상담 환영

믿을 수 있는 자재 시공과 건설능력으로 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보증기간!

Exterior 문의: 703.628.5216 / 703.474.3112

Interior 문의: 703,559,4213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오타니 MVP, 야마모토 사이영상 도전

MLB닷컴, 최종 후보 공개 야구기자협회 투표로 선정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월드시리즈(WS) 우승을 합작한 일본 인 듀오 오타니 쇼헤이와 야마모토 요 시노부(이상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개인상 수상에 도전한다.

MLB닷컴은 3일 미국야구기자협회 (BBWAA) 투표로 선정하는 최우수 선수(MVP), 사이영상, 신인상, 감독상 최종 후보 3명씩을 공개했다.

내셔널리그(NL) MVP 후보는 오타 니, 카일 슈워버(필라델피아 필리스), 후안소토(뉴욕메츠)다.

MLB닷컴은 "오타니가 3년 연속이 자, 통산 4번째 MVP 등극을 노린다" 며 "현재까지 MVP를 4회 수상한 건. 배리 본즈 단 한 명뿐"이라고 전했다.

오타니는 LA 에인절스 소속이던 2021년과 2023년에 투타를 겸업해 아 메리칸리그(AL) MVP에 올랐다.

지난해에는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지명 타자로만 뛰고도 NL MVP에 뽑



지난 3일 LA 다운타운에서 열린 다저스 월드시리즈 우승 퍼레이드에 참석한 쇼헤이 오타니(왼쪽)와 요시노부 야마모토

[Kirby Lee-Imagn Images/로이터]

혔다. 오타니는 팔꿈치와 어깨 재활을 마치고 올해 투타 겸업을 재개했다. 타 자로 타율 0.282, 55홈런, 20도루, 102 타점, 146득점, OPS(출루율+장타율) 1.014를 기록한 오타니는 투수로는 14

경기에 등판해 1승 1패, 평균자책점 2.87을 올렸다.

슈워버는 56홈런으로 NL 홈런 1위, 132타점으로 MLB 전체 1위를 차지했 다. 소토는 38도루로 NL 공동 1위에

오르고, 개인 최다인 43홈런을 쳤다.

두 선수도 뛰어난 성적을 올렸지만, 표심은 오타니를 향하고 있다. 에런 저 지(뉴욕 양키스), 칼 롤리(시애틀 매리 너스), 호세 라미레스(클리블랜드 가디 언스)는 AL MVP 최종 후보에 올랐다.

WS MVP 야마모토는 NL 사이영 상 후보에 올랐다. 야마모토는 올해 정 규시즌에서 30경기 선발 등판해 173 %이닝을 던져 12승 8패, 평균자책점 2.49, 탈삼진 201개를 기록했다.

MLB닷컴은 "일본에서 사와무라상 을 세 번 수상한 야마모토가 MLB 사 이영상 첫 수상에 도전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쟁자가 만만치 않다.

지난해 신인왕을 수상한 파이어볼 러 폴스킨스(피츠버그 파이리츠)는 올 해 평균자책점 1.97을 찍었다.

약팀에서도 10승(10패)을 채우고, 삼 진 216개를 잡았다. 13승 5패, 평균자책 점 2.50, 212탈삼진을 올린 크리스토퍼 산체스(필라델피아)도 NL 사이영상 후보다.

태릭 스쿠벌(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은 2년 연속 AL 사이영상 수상을 노린 다.

개릿 크로셰(보스턴 레드삭스), 헌터 브라운(휴스턴 애스트로스)이 스쿠벌 과 함께 AL 사이영상 최종 후보로 선 정됐다.

세계'스포츠 수도' 꿈꾸는 LA

다저스 이어 타 종목도 강세 손흥민의 LAFC 4강 노려 NBA, 레이커스도 우승권

LA가 미국의 '스포츠 수도'를 꿈꾼다 . 최근 몇 년간 동부의 유서 깊은 도시 보스턴이 미국의 '스포츠 상징 도시' 였다. 최고 인기 종목인 미국프로풋볼 (NFL)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수퍼 보울 3회), 메이저리그(MLB) 보스턴 레드삭스(월드시리즈 2회), 미국프로 농구(NBA) 보스턴 셀틱스(파이널 1 회) 등 보스턴 연고 프로스포츠 구단 이 2010년대에 잇따라 챔피언에 올랐다 도전장을 냈다. 지난 1일 LA 다저스가 다. LAFC는 지난 3일 오스틴FC를 꺾 랐다. LAFC의 마지막 우승은 2022년 2년 연속 MLB 월드시리즈(WS)에서 고 MLS컵 플레이오프(PO) 서부 콘 이다. 우승한 데 이어 축구·농구·풋볼 등 다 퍼런스 8강에 진출했다. 정규리그 3위 른 종목까지 강세를 보인다. LA는 올 LAFC는 2위 밴쿠버 화이트캡스와 4 바람도 뜨겁다. 2025~26시즌 초반 레 시즌 여러 종목 동시 석권을 노린다.



LAFC는 손흥민이 동료와 함께 LA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우승에 환호하는 모습을 SNS에 올렸다. LA 레이커스는 다저스 선수들이 레이커스 모자를 쓴 모습을 게시했다.

올해만큼은 LA가 보스턴의 아성에 팀인 메이저리그사커(MLS) LAFC 강행을 다툰다. LAFC는 시즌 초반 강 다저스의 바통을 이어받아 우승을 팀이 아니었다. 하지만 시즌 중반인 지

며 단숨에 리그 정상급 전력으로 떠올

NBA LA 레이커스와 LA 클리퍼스 이커스(6승2패)는 서부 콘퍼런스(총 15 개팀) 3위, 같은 리그 클리퍼스(3승2

김하성, FA 재도전 ··· 1600만불+ 노린다

애틀랜타 1년 계약 파기권 행사 올 타율 0.253, 수술 후 회복 대어급 유격수 부족 몸값 기대

메이저리그(MLB)에서 뛰는 김하성 (30·애틀랜타 브레이브스·사진)이 2년 연속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 뛰어 들었다.

MLB닷컴은 3일 "김하성이 소속팀 애틀랜타와의 잔여 1년 계약을 포기하 고 옵트 아웃(계약 파기권)을 행사한 다"며 "내년 보장받은 연봉 1600만 달 러를 포기하고 다시 한번 FA 시장을 노크한다"고 전했다.

김하성은 지난 2021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 입단하며 MLB에 진출했

했다. 대신 2025시 즌을 마친 뒤 옵트 아웃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

탬파베이 유니폼 을 입고 올 시즌을

시작한 김하성은 도중에 애틀랜타로 이적했다. 올해 성적은 타율 0.234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24경기 에서 타율 0.214에 그친 탬파베이 시절 과 달리 애틀랜타로 옮긴 뒤에는 24경 기에서 타율 0.253, 5홈런 17타점 6도 루로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다.

다소 부족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FA 에 다시 도전하기로 결심한 건 올겨울 이적 시장에 '대어급' 유격수가 보이 다. 2024시즌 종료 후 1년 700만 달러 지 않아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 의 남은 계약을 포기하고 처음 FA 시 을 거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MLB 트 장의 문을 두드렸다. 이후 탬파베이 레 레이드 루머스는 "올겨울 굵직한 센터 이스와 2년 2900만 달러에 사인했다. 내야수(2루수·유격수)가 부족한 만큼 오른쪽 어깨를 다쳐 수술을 받고 재활 김하성은 몸값이 올라갈 것"이라고 전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sell yourself; 자신을 알리다

Troy is talking to his wife Marie. (트로이가 아내 마리와 얘기하고 있다.)

Marie: Ever since John decided to become an independent consultant he's been doing extremely

마리: 존은 컨설턴트로 독립하더니 펄펄 날아.
Troy: I know. He told me yesterday that he's almost more business than he can handle.

트로이: 알아. 어제 그러는데 거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즈니스가 잘 된데.

Marie: How does he do it?

마리: 어떻게 그렇게 잘 한데?

Troy: Well, he's very good and he gets around a lot. 트로이: 글쎄 워낙 잘 하는데다 열심히 뛰잖아.

Marie: That's true. I've seen him at every reception and conference that I've been to.

마리: 맞아. 만찬이나 회의에 가보면 항상 있어. Troy: And he's always there handing out his business

트로이: 그리고 항상 명함을 건네고.

Marie: I know he talks to anyone who is a potential

마리: 누구라도 잠재 고객에게는 말을 걸고.

Troy: He sells himself very well,

트로이: 자기 홍보를 아주 잘 해.

Marie: Don't you wish you could do that? 마리: 당신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지 않아?

Troy: Not really, I'm happy with the job I have. 트로이: 꼭 그런 건 아니야. 지금하는 일로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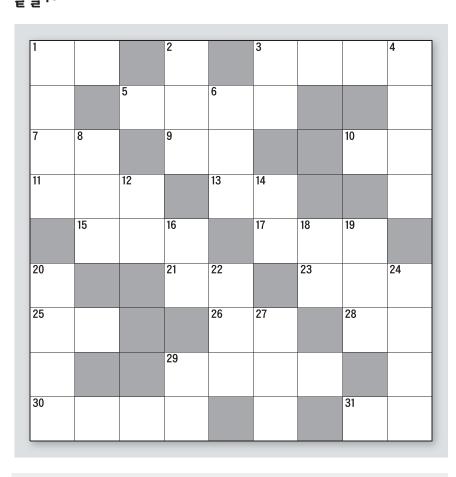
해.

기억할만한 표현

- ▶ more than one can handle: 감당할수없는. "Studying physics is more than I can handle." (물 리학 공부는 못따라 가겠어.)
- ▶ get around: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He's a journalist so he really gets around." (그 사람은 기자여서 정말 많이 돌아다녀.)

<u></u> 낟말퀴즈



가로열쇠

(1)술좌석에서 잔을 들어 축하하거나 행운을 빌 죠. 일간스포츠 낱말퀴즈 애호가 님의 건강과 행 운을 빌며 ~ (3)다른 사람의 목소리나 새, 짐승 따위의 소리를 흉내 내는 일. ㅁㅁ모ㅁ (5)몹시 기이하고 묘함 (7)악한 길로 유혹하는 나쁜 귀신 (9) 등잔, 초 따위에 불을 붙이는 실오라기나 헝 겊 (10)점잖고 교양이 있으며 예의 바른 남자.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 (11)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 수한 별. 신분이 높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모 여 있는 것 (13)어떤 지방의 이름난 사물. 한 지 방의 특산물. 방태산 자연 휴양림의 ~인 계단 폭 포는 겨울에 얼어붙은 모습도 예쁘다 (15)폭약 이 터지도록 불을 붙이는 심지. 사건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 (17)조롱박이나 둥근 박을 반 으로 쪼개어 만든 작은 바가지 (21)끼니때 밥에 곁들여 조금 술을 마심 (23)통무를 소금물에 담 가 익힌 무김치 (25)오는 사람을 나가서 맞이함 (26)선전이나 광고의 글이 담긴 종이쪽 (28)말 을 탄 무사 (29)어진 사람은 남에게 덕을 베풂으 로써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기에 세상에 적이 없 음 (30)쇠귀에 경 읽기.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 주어도 알아듣지 못함 (31)허리가 잘록한 국악 타악기

세로열쇠

(1)오르간, 피아노, 쳄발로… (2)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마 음 (3)조상의 산소를 찾아가서 돌봄. 설, 추석, 한식에 한다 (4)사사로운 이익과 욕심 (6)죽은 이의 덕이나 공로 따위를 새겨 넣은 글 (8)우리 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섬. 네덜란드의 하 멜 일행이 표류하여 도착한 곳으로 유명하다 (12)일 따위가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답답하고 애가 탐. 휴가를 못 가서 ~가 나다 (14)물건을 맡긴 것에 대하여 증거로 삼는 표지 (16)물건을 얹어 두기 위하여 까치발을 받쳐서 벽에 달아 놓 은 긴 널빤지 (18)어떤 일에 주장이 되어 움직임 (19)이마로 무엇을 세게 받아치는 짓 (20)대말 을 타고 놀던 벗. 어릴 때부터 같이 놀며 자란 벗 (22)물이나 술 따위를 데우거나 담아서 따르 게 만든 그릇 (24)아름다운 말로 듣기 좋게 꾸민 글귀. □□여□ (27)무로 담근 일본식 짠지 (29) 조선 시대, 통행금지를 알리기 위해 밤마다 치 던종

스도쿠

논	상		ľΥ		730	눌	lo	유
‡o		첝	占	北	면			正
łΥ	∠		타	环			중	10
0	ĺŤ	왕		주	护			주
	神	주	丑		셤	횬	포	
여			롬	品		40	ቱ	2
łΥ	Γ̈́			ľΥ	맏		中	후
l2			팜	푬	∠	∠		币
łΥ	굼	대	엄		ᅙ		Ня	R

2	4					5		
9		5						
			9		7	2	8	
6		3						5
	1			6	8			
	9	2		7				
8	2			9		6		3
			5	3	2	8		9
3		9		4	6		2	

~	٠,
12	1
1.	- 1

자료제공=올드독 (www.gobook2.com)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 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 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 어 넣어야 합니다.

L	S	L	9	r	8	6	S	3
6	Þ	8	Z	3	S	L	9	L
ε	S	9	L.	6	7	Þ	Z	8
8	9	ı	S	7	3	2	6	Þ
7	3	6	8	9	Þ	L	L	S
S	L	P	6	S	ı	3	8	9
tr	8	2	L	S	6	9	ε	L
9	,L	ε	Þ	8	Z	s	L	6
L	6	s	3	L	9	8	Þ	z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위싱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2024년 **7월 1일** 부터 조정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1102	O O E T TICOM		
성명 (Name)	영문(Eng)	한글(Kor)		
주소 (Address)				
연락처	Home			
(Phone #)	Cell			
구독 료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 Bill 🗌 Credit Card 🗌		
(Subscription Fee)	12 26 9170	Pay to the Order of : The Korea Daily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Master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	o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당	경 (sign) :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같은 부동산 비키긴

집 팔려니 고민되시나요?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안 쓰시게 하여 제대로 팔아 드립니다. 집 수긴 이쁘게 해서 빨긴 팔아 드립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약속 드립니다.

집人실 바이어들은 때를 잘 잡아야 미리 계획을 세우네요. 투자용 주택을 장만해 노후 은퇴 자금으로 활용 하실 분들은 연락주네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 상담 해드립니다.

매릴랜드, 디씨 집 관리 힘드시죠. 임대면허증, 카운티 인스팩션, 래드 인스팩션 다 관리해드립니다. 세입자와의 분쟁 해결해드립니다. 임대주택관리 17년 경력의 노하우!

RENT

싱글 홈, 스프링필드 (애난데일 부근) 방3, 화2, 즉시 입주

\$3,600

아파트, 디씨 NW 하워드 대학부근 아파트 방1,화1 \$1600

\$1,600

급매 페어팩스에서 가장싼 타운하우스 챈틸리 as Is 급매

\$300,000 (일대 \$1,800)

힘든 세입자나, 밀린 랜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전화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u>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u>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MARYLAND • VIRGINIA • TIDEWATER • RICHMOND

2026 메디케어 등록안내

메디케어 플랜 변경기간 2025년10월 15일 ~ 12월 7일

생명보험, 장기 간호보험, 자동차, 주택, 빌딩, 사업체보험도 비교해보세요.

상담 예약 703-973-5900

애난데일 지점

7003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센터빌 지점

14631 Route 29, #214,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지점

3277 Pine Orchard Ln., #2 Ellicott City, MD 21042







오향제 703-973-5900



Jenny Oh 703-642-0305



Elizabeth Kim 703-642-7578



Jennifer Chung 800-232-5014



Melissa Kang 410-216-1553

매주 토요일 무료상담합니다 (예약에 한함)

매주 토요일

엘리콧시티 지점

9AM~4PM

3277 Pine Orchard Ln., #2, Ellicott City, MD 21042

27년의 경험과 실력

7003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Fairfax Richmond Ellicott City Tidewater/Newport (703) 642-0305 (804) 767-3714 (410) 216-1553 (757) 941-7216

Tidewater/Newport News



함께 성장할 회사 임원(Director)을 찾습니다.

미국 FDA에서 정식으로 판매 허가를 받은 제품과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미국 전역에 사업을 런칭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회사 임원(Director)으로 참여하여 회사의 성장과 베네핏을 함께 나눌 비전과 열정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거나, 문자로 연락 주시면 편리한 시간에 미팅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을 환영합니다

- 미래를 준비하며 안정적이면서도 성장 잠재력이 큰 일을 찾는 분
- 미국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전환점을 만들고자 하는 분
- ●역량에 따라 무한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기회를 원하시는 분 ●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향, 성실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한 분
-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찾고 계신 분
- ●나이, 성별, 이중언어 여부 무관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 가능자는 추가 기회가 주어집니다.
- ●본인의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 애난데일, VA (P & A USA Inc) mydexa21@gmail.com / 571-668-0805 (문자요망)



루미나 에스테틱 스튜디오 (애난데일 본사)에서 수가링 왁싱배우실 분을 모집합니다.

- •자격증 소지 강사가 직접 지도
- •한달 완성
- •왁싱 제품도 판매
-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도 해드립니다.

1 240-205-4949

파리 바게뜨 베데스타 🜷 Paris Baguette Bethesda

경험있는 **제빵사**, 케이크 데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충족을 걸으땐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입니다"

Home Improvement

에서 함께 일하실 윈도우·도어 경력자 구함 합법 신분자



703.944.8433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대우 보장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703-225-5500 hr@worldbankcard.net

SD Mechanical 테크니션 직원 모집

대형 슈퍼마켓 냉장 · 냉동

서비스 & 설치 전문 회사

유경험자 또는 관심 있으신 분

서비스 지역 VA - MD - DC

703,447,4683

sdmechanical.office@gmail.com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Realty 企图

571-239-6054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마케팅 세일즈 직원 모집

- 영어/한국어 가능
- 출장 업무 필수
- 운전 경력 풍부하신 분
-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 분
-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301,468,8949

www.onnaturalusa.com

П

Korean BBQ & Hot Pot 게이더스버그, MD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sf 규모 저렴한 렌트 매매가격 Only \$280,000

최근에 새로 지어서 리모델링 비용절감

240-988-6868

확실한 순익보장 델리

DC SW 매매가 32만불 (cash only)

- 연간 수익 15만불이상 (주매상 만불)
- ●수월한 운영 (키오스크 시스템)
- 저렴한 렌트비 (\$2700/월) ●오랜 경험의 믿을만한 직원 2명
- ●주 5일 (6am ~ 3pm)
- 공실위험 없는 건물

703,300,7207(SILLE) 관심있는 분만 연락주세요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Universal, Inc. 히팅·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 Chantilly, VA 지역
- ◎ 이중언어 필수
- ◎ 근무시간 조정 가능 (풀타임)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성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11월 6일 목요일

구인 / 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 바랍니다.)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워싱턴 베다니 장로교회(게이더스버그소 재)에서 주일1부예배를 섬겨주실 반주자 한 분을모십니다.

-예배시간:주일1부예배오전8시(연습시 간오전 7시 20분 및 예배)*일년에 두차례 있 는특별새벽기도회때 이틀간 반주하셔야함 -지원자격: 세례교인으로 교회 반주에 은사 와사명감이 있는분(성가 및 복음성가) -제출서류:이력서 및 신앙고백이 담긴 간단 한 자기 소개서

-제출처: BPC.Music.Dept@gmail.com -제출기한:청빙시까지

-사례비:교회내규에따름(추후통보,혹시 궁금하신분들께서는 문의 바랍니다) -문의사항:이민형장로:216-870-9234 이메일: leeminhyung7896@gmail.com 김요한목사: 301-215-0065 이메일: shalom198484@gmail.com -교회주소:1201 Quince Orchard Blvd. Gaithersburg, MD 20878

TEL:301-670-1200 http://bethanyusa.org/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직원 모집 마케팅세일즈분야, 영어/한국어가능 출장업무필수,운전경력풍부하신분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분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문의: 301-468-8949

콜롬비아 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운전 기사(옴니 거주 환영)

주방보조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에이젼트구함,사무실제공,유/무경 험자가능

▶703-598-3316, 703-862-5395

H-Mart 메릴랜드직원모집 모집부서:인사,자산,영업,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병가/휴가, 보험등 자격요권:합법적근무조건소유자 지원방법:https://www.hmart.com/ about-us/careers/job-openings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젼트에 서함께일하실이중언어(영어또는스패니 쉬)가능한유,무경험자구합니다.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문의전화: 201-554-6047

메릴랜드주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셔 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스폰가능/월요일-금요일정규직

& 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 야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 com으로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주방보조(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직원모집:운전기사/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조건의연봉과베네핏 -유급휴일과유급병가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443-828-7777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 지사약간명, 리셉셔니스트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세탁소/이미용/기타

어큐라 MDX 2012년 134,000 마일리지 타임벨트&배터리교체,그레이색상, 굿컨디션

703-909-9377

슈가링왁싱배우실분모집합니다.(애난데 일루미나에스테틱스튜디오) 자격증소지강사가직접지도, 한달완성, 왁싱 제품 판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도 해드립니다.

240-205-4949

최고급등산장비 팝니다. 아래 번호로 메세지 남기시면 바로 전화드 리겠습니다. 703-869-5919

PG 카운티 리쿼스토어 라러리스탁하실분 2-9pm 일하실분구함(금,토포함) 301-336-2500

메릴랜드라이센스 소지하신마사지세라피 스트구합니다. 240-232-5989

홈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윈도 우,도어경력자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에 한함

토요 핸디맨 (전기, 목수, 타일, 배관, 창문, 마루, 페인트)

443-994-3415 (전화 메세지 주세요)

엘리콧시티 혜반 한국 식당에서 홀 서버 하실

▶443-420-3096

703-944-8433

영어가능한델리매니저구합니다. DCSW(월-금,6am-3pm) 703-300-7207 (문자)

파리바게뜨 베데스다에서 경험있는 제빵사 나케익데코분들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비숙련 영주권프로그램 변호사가운영. 널싱홈. 나이, 학력, 경력, 성 별무관,직계가족도영주권혜택 웹사이트:useb3.com 문의 이메일:admin@eb3recruit.com 전화: 571-546-8683

싱글/타운방렌트

조용/교통 편리한위튼도서관,한아름, 메트 로근처싱글홈 방하나 렌트 아파트식, 뒷문별도, 인터넷, 직장인환영

메릴랜드저먼타운싱글홈 2층방렌트 유포, 직장인, 잠만주무실분\$700

240-393-3615 (문자요망)

301-655-3248

301-533-1438

443-797-7293

301-646-3127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홈 방렌트 합니다. 욕실, 주방, 가구, 인터넷 완비

메릴랜드 저먼타운 타운하우스 전체 렌트 방3,화3.5,10월1일부터입주가능 301-219-6030 (문자요망)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반지하 전체 렌트 방2,부엌,욕실,세탁실,출입문별도,롯데에 서 15분거리

실버스프링 루트 200,95,495 근처, 싱글홈 방하나 렌트 합니다. 301-962-0728 / 240-997-3168

메릴랜드그린벨트지역,조용하고교통편리 타운하운스 방하나 렌트, 즉시 입주 가능, 방세 저렴 301-379-9660

메릴랜드실버스프링싱글홈 1층 전체 렌트, 방 2, 화장실 1, 주방, 세탁기, 건조기, 출입문 별도, 교통 편리, 즉시 입주 가능

사업체 매매

확실한순익보장델리매매 DCSW 매매가 32만불(cash only) 연간수익15만불이상(주매상만불) 수월한운영(키오스크시스템),저렴한렌트 비,오랜경험의 믿을 만한 직원, 공실 위험 없 는건물,주5일(6am-3pm) 꼭관심있는분만연락주시기바랍니다. 703-300-7207(문자)

Korean BBQ & Hot Pot 급매 \$280,000 메릴랜드게이더스버그,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 sqft, 저렴한 렌트비, 최근 새로 지은곳으로 리모 델링비 절감할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분

연락주세요. 240-988-6868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 직원 모집 매니져/시니어 어카운턴트 회계사자격증소지자 문의:571-389-4415 이력서: hr@yicompany.com

간호사모집RN,LPN(풀타임,파트타임) 재택근무, 처우는 별도 협의

▶703-507-2492 (Mr. Bae)

ANNANDALE, VA 공인회계사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우대, 무 경험자도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있으며, 영주권스펀서 가능

Email: wjkim0111@gmail.com

BridgeOne Insurance 보험에이젼트구함 사무실제공,유/무경험자가능,VA&MD ▶703-598-3316, 703-862-5395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 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관련업무경험자우대하며,체 계적인교육과안정적인근무환경을제공합 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 대우보장 문의:703-225-5500

이메일지원:hr@worldbankcard.net 많은 지원 바랍니다.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어카운트보실분구함. 유경험자 우대 703-507-2020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실에서일한경력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jshin.esq@gmail.com

리셉셔니스트(이중언어필수)를모십니다 장소: Chantilly, VA 20151 시간:조정가능(풀타임) 급여:인터뷰후조정가능 전화문의: 703-622-7737

Email: accounting@lbuniversal.com

하이트론스(Hitrons) 버지니아센터빌지점 Full time & Part time 세일 담당모집 가전제품 및 마사지체어, 매트리스 전문 매 장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급구합니다

▶201-417-5350

러브핸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가능, 컴퓨터사용가 능, 자격증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및문의: HR 담당

▶703-657-0944 /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홈케어(센터빌)업무팀직원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hr@firsthco.com ▶571-549-6789

김서규 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 자나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skim@skimcpa.com

보험회사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근무시간8시-5시(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구합니다. -경력자우대

-오후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직원구함

풀타임/파트타임/일요일판매경험자우대 ▶문의: 571-348-3723

Fairfax 풀/파타임이중언어 사무직유경험 40k-50k 베네핏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할곳: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센터빌,챈틀리지역물리치료병원에서 한국어/영어가능한Receiptionist구함 이력서: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ery-Level Welcome ▶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구.센터빌/챈틀리지역 임플란트전문치과풀/파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우대, Dentrix Plus Full/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식당/식품

콴티코 부대안에 있는 일식당에서 함께 일하 실웨이츄리스구합니다.(신분확실하시고 영어가능하신분)풀/파타임 443-978-0900

영어가능한델리매니저구합니다. DCSW(월-금,6am-3pm) 703-300-7207 (문자)

Hashi Sushi 일식당에서 서버, 어시스턴트 매니져구합니다. 영어필수, 경험자페이우대 703-628-9168 (문자)

파리바게뜨 베데스다에서 경험있는 제빵사 나케익 데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프레데릭스버그 일식당에서 일하실 히바찌 쉐프구합니다. 703-258-4356

에난데일 일본 라면 가게에서 파타임 홀직원 구함. 유/무 경험자 환영 703-338-3037

애난데일에 새로 오픈하는 분식점에서 주방 헬퍼해주실분, 파타임 카운터 케쉬어 구함 703-401-9997

Dumfries 컨비니언스토어RT1&234 야간근무가능하신분(11PM-7AM) 나이불문, 남자분 환영 703-291-7174/703-774-7443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lounge.com

진료 과목

•임플란트 ●신경치료 •충치치료 •전체/부분 틀니

•교정 ●발치

•크라운

•일반치과 •미용치과

•잇몸치료 ●응급환자 •임플란트 틀니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JJ Watch & Jewelry Shop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캐시어** 하시면서 기술 배우실 분



703.691.1993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구인 / 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 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703-477-3114

2025년 11월 6일 목요일 중앙일보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우대 매니저: 임희상이사

▶571-839-1647

H -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털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문자로연락주세요. 풀타임,파트타임 **▶**571-991-4172

이미용

매나사스 파크 바버샵에서 함께 일하실 바버를모십니다 일주일에 3,4일 일하실분 703-473-9771

세탁/얼터레이션

알렉산드리아 테일러 샵에서 바느질 하실분 모십니다. 3일 파타임 가능하신 분 703-328-3064

비엔나지역세탁소에서파타임으로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카운터 캐시어, 유틸리티워커 (영어가능자)

7am-3:30pm(월, 화, 목, 금) 4pm-7:00pm(월-토) 유경험자우대,무경험자트레이닝 703-499-7050

세탁소 픽업스토어에서 카운터 보실분 경험자우대, DC 전철역옆 240-644-4190

자동차 /정비/바디샵

폴스쳐치 지역자동차정비소에서 메케닉 유경험자구합니다. 첫째/셋째토요일휴무 571-332-6110

엘리곳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기타구인

손사이딩 올드하우스 메케닉 헬퍼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홈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윈도 우,도어경력자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에 한함 703-944-8433

No.1골프에서 Staff모집합니다(센터빌) **▶**571-591-4455

싱글/타운홈 렌트

GMU대학체육관뒤조용한싱글홈전체렌 트합니다.(웃슨하이학군) 방4, 화2.5, 차고2, 교통 편리 (조지메이슨 1 마일,패어팩스H마트1.3마일) 703-350-2278

스프링 필드 싱글홈(애난데일 부근) 방3,화2,즉시입주가능\$3,600

▶703-231-5572

우드브릿지 3 Levels Townhouse렌트 \$2,400, 방3, 화장실3.5, 업그레이된지붕, 창문, HVAC, 탁트인 넓은 부엌, 2 Master Suit Bedroom(윗층), 펜스 있는 뒷마당, 감 나무가 있는 앞마당, 교통편리, 밝은 타운하 우스,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페어팩스타운하우스\$2,900 로빈슨하이스쿨근처1,496saft 전체렌트 방3,화3.5,11/5일부터 입주가능 703-470-1736 / 703-470-7066

애난데일에서 5분거리 싱글홈 윗층(아랫층 과완전분리) 렌트합니다. 방3, 풀화장실, 리빙룸, 큰덱, 큰창고, 차고2 개, 넓은 뒷마당, 395/495/95 3분거리 703-508-5405 (Julia Jin)

애쉬번 타운하우스 렌트 \$3,300 전체마루, 차고2, 덱, 267/607 Briar Woods 하이스쿨 학군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하우스 렌트 2100 sqft, 방4, 화3.5, 워크아웃베이스먼

트\$3,200 470-485-1875

▶571-239-6054

1. 페어팩스 타운홈 \$3,300 방3,화2.5,차고1,End Unit.편리한로케이 션,잘관리된집 2.센터빌타운홈\$3,000 방3, 화2.5, 차고1, End Unit, 업그레이드많 이함,굿로케이션 3. 스프링필드 타운홈 \$3,000

방2, 화2.5, 2 assigned 주차, 밝고 환한집, 업그레이드많이함,교통편리 ▶703-919-0472

패어팩스 Costco뒤 타운하우스 렌트 \$3,900 방3/화3/차고2, 최고 학군, 29/50/66/286 최고로케이션 **▶**571-239-6054

1. 센터빌 Fair Crest 타운홈 렌트 \$3,500 방3, 화3.5, 2car garage, 긴드라이브 웨이, 주차 다수, 콜린 파웰초, route 50/66/28/29

2. Lorton 타운홈 \$3,300 방3,화3.5,2car,전부마루,주차다수 SouthCounty하이,RT95/395/286/123 **▶**571-239-6054

콘도 렌트

센터빌롯데 근처 콘도 전체 렌트합니다. 방2,화2.5,교통편리,즉시입주가능 \$2,180 301-466-1646

애난데일콘도\$1,500

방1,화장실1,고급스런나무마루,탁트인 넓은콘도,업데이트된부엌,계단없는1층 나무가보이는 넓은 발코니,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알렉산드리아콘도\$2,600 방2,화장실1,1,105 SF 넓은콘도, 13층으로탁트인조망,엘리베이터, \$100,000가량수리하고업데이트한모델 하우스 같은 콘도, 넓은 새 창문, 최고급스런 부엌, 넓은 리빙룸, 리모델한 화장실, 새 페인 트,즉시입주가능

매나사스콘도\$1,700 방1,화장실1,엔드유닛880sf,넓고밝은 콘도,세탁기,건조기,새화장실,나무마루 거실, 새 페인트, 넓은 발코니, 코스트코에서 1분거리,즉시입주가능 703-477-3114

애난데일 H 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화1,주차2,완전리모델링,모든가전 제품새것,즉시입주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헌돈 새 콘도렌트\$3,000

방2,화2.5,차고1,이노베이션메트로역도 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자이언트, 1,600sf, RT267/28, 최 고교통요지

▶571-239-6054

1.옥톤싱글\$3,600,방5,화2.5,차고 2, 2.5acre 숲속,아름답고조용한 게이트있는집

2. 센터빌 stonegate, 콘도 렌트 \$2,100 방2,화2,2층1100sqft,securitygate

▶571-239-6054

방렌트

로튼(애난데일에서 15분 거리) 조용한주택 가 1층 같은 워크 아웃 베이스먼트 전체 방 3개, 주방, 냉장고, 세탁기, 인터넷, 유틸 리티포함, 출입분별도, 2500 sqft 571-488-5860

애난데일 원룸스타일 방렌트합니다. 방안 에샤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책상 다 갖추 어져 있고 깨끗합니다. 571-232-6052

애난데일 H마트옆 밝고 조용한 콘도 방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571-326-5605 / 301-266-1858

애난데일 큰싱글홈 밝고 큰 화장실 딸린방 렌트합니다.교통편리 롯데1분한강식당1 분거리,입구별도,주차넉넉

703-395-4380 / 703-965-2343

스프링필드지역조용한싱글홈방렌트, 간단한취사,가구완비,인터넷,학생또는직

장인 여성 환영 571-286-2439

스프링필드(Backlick&Braddock이만나 는곳)조용한싱글홈베이스먼트방렌트 워크아웃, 간단취사가능, 교통편리, 주차넉 넉, 남자분 환영 703-750-2795

GMU근처조용한동네싱글하우스욕실딸

린큰방하나렌트합니다. 남자분 환영, 즉시 입주 가능 240-271-1879 (문자요망)

애난데일 예촌앞 타운하우스 방 렌트합니다. 가구완비,취사가능, 직장인,학생환영 703-622-2033

애난데일 타운하우스 밝고 조용한 윗층방 렌 트, 나무 마루, 유포, 교통편리, 여성분환영 고양이 괜찮으신분만문의 바랍니다. 571-345-8879 (문자요망)

애난데일 메시아 장로 교회뒤 타운홈 2층 방 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703-887-5173

애난데일에서 5분거리 싱글홈 윗층(아랫층 과완전분리) 렌트합니다. 방3, 풀화장실, 리빙룸, 큰덱, 큰창고, 차고2 개, 넓은 뒷마당, 395/495/95 3분거리 703-508-5405 (Julia Jin)

센터빌CVS근처깨끗한싱글홈2층방하나 렌트, 가구/취사/세탁/인터넷 완비, 여자분 환영,즉시입주가능 571-758-7117

페어팩스 방렌트 또는 하숙 하실분 구합니다 GMU, 노바에서 5분거리, 방/화장실/부엌/ 세탁기모두별도,편리한파킹 703-388-8518

페어팩스 웃슨 하이스쿨 건너편 타운 하우스 베이스먼트전체렌트 방1,키친,욕실,워크아웃 571-643-8008

애난데일 H 마트 근처 싱글홈 1층 렌트 방1,화1,주방,여자분환영\$1,200 즉시입주가능

571-318-1119

애난데일 순복음 교회 앞 주택 지하 렌트 방2,화장실,큰거실,부엌,방하나쓰실분 또는 전체 쓰실분 703-244-3453

애난데일 싱글홈 반지하 방렌트 놓습니다. 출입문별도,취사가능,여자분환영 571-213-9080

센터빌롯데근처타운홈이층욕실딸린큰 방하나렌트합니다. 571-970-8048

센터빌CVS근처타운하우스마스터베드 룸/개인욕실/워크인클로젯/여성분환영 571-243-7027 (문자요망)

사무실/점포렌트

애난데일 오피스 전체 렌트 나무마루, Newer Windows, 계단 없는 1층 위치,새로 단장한 화장실,넓은 주차장,교통 편리 \$2,000 즉시 입주 ▶703-477-3114

애난데일(자이언트근처)오피스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 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킨뒤 환한 오피스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3개,화1,오픈스페이스,파킹다수, RT29/66/28/286

▶571-239-6054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전체 4 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문자요망)



부동산 매매

부동산

챈틸리급매타운하우스\$300,000 방2,화1,아담한뒷마당 ▶703-231-5572

센터빌벽돌타운하우스\$589.000 방3,화2.5,차고1HMART근처

29/28/66 Braddock ▶571-239-6054

우드브릿지타운홈\$399,900 방3,화31/2,잘관리된밝고환한집,펜스 가 있는 뒷마당, 3층 구조, 업그레이드된지 붕과창문, 히팅&에어컨시스템

▶703-813-8949

메나사스 타운홈 \$445,000 방4,화31/2,엔드유닛,업데이트한부엌과 화장실들, 3층모두나무마루, 워크아웃베 이스먼트, 새주방용구들, 새 HVAC, Granite Countertop, 새페인팅, 새브라인드, 넓은 덱 과펜스

▶703-813-8949

1. 엘리컷시티싱글홈\$820,000 방4,화2.5

2.콜롬비아타운홈\$595,000 방3,화2/2

▶301-318-4242/443-668-0453

1. 워싱턴 디씨듀플렉스 \$950,000 방4,화장실 4+1,차고1,새집,편리한교통, 모던하고 예쁜 집 2. 워싱턴 디씨 SE 타운 \$649.000 방5,화장실 3+1,새타운하우스,모던하게 지은예쁜집

▶410-417-7080

1. 메릴랜드포토맥싱글홈\$1,075,000 방 4, 화장실 2+1, 차고 2 포토맥에 위치한 잘꾸며진집,좋은가격 2. Nottingham 타운홈 \$349,900

방4,화장실3,최근에전부새로고쳤으며, HOA가없는집 3. Elkridge 타운홈 \$625,000 방3,화장실2+2,차고2,아주넓고이쁜집, 마루바닥, 1층에 안방

4. 실버스프링 타운홈 \$750,000 방3,화장실 3+1,차고 2 13년된 벽돌로지어진고급 타운홈, 5.엘리컷시티싱글홈\$820,000 방5,화장실 3+1,차고2,밝고이쁘게 잘꾸

며진집, 넓은 뒷뜰 ▶410-417-7080

1. 패어팩스싱글홈\$999,000 방 5, 화장실 4+1, 차고 2, 넓은구조와 잘가 꾸어진집, 벽돌, 마루바닥 2. 패어팩스 싱글홈\$1,050,000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우슨 학군, 편리한 교통, 최근에 업데이트 3.비엔나싱글홈\$1,87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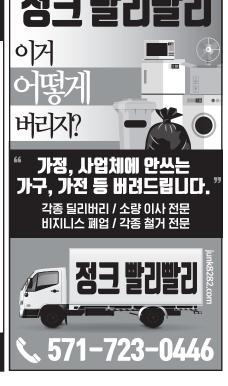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11월 6일 목요일

구인 / 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방 6, 화장실 6, 차고 2, 새집같이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집, 편리한교통 4. 페어팩스 타운홈 \$850.000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앤드 유닛, 아주 밝

고이쁘게잘꾸며진집 ▶703-899-8999

1. 던로링 메트로 앞콘도 \$460,000 방1,화1,1/2층오픈LOFT835 sqft, 전부리모델링,나무마루 2. 맥클린콘도 \$409,000 방2,화2,1,050 sqft Mclean High, RT495, 66/26/7

Metro, Tysons Gelleria옆 ▶571-239-6054

Alexandria 콘도\$365,000 방2,화2,TopFloor엔드유닛, 업데이트되고 잘 관리된 콘도,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나무 마루, SS Apliance, Granite Countertops, Deck, 세탁기, 건조기 ▶703-813-8949

1. Ashburn 타운하우스 2012년 방3.5, 최고학군, Dulles Airport RT267/50/28/607 2. Woodbridge 싱글하우스 \$639,000 방3,화2.5차고1,좋은동네,좋은학군,전부 업그레이드 RT 1/95/234 3. South Riding 타운하우스 2014년 \$645,000, 방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571-239-6054

1. 패어팩스새 빌더홈 우슨 학군 싱글홈 \$1,900,000 2. 페어팩스 씨티 타운하우스 새 빌더홈

\$930,000 방3, 화장실3, 차고2 3. 챈틸리새 빌더홈콘도(2025년 완공예정) \$670,000 방3, 화장실2.5

4. 페어팩스 중심가 타운하우스(2025년 완 공예정)방3,화장실3 \$1,000,000

5. 챈틀리콘도새 빌더홈(2025년 완공예정) \$530,000 방2,화장실2

▶703-231-5572

1. 알렉산드리아 단독주택 \$619,000 방3,화2단층집으로넓은백야드0.3에이커 프랜코니아지역으로교통,

생활시설 편리, 시니어 거주하기에 편리한 단 층구조, 지붕, 에어컨등 최근 교체, 계단 없슴. 2.매나서스콘도\$330,000 방2,화2 주차공간 편리한콘도, 그로서리,병원,레스토랑,도서관등좋은생활 여견

▶703-483-0505

사업체 매매

알링턴지역 커피&샌드위치샵매매 주7일 영업, 주 매출 약 \$20,000, 렌트 \$11,000/월, 매매가\$180,000 안정적인 고객층을 가진 소형 커피, 샌드위치 전문점, 빠른 인수 가능

▶703-928-5990

확실한순익보장델리매매 DCSW 매매가 32만불(cash only) 연간수익 15만불이상(주매상만불) 수월한운영(키오스크시스템), 저렴한렌트 비, 오랜경험의 믿을 만한 직원, 공실 위험 없 는건물,주5일(6am-3pm) 703-300-7207(문자)

Korean BBQ & Hot Pot 급매 \$280,000 메릴랜드게이더스버그,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 sqft, 저렴한 렌트비, 최근새로 지은곳으로 리모델

꼭 관심있는분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링비절감효과. 관심 있으신분 연락주세요. 240-988-6868

델리샵(DC)\$150K DC내위치, 장사잘되는곳이나은퇴예정, 안정된수입,투자용 ▶703-625-9909

헤어,네일&스파살롱사업체매매

(레스톤/헌돈지역) -\$100,000

- 현지 경험을 두루 갖춘 잘 정비된 사업체로 수익좋고지속성장가능

-월임대료&수도세없음**

-6개 헤어 부스 + 2 페디큐어 부스 + 2 네일 테이블+1마사지룸+1왁싱룸 꼭관심있는분만연락 바랍니다.

571-315-3533 (영어 가능하신분)

중고매매/기타

어큐라 MDX 2012년 134,000 마일리지 타임벨트&배터리교체,그레이색상, 굿컨디션

703-909-9377

슈가링왁싱배우실분모집합니다.(애난데일 루미나에스테틱스튜디오) 자격증소지 강사가 직접 지도, 한달 완성, 왁싱제품판매,저렴한가격으로서비스도해 드립니다.

240-205-4949

최고급등산장비팝니다. 아래 번호로 메세지 남기시면 바로 전화 드리 겠습니다.

703-869-5919

비숙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운영. 널싱홈. 나이, 학력, 경력, 성별 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useb3.com 문의 이메일: admin@eb3recruit.com 전화: 571-546-8683

상태좋은남/여중고골프세트싼가격에팝 니다.

703-966-9072 (Mr.Kim)

부동산학교(5주속성반) 2025년 9월 16일(화) 개강 한국식 쪽집게 수업, 온라인 수업 병행, 기본 컴퓨터 교육, 합격후 10주 실전교육, 자체 제 작 한글교재와 문제 풀이 수업료\$350(교재비\$100) 703-899-8999/410-417-7080

색소폰, 클라리넷, 호른, 트럼펫, 트럼본, 플루 트-악기별개인맞춤레슨 757-338-8496

애난데일H마트근처텃밭공유하실분 1평, 2평, 3평 517-318-1119

무빙세일 (센터빌) 다이닝 테이블, 쇼케이스 그림, 유로피안 장식 품, 골동품, 청동으로된인어공주, 자수정수 집품, 강아지 케리어 등등 808-223-4825

건축/페인트/마루

손사이딩 올드하우스 메케닉 헬퍼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 술자, 헬퍼직원들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덱, 팬스, 지붕 제너럴컨트랙터 MR. 박

JGL 건설 회사 하청없이 25년 이상 숙련된 본사 전문인들이

직접시공합니다 **▶**571-213-8678

703-434-2810

JJL CONTRATOR INC. 지붕고민/돈걱정그만하세요 ▶703-835-0945

형제 건축 & 지붕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703-928-6255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욕실/전기설비,타일마루/루핑,카펫, 페인트/각종목수일일체

▶443-980-1167

JL 건축주방&욕실 리모델링 예쁘고실용적인주방과욕실을디자인하고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레드문페인트 하우스페인팅(In,Out),덱메인터넌스와 클리 닝,샌딩,파워워시,핸디맨서비스

▶문의: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일체자체라이센스보유, 책임보험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그외모든공사,주 정부라이센스보유,책임보험가입, 카톡아이디: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지금연금, 정말 만족하십니까? 한번의점검이,내일의차이를만듭니다. 703-577-8181

정문기 메디케어 보험 65세 되시는 1960년생신규 가입신청 도와 드립니다.

▶703-598-3316

옴니화재사업체,자동차,집,의료,생명보험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원메디케어/메디케이드보험 ▶703-862-5395

조은혜종합보험 메디케어&오바마케어신청접수/자동차/주 택/사업체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융자

로리문 맞춤형연금 & 재정관리

▶703-895-7648

제인 최융자 25년 경력 매입/재융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장융자 주택/상업융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Mr.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문제의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히팅

SD MECHANICAL 테크니션 모집 대형슈퍼마켓 냉장냉동 서비스와 설치 전문 회사로 냉장냉동쪽에 경험 있으신분이나 관 심있으신분지원부탁드립니다 서비스지역 VA, MD, DC

Email:Sdmechanical.office@gmail.com 전화: 703-447-4683

KWK 냉난방 BALTIMORE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 프리저 수리전문

443-540-6922 / 410-292-0001

L&BUNIVERSAL 히팅,에어컨가정용/산업용전문 제일큰규모의 냉난방 회사,덕트클리닝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힛펌프, Carrier, Trane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 가정용/상업용

▶ 문의:703-380-2282

▶703-678-1749

JD 냉난방(Mr.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케리아 웃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히팅,냉동,냉장,워킹쿨러,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Mr. Chung) 에어컨,히팅,냉동,냉장,전기,플러밍, 워킹쿨러,아이스머신,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센터빌, VA) K24,K18,K14,K10,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 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 의서비스, 합리적 가격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AS 전단팀보유, 놀라운품질, 저렴한가

▶703-600-9031

격,모든샘풀가지고방문

▶571-229-4633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 우드/타일,주거용/상업용한번시공은끝까 지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스 팀샴푸,살균,소독,냄새 및 얼룩제거,브러쉬, 파워풀청소. 응급수해복구 및 타일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화장실,키친리모델링,온수,히터디쉬워 셔,Disposals,상하수도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플러밍 수도꼭지,변기,하수도뚫음,상하수도수리교 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냉동,집안밖물새는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이사/배송서비스전문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24/7) 빠른/책임/값이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Email: mimovingllc@gmail.com

정크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이사전문, 비지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가구,가전품등 처

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HD 현대 통운

고려통운

범양해운 정확한선택, 확실한 만족,귀국 이삿짐 포장이

사,타주이사(차량운송)무료견적 ▶703-298-1919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귀국, 해외,타주,시내 이사,고품격포장.자체창고보관서비스한국 화물배송서비스 ▶703-339-8844

세계 어느곳,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100% 자체보험 확실한세관처 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안전,신용,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포 장이사,타주,시내이사,자체창고 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토요핸디맨 (전기, 목수, 타일, 배관, 창문, 마 루,페인트)

443-994-3415 (전화 메세지 주세요)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개스/히팅/에어콘/역류장치/ 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작 업(수해,화재,가구,곰팡이)보험처리가능/용 접(철,스텐,알미늄)/제작및설치(키친후드,

301-222-3277

▶▶HBS Energy Inc에서 VA지역 LED 프로 그램세일즈 및 전기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시공과마감! 파인애플홈 Mr. 박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703-434-2810

H.P. C 집수리센터 집 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 손잡이 전문 703-340-5858 (VA) 443 -980 - 5858 (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기술자,영어소통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모든 공사가능. 라이센스소지, 전화상담환영, 무료견적, 철저한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리모델링 각종전기,카메라, DATA 24시간출장가능,

▶703-582-7757

JK유리 &Window/상점,가정용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지역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703-346-5962

임업/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깍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높은페이와근무시간보장

HD Plus Construction 밀웍샵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카펜터(캐비넷,코리안카운터탑제작) -프로젝메니져(이중언어)

(571)420-5492 / (703)256-5486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2025년 11월 6일 목요일 중앙일보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1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C 플랜·약보험·치과·안경·OTC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내려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이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셜이 최고의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 Lennox 전문딜러



L&B Universal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페인트

Since 1988

- <mark>▶ 건축ㆍ시공 및 건물ㆍ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mark>
- <mark>▶상가 및 빌딩 신축ㆍ리모델링</mark>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mark>▶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mark> · 관리 대행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Repair Doctor

페인트,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Call 24시간 가능

-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 ₹ 목수, 타일, 마루, 덱, 캐비넷 샌딩 보수
- ♥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571.623.0255

Annandale

업 범망애운 귀국이삿짐/차량운송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무료겨전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Door to Door Service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USA(SAN DIEGO) USA(NEW JERSEY)

귀국,해외 이사 타주,시내 이사

귀국,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교려통운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USA(ATLANTA)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20년 전문// ▶귀국 이사 전문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JL Contractor Inc. 야곱의 사닥다리 🦠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Mr. 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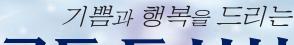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박을구

보 석





- 백금(Platinum) 다이아몬드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남양 진주 각종 보석 취급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돌 반지 팔지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플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융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중앙일보 2025년 11월 6일 목요일

에어컨&이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Huundai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에어컨 / 히터 / 힛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

03.380.228



상업용

JGL Construction Inc.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Office: 571-213-8678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703-813-8949

703-813-8150~5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hvac.com

o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24 hours

'A-MD-D.C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한국산 Smart Curtain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EVERSHINE Construction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15년 이상의 경험 ●보험가입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영제건축•지붕

H BROTHERS CONSTRUCTION, INC.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드립니다.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상업용

지하실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703,994,2943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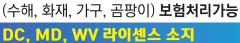
플러맹

- ◆ 수도꼭지 교체
- ◆ 씽크 / 디스포져
- ◆ 워러히터 / 물새는것
-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 썹펌프 교체

VA A 라이센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개스/히팅/에어콘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닥트)
- 복구작업



301-222-3277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LA 지역 10,000 스퀘어피트 자체 공장과 쇼룸 보유 메릴랜드,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노스캐롤라이나 전 지역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한국산 지브라쉐이드, 전동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회고급 공기정화, 항균 원단, 방염 기능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무료 방문} **703.600.9031**

애난데일 703-354-1515

2층쇼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일: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부모님이 좋아하실 선물은 역시 안마의자 바디프랜드! 더라인 ok 성능도 ok 기쁜 더~더욱 ok



신제품

입고 기념 20~25%

> HIGH-TECH ROBOTICS **TECHNOLOGY**

크기는 줄이고 기술은 완벽하게 콤팩트한 헬스케어 로봇, 빨곤SV 작은 공간에도 문제없이 콤팩트하게! 헬스케어 로봇의 더욱 다이내믹한 마사지감! *천연가죽 사용으로 강해진 내구성!



풀무원 김치냉장고 120L







Osaki PRO 4D Osaki PRO 4D MAESTRO LE | EMPEROR 뉴프리미엄 4D 안마의자 건강마을 <mark>파격 할인 가격</mark>을 확인하세요.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짜맞춤 방식으로 제작 3 100% 300년이상 최고급 라오스산 히노키 원목
-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욕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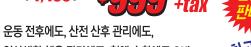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 5 3중 고온 안전처리
-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8세계 최초 미립자 스팀 기능



빅빅 세일가 (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명품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돌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3 간단 편리한 작동 2 튼튼한 뉴질랜드 원목 4 우수한 안전성



건식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7도 건강을 채우고 따로를 뚜세요~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IBERTY UNIVERSIT

(Meridian Institute of Technology University)

세계 최초 카드 프로세싱 · Fintech · IT 창업 전문대학

① 카드 프로세싱 전문가 과정 (Fintech & IT Training)

- 전문 과정 수강료: \$5,000
- 카드 단말기·POS·온라인 결제 교육
- 교육 후 공인 카드 프로세싱 전문가 자격 취득
- 실습 과정 + 현장 배치 지원
- 안정적 수입

② 소액 창업자 & 투자자반

- 카드 프로세싱 회사 운영 기회 제공
- 창업 투자자금 약 \$50,000부터 가능 본사 지원으로 독립 지점 개설 가능
- 세계적인 결제 시스템 기업 제품 판매 및 서비스 기회 결제 시스템 + 마케팅·운영·고객 관리 교육 제공

③ 비자 연계 창업 프로그램 (E-2, EB-5 Visa)

- E-2 비자: \$150,000~\$300,000 투자 → 투자비자 교육 프로그램 + 독립 지점 창업 지원
- EB-5 비자: Million Dollar 투자 프로그램 (영주권 연계) → EB-5 프로그램 교육 과정 포함 글로발 투자 이민 건설팅 회사와 투자 이민 전문 변호사 협력 지원가능
- 합법적 미국 체류 +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 기회 제공
- ☑ 교육 + 창업 + 투자이민 원스톱 솔루션 제공 Subjectly Bankcard(MPS) & Liberty University 전문 지원 🥯 세계 1위 회사 (Worldpay.com) 서비스 제공하면서 안정된 고소득 창출하세요.

문의 (424)332-3779 미전지역가능

입학 설명회 및 ZOOM 미팅 예약번호: (424) 332-3779

'라이센스를 받으시고 고소득을 평생 올리세요' 학교 웹사이트 interpacU.com 에 들러서 한국어 Sample 강의를

들어보시고 법무시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213)674-7000 (213)505-7703



학장:사라 류박사

https://wikitia.com/wiki/Dr._Sarah_Sun_Liew

(전자상거래 & 금융), 영업학, 교육학, 설교학 박사 하버드 경영·교육·정치 대학원

아버드 성영·교육·정시 내약물 Alumni MIT, Wharton, Chicago Booth 경영대학원 수학 하버드, 아브라함(J.D.) 수학 퍼시픽(J.S.D.) 법대원 졸업

30년 프로세싱 경력 경영학 & 법학박사(J.S.D.)

술 안하고 OK

항문풀림·변비·요실금 훌훌 직장과 대장암 발병 예방효과 새끼 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간편합니다. **똥배·뱃스** 요요없이 빠져요

기적의 티타늄벨트로 허리통증·냉증도 탈출

실제사례 www.miracletouchusa.com 검색

(213)800–3662 (213)407–4524 미라클 터치 (213)675-6877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미주 중앙일보는 한인사회의 뉴스와 목소리를 주류사회와 한인 2~3세들에게 전달하고자 영어뉴스 사이트

(Koreadailyus.com)를 **출범**시켰습니다.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20년된 한식겸 일식당급매

소자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현대자동차 등 협력회사 많은 지역으로 트래픽이 많은 지역입니다. 몽골베리 알라바마지역 가 \$10만 (Nego 가능)

(334) 669 - 4474

Leisure World Seal Beach, CA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경우 한분만도 가능)

· 30년 1파운드 \$750→\$550 · 40년 1파운드 \$1,500→\$950 · 50년 1파운드 \$2,350→\$1,500

Kim's Acupuncture Clni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성민 산삼 한방 병원 서영수 한의학 박사와 중풍 증상이 크게 호전된 델휘노 고메즈 씨

마비됐던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심혈관 치료에 좋은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소 작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 /**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치료전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Tel. 213.385,3304 Cell. 213.503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문 의

(832)605-4890 - (281)501-2623

: NO

어르신을 위한 연말연시 최 건대추 판매 11

묵은해 대추 : NO 쪄서 말린 대추 : NO : NO : NO : NO

숙성된 퇴비를 듬뿍 사용하여 재배한 양질의 대추를 100% 천연광으로 정성껏 건조시켜 맛과 영양 보존 상태가 최고인 고급 건강 햇 대추 입니다

하세요!

88 (Mrs. Han You) 건대추 미주 전지역 운송비 포함 가격

\$180/10LBS-1BOX |\$150/10LBS-1BOX **\$100**/10LBS•1BOX \$12/16 대추 \$7/16 대추 \$15/16 대추

\$12/lb 대추는 \$15/lb 대추브다 품질은 같으나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Pay by Zelle or check. No credit card. 하와이 알라스카 추가요금

714.833.4988 (Mrs. Han You) 2060 Darby St, San Bernardino, CA 92407

Manassas 타운홈

방4, 화3½, 엔드 유닛 타운 하우스, 업데이트 한

부엌과 화장실들, 3층 모두 나무마루, 워크 아웃 베이스먼트, 새 주방 용구들, 새 HVAC, Granite

Countertop, 새 페인팅, 새 브라인드, 넓은 Deck와 Fence

Alexandria

방2, 화2, Top Floor 엔드유닛, 업데이트 되고 잘 관리된 콘도,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나무 마루, SS Appliances, Granite Countertops, Deck, 건조기 및 세탁기

\$365,000

















Woodbridge 타운홈

업그레이드된 지붕과 창문, 히팅 & 에어컨 시스템





All Brick Home, 럭셔리, 4,000sq, 2 Car Garage,





때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세리 리 703.244.6526

Hyundai of The Easty Incorporation of The Easty